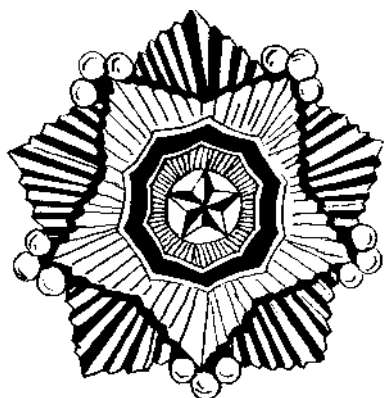


9

주제104(2015)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4(2015)년 제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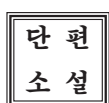
(루계 제815호)

차 례

나는 백두산에 오르려다(시)	김 령(3)
세계를 앞서가리(시)	한 광 춘(4)
빨찌산군복입은 어머니님 미소(가사)	김 중 삼(4)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14)
단편소설 노대를 잡은 녀인	박 성 심(5)
조국은 군자리를 잊지 않는다(시초)	류명호, 최주원, 신창섭(15)
황금해의 해돋이(시)	문 용 철(19)
주체문학의 대강	(20)
시인 김두일과 가사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김 정 미(20)
바다와 전사	김 희 종(22)
인생의 시작에서 끝까지(장시)	정 동 찬(23)
조선옷 좋을시구(가사)	김 형 찬(35)
아름다운 세월을 삼니다	박 철(36)
방목길의 회초리소리(가사)	황 명 성(36)
대동강은 눈부신 궤일로 흐른다	박 현 철(58)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동지 따라 만방에 빛내이자!

— 공동구호에서 —



래일을 안고산 처녀 김 승 국(27)

학부형위원장 김 명 호(37)

자신을 믿으라(실화문학) 오 광 천(48)

평양의 딸(단막희곡) 우 인 희(63)



술에 대한 생각 송 혜 경(61)

류다른 수포 리 순 실(72)

시대정신에 대한 민감성과 형상의 세계(평론) 김 학(44)

평범한 생활과 생동한 세부적 화목(연단) 림 순 남(77)

탄부와 석탄(시 묶음) 리신환, 김명철, 리 명(74)

치마바람(풍자시) 김 용 엽(76)

상 식 (43), (47)

나는 백두산에 오르겠다

김 령

자나깨나 마음속에
안고사는 백두산
내 삶의 시작처럼
내 삶의 절정처럼
언제나 나를 소리쳐부르는 산

눈속에 피어웃는 한송이 꽃에도
혈전의 수십성상이 눈물겹게 어려오고
밀림에 불어오는 한줄기 바람결에도
총성의 메아리가 뜨거웁게 실려와

아, 항일의 선렬들 김장군파라
혈전의 붉은기 높이 휘날린 산
걸음걸음 굽주림과 흑한을 이겨내며
피어린 격전의 고비들을 넘으며
쓰러지는 마지막순간에도
마음속에 내리지 않은 산이어

불어다오 백두산의 눈보라여
언땅을 뜯어 풀뿌리를 캐어먹으며
그마저도 가리운 눈덮인 광야에서
생 눈을 움켜쥔으며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따라섰던
항일의 투사들 불렀던 적기가
너의 그 칼바람에 실어
이 가슴을 팡팡 울리어다오

어떻게 올랐느냐
원췌에게 두눈잃은 너투사는
무슨 힘으로 올랐느냐
혁명의 사령부지켜
스스로 허를 꿔온 투사는

혁명의 승리도
백두산에서 제일 잘 보이기에
혁명가의 지조도
백두산앞에서 가장 정확히 검증되기에

두눈을 잃고서도 올랐다 백두산에
허를 꿔고서도 올랐다 백두산에

나도 오르겠다 백두산에
이 나라 첫 영웅들이
붉은기 추켜들고 먼저 오른 산
영웅의 선군시대가
온 나라를 소리쳐부르는 산

내 만약 가다가 힘이 진하여
백두산아, 너의 한그루 나무밑에
주저앉으려 한다면
그 거목의 등줄기에 새겨진
피의 글발을 들어
나의 넋을 후려쳐다오

내 만약 가다가 한생이 진하여
백두산아, 너의 돌밑에
가닿지 못한 그 생을 묻으려 한다면
그 이끼덮인 돌밑에 잠들고있는
불굴의 령혼들을 일으켜세워
백발의 내 한생을 꾸짖어다오

머리들어 바라보면
우리 수령님 만고의 혈전사가
치솟아 만대에 아아한 산!
우리 장군님 불멸의 혁명정신이
나래쳐 눈뿌리 아득한 산!

선군혁명천만리가 뻗어내린 산
주체위업 천만대가 뻗어내린 백두산으로
내 한생토록 오르고오르리라
김정은원수님 따르는 길에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신념 버리며
푸른 소나무의 기상을 안고
오르리라 인생의 영광도
내 백두산마루에서 안으리라

세계를 앞서가리

한 광 춘

그 이름만 불러봐도
이 심장은 환희로 벅차오른다
한가슴에 안아볼수록
만복의 꿈이 꽃핀 미래가
눈앞에 가까이 다가선다

지도에 그려진
그 모양은 변하지 않았건만
우리 원수님 손길아래
그 이름 새롭게 태어나
인재강국의 래일을 안고 빛나는
내 조국의 자랑 과학의 섬이여

문명의 빛발을 한몸에 휘감았구나
우리 수령님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해방조선의 대로를 열어주신 이 축섬에서
원수님은 펼쳐주셨다
과학의 힘으로 앞당겨올 부강한 미래를

한평생 래일 위한 오늘에 사시며
우리 장군님 다져주신
주체과학의 만년터전우에
세계를 앞서나갈 번영의 궤도를
그이 힘차게 그어주실 때
대동강의 유구한 흐름도 물갈기를 일으키며
과학의 섬을 한몸에 환희로이 안았나니

원대한 포부가 용솟음치는 대전당이어
무한하다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이 땅에 불러
네 지닌 그 힘

과학기술룡마의 나래를 펴고
최상의 문명으로 도약하는 그 힘의 분출

이제 여기서 두뇌전의 기수들이
인류가 걸어온 사색과 탐구의 긴 로정을
순간에 펼쳐보며
최첨단돌파의 뒤흔을 울리리라
에서 빛나는 눈빛들은
조국을 빛내이는 창조의 별을
가득 떠올리리라

누구나 찾아오는 배움의 정든 집
성공의 지름길을 찾고
세계적인 발명으로 온 세상을 들썩일
인재가 되어 떠나리라
공장과 어장 대학과 과학지구로
더 빨리 가리라 강국의 그 아침으로

어디에 또 있으랴
인민이 사랑하는 지식의 보물섬
세상에 둘도 없는 과학의 보물섬
대전당의 총계를 오르고올라
우리 보란듯이 들어설 사회주의문명강국이어

아, 가슴에 안아볼수록 희한한
과학기술전당의 그 모습
비약하는 조선의 속도는 더 신비하리라
인재대군의 힘찬 발구름소리높이
찬란한 미래으로
조선은 세계를 앞서가리!

가 사

빨찌산군복입은 어머니미소

김 중 삼

빨찌산군복입은 어머니 환하신 미소
수령님해빛속에 은헤론 봄빛되어 흘렀네
광풍이 몰아치던 내 나라 조국강산에
백두광명성 받들어올린 따사론 봄빛입니다

행복이 마중오는 어머니 환하신 미소
장군님 전선길에 사랑의 봄빛되어 흘렀네
선군의 위용으로 자랑찬 조국강산에
락원의 봄을 앞당겨부른 따사론 봄빛입니다

밝은 미래 그리시는 어머니 환하신 미소
주체의 년륜속에 영생의 봄빛되어 흐르네
원수님 펼치시는 부강한 조국강산에
태양의 봄을 길이 전하는 따사론 봄빛입니다

아 빨찌산군복입은 어머니 환하신 미소
태양의 해빛속에 영원한 봄빛입니다

노대를 잡은 녀인



박 성 심

1

《그 동무를 만나보지 않고 어떻게 그런 결심을 내릴 수 있어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군녀맹위원장 오승금의 귀전에서 여전히 사라지질 않았다.

사라지지 않을뿐더러 가슴속까지 마쳐와 저도 모르게 죄의식이 들면서 한걸음 앞서 걸으시는 김정숙어머님의 모습을 바라뵈을 용기마저 없었다.

...

오늘 새벽녘이었다.

사무실에 앉아 각 리에 파견된 녀맹일군들의 사업정형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쓰고있던 승금은 뜻밖에도 김정숙어머님을 만나뵈게 되었다.

어머님께서 장군님을 모시고 자제분과 함께 군에 내려와계신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친히 자기 방에까지 찾아와주실줄은 미처 몰랐던 그였다.

누구나 흔히 입고다니는 수수한 무명치마저고리차림의 단정하신 그 모습, 군녀맹위원장동무를 찾아왔노라고 스스럼없이 건네시는 인사말, 그렇듯 소박하신 차림새를 갖추시고 겸허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마음속으로 공경하여마지않던 김정숙어머님이실줄은...

어머님께서서는 그가 권한는 딱딱한 나무의자에 앉으시더니 무슨 글을 그리 열중해서 쓰느냐고 다정히 물으시었다.

《도에서 최근 녀맹활동정형을 요구하길래 보고서를 좀...》

그무렵 온 나라에는 가는 곳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북조선로동신문위원회 제3차확대위원

회에서 제시하신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인민대중을 건국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강력한 사상선전일군단체로서 건국사상총동원공작대가 조직되어있었다.

지난해 12월 북조선로동신문위원회에서 건국사상총동원선전요강이 발표되는데 이어 무어진 이 공작대는 시, 군을 단위로 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들에서 선발된 우수한 선전원들을 망라하여 강연회, 해설담화, 좌담회, 연예활동, 직관선전활동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군중들속에서 사상선전사업을 해오는 한편 사상개조와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온갖 불건전한 사상독소를 뿌리뽑기 위한 일대 사상공세를 벌리고있었다.

잠시 무춤거리던 승금은 용기를 내어 그이앞으로 보고서를 내밀었다.

《한번 봐주십시오.》

쉬이 얻을수 없는 이 기회에 김정숙어머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행운을 지니고싶은 욕망이 그로 하여금 끈덕지게 간청하게 만들었다.

《제가 도움이 되겠는지...》

어머님께서서는 입가에 미소를 띄우시고 그의 손에서 문건을 받아드시더니 한장한장 번지시며 진지하게 들여다보시었다.

승금은 부지중 자기가 시험관앞에 선 학생같이 긴장해짐을 느꼈다.

(뭐라고 하실가?)

해방전 그래도 외동딸인 덕에 부모들이 피땀으로 벌여준 돈으로 중학까지 다닌 경력이 있는 승금이 여서 문건정리에서는 도를 통털어 세번째손가락을 벗어나면 쉽사리하고 할 정도로 칭찬이 자자했다. 군녀맹에서 조직한 건국사상총동원공작대에서도 그가 쓴 원고로 해설담화도 하고 연예공연도 하면서

보기 드문 실적을 올리고있었다. 이런 자랑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승금은 은근히 자부하고있었었지만 범상치 않은 어머니의 인품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한줌만 해지는 자신을 어쩔수 없었다.

아무리 보통너인들과 다름없는 차림을 하셔어도 그이를 우러르는 승금에게는 보이지 않는 매혹적인 열기가 뿜어져나오는듯 했으며 존안에서는 바라뵈울수록 마음이 끌리는 맑은 눈빛이 봄빛마냥 흘러 넘치며 온 방안을 정기로 짝 채우는듯 했다.

마지막장을 넘기신 어머니께서는 그때까지 움작 않고있는 승금을 바라보시며 다정히 말을 건네시었다.

《글을 잘 쓴다더니 헛소문이 아니였군요. 이제는 우리 녀성들이 이런 보고서도 어렵지 않게 척척 써내니 얼마나 좋아요.》

그이의 첫 말쑤에 승금은 달아오르는 불을 만지작거리며 방그레 웃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를 대견한 눈길로 이윽히 바라보시더니 문득 무엇을 참고로 했는가고 물으시었다. 승금은 도에서 내려보낸 선전요강과 이즈음에 맹렬한 공작대활동으로 평판이 좋은 이웃군의 경험에 기초해서 썼다고 어렵지 않게 대답을 올렸다.

《그랬었군요. 사람들속에서 반영이 좋은 공작대의 경험을 참고로 한건 좋은 일이에요.》

어머님께서는 정말로 기쁘시었다. 옛날같으면 골방에나 박혀 신세타령이나 하고있었을 우리 녀성들이 지금은 얼마나 어엿한 일군으로까지 성장하고있는가. 곁에 앉아있는 오승금의 경우도 그렇다.

몇주일전에 다녀오신 경성군에서 녀맹을 조직해 놓고도 남성들의 손을 빌어 보고서나 결정서를 만들고있는것을 아셨을 땐 정말 가슴이 아프셨다.

그들에게 오승금의 경험을 들려준다면 아니, 오승금을 본보기로 녀맹일군들속에 자립성을 키워준다면 우리의 녀맹조직은 더욱 튼튼해질것이 아닌가. 그러나 본보기는 자그마한 흠집도없어야 하였다. 어머님께서는 새형의 녀성혁명가를 키워내는 심정으로 아프더라도 그에게 조언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셨다.

《제 보기에는 그 군에서 농촌이 많은 자기 지방 실정에 맞게 사상선전활동방향과 진행방식을 짜고들었기에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아져요. 거기 지형과는 달리 여기 군은 해안연선지대인것만큼 이런 실정에 토대해서 공작대가 강연회나 해설담화 같은 사상사업을 널리 벌렸더라면 좀더 훌륭한 보고서를 쓸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머님의 어조는 조용했다. 그러나 승금에게는 폐부를 찌릿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그게 뭘가....

승금은 새삼스레 자신을 돌아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언제나 자기가 쓴 글을 훑어보느라하면 이목구비가 그쏘한 아들자식 보는것 같아 스스로 자신이 흐릿하게 느껴지던 자부심! 그 식으로 늘쌍 해오던 일이었고 그에 뒤따르군 하던 칭찬소리에 어느덧 습관처럼 굳어지기까지 했던 자부심!

그 자부심, 자긍심의 문을 열어제끼니 텅텅 빈 공간이 들여다보인다고 할가. 마디마디 울리는 어머니의 음성이 그 공간으로 차곡차곡 스며어들었다.

《방금전까지도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령세어민들의 생활에 대해 몹시 심려하시면서 우리가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벌리는것은 근로대중의 사상의식을 성과적으로 개조하고 그들의 창조적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을 최대한 발동하여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에서 새 조선의 일군다운 정신과 품모를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기 위해서라고 하셔어요. 여기서 녀성들에 대한 교양사업이 중요해요.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된지 한해가 썩 지났지만 아직까지 일부 녀성들은 난 녀자인데 하면서 옛날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스스로 발목을 얹매여 놓고있어요.》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여러날전에 있었던 경성군녀맹사업을 녀두에 두셨다. 무슨 일에서나 자신들의 힘을 선뜻 믿으려 하지 않는것, 어머님께서는 이것이 안타까우셨다. 남녀평등권법령실행의 실제적인 주인은 다름아닌 녀성들자신인것이다.

《담당자들이 발동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령을 내놓아도 소용없는게 아니겠나요? 그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새 조국건설에서 자기 몫을 하도록 할 때만이 장군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풀어 드리는데서 앞장에 서야 하는 공작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어요. 장군님의 의도를 잘 알고 책상머리에서가 아니라 군중속에 들어가 함께 방도를 모색하는 적극적인 실천가, 헌신적인 창조자가 되는것이 사상일군들이 지녀야 할 품모라고 봅니다.》

텅 빈것 같던 승금의 가슴은 어머님의 그 말쑤를 새겨듣는 사이에 그들먹이 차올랐다. 그럴수록 서툰짜리 글재주를 은근히 자랑하고싶어했던 자신이 부끄럽고 죄스러워 머리가 숙어졌다.

만약 자기앞에 앉아계시는분이 항일의 그 나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제일 앞장에서 견결히 옹호고수한 전위투사였으며 일제가 씨글거리는 국내깊이까지 진출하여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면서 인민들속에 장군님의 위대한 조국해방구상을 가장 훌륭하게, 가장 완벽하게 해설선전한 전설적인 지하정치공작원이었음을 좀더 일찍 알수 있었더라면 그는 거대한 산악에 모래알같은 자신의 처지를 두고 서있을 자리도 찾지 못했을것이다.

허나 그이의 뜻을 다 알기에는 아직은 문어구에

서있는 승금이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자책에 잠겨있는 그를 바라보시다가 오늘은 승금동무와 함께 있고싶은데 일정 계획이 무엇인가고 다정히 물으셨다.

일순 밝아졌던 승금의 얼굴빛에 구름이 졌다.

《어촌마을에 회의지도 나가게 되어있는데 그 먼 데까지 어떻게...》

일정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선 안돼요. 약속을 지키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한 측면이 아닐까요. 해변가마을들에 한번 나가보고싶었는데 마침이군요. 어떤 회의인가요?》

승금은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다른것도 아닌 사상투쟁회의에 어떻게 어머님을 모신단 말인가. 심려를 끼쳐드릴수는 없다. 그렇다고 그이께 거짓말을 할수야 더욱 없잖은가. 그는 솔직히 말씀드렸다.

집삼의 자그만 어촌마을에 사는 한 녀인이 제 리숙을 차리는데 급급하다나니 마을에서 락후분자로 말밥에 오르고있다는 내용이었다.

《사상투쟁회의라... 왜 그럴 정도로 잘못을 범했는지 리해할수 없군요. 그 동무는 만나보았지요?》

《...》

승금은 대답을릴수 없었다. 그 녀인의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을린단 말인가.

2

푸르른 바다위로 갈매기 한마리가 외로이 날고 있었다.

끼룩끼룩 애달프게 울며 날아에는 모양이 꼭 짝을 찾는것 같기도 하고 무리를 그리는것 같기도 하였다.

바다물면을 훑으며 이리저리 날아예다간 부리를 들고 하늘로 솟구치며 나래를 퍼덕이는 한마리의 흰 갈매기...

갈매기는 분명 그 무엇인가를 애타게 갈망하며 찾고있었다.

그것을 언제나 찾게 될지, 또 갈망한다고 이루어 질지 아직은 그것을 알수 없었다.

외로운 갈매기! 그는 설분이 자신이었다....

바다는 잠잠하였다.

그러나 설분의 마음속엔 파도가 일고있었다. 그 파도는 그의 마음을 설레이게도 하고 바위우에 부딪쳐 부서지듯 격랑이 일게도 하였다.

오늘 설분은 배를 타고 자기 힘으로 첫 물고기를 잡았다. 수확은 작았으나 기쁨은 컸다.

첫 배를 타던게 엇그제같은데 이제는 내 힘으로 물고기까지 잡다니...

힘들고 지쳤으나 그는 발걸음도 가벼이 집으로 향했다.

설분이 우물가를 지나칠 때였다.

그 주변에 모여 이야기를 주고받던 마을아낙네들이 설분을 띄여보는 순간 언뜻 놀라 말을 툭 끊었다.

자기를 피하는 그들의 눈길을 감축하자 설분은 마음이 서늘해움을 느꼈다. 그도 그럴것이 요즈음에 마을에서 흥흥히 돌아가는 자기에 대한 뒤소문을 이미 귀동냥으로 들은터였다.

녀자가 당치 않게 바다에 나다닌다거니, 시집을 때까지만 해도 얄전한 생각시갈더니 알고보니 바지랑대로 하늘을 썰 녀자라느니, 내인이 저렇게 세니 바깥주인이 먼저 돌아갔다느니...

원체 바다가녀인들이란 입심이 사나운 법이다. 그래서 웬간한 걸죽한 소리들은 흘려듣기가 일쑤이다. 그러나 설분은 자기 등에 대고 마을사람들이 뒤손가락질을 하는것 같아 황황히 도망치다싶이 하며 집으로 돌아와 부엌문을 소리가 나게 팡 하고 닫아버렸다.

선이 선명히 트인 이마에 휘우듬히 곱어든 눈썹, 그밑에 떠는듯 한 까만 눈동자, 선이 고운 코날과 부드러운 입술선으로 하여 무척 아련해보이는 이 녀인이 어찌하여 동네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것인가?...

설분이 태를 묻은 곳은 북쪽의 험한 산자락의 어느 한 자그만 마을이었다. 눈만 뜨면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옆에도 산뿐인 깊은 산골마을에서 그의 유년시절이 흘러갔다. 원래 여기에는 인적이 없었다. 왜놈들 꼴이 보기 싫어 하나둘 모여든 사람들이 인가를 이루었고 없는 세월에나마 정을 나누며 살아왔다.

그럭저럭 입치레나 하고 안온한 살림을 꾸려나간 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몸쓸 토질병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다. 토배기좌상로인의 말이 미역이나 물고기 같은 바다산물을 먹지 못해 생기는 병이라며 할수 없다는듯 도리머리를 저었다.

이 심심산중에 어디 가서 그런것을 구해온단 말인가?!

설분의 나이가 열여덟살 잡혔던 때라 그의 부모들은 선을 놓아 그만이라도 바다가마을로 시집을 보냈다. 그리고는 한많은 세상을 저주하며 숨졌다.

의지가지할데 없는 그에게 있어서 남편은 마음의 기둥이었다.

마음 어리고 얄전하고 순종밖에 모르는 우리 딸을 잘 돌봐주길 바란다는 장인, 장모의 마지막부탁을 남편은 성실히 리행하였다.

그 모진 세상에서 온갖 배일에 시달리며 진기름을 다 짜내야 하는 고역속에서도 남편은 설분을 따

뜻이 대해주었으며 집안의 크고작은 일을 다 맡아 안아 해치우곤 하였다.

그런이에게 미안한 감정이 앞서 설분은 그가 바다에서 돌아올 때치면 수평선이 바라보이는 도래굽이에게까지 나가 어둡도록 배가 나타나길 초조하게 기다리다간 정작 남편이 다가와서 《설분이요?》하고 찾으면 제족에서 먼저 돌아서서 달음질쳐가며 붉어진 얼굴을 감추곤 했다.

가난속에서 죽물을 나누어 마실지언정 마음은 편했다.

빈 죽그릇 두개뿐인 밥상을 거두며 민망해하는 설분에게 오히려 해방되는 날까지 죽지 말고 살아서 배부르게 밥을 먹으며 잘살아보자고 위로해준 남편이다. 후더분한 그의 인정에 비록 배는 고했어도 마음엔 언제나 그득한 그 무엇이 차있었다. 남편의 사랑, 앞날에 대한 믿음이 그를 늘 기쁘게 해주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해방이 된 그날 설분의 어촌 마을 사람들은 하루종일 먹지도 자지도 않고 춤판을 벌렸다. 나라가 해방되었다는 그것만으로도 며칠을 굶고 몇밤을 패도 힘이 진할것 같지 않았다.

해방전에는 선주님의 승인이 없인 얼씬도 못하던 바다가 낮에 밤을 이어 고기잡이하는 사람들로 붐비었다. 워낙 바다일에서는 막힘이 없는 설분의 남편은 그 누구보다도 고기를 많이 잡곤 하였다.

그걸 판 돈으로 갖가지 음식을 챙겨 처음으로 남편앞에 첫 흰쌀밥 한그릇 정히 떠놓던 날 설분은 조용히 눈물지었다. 희망을 안고 곳곳이 살아온 덕에 그들은 해방도 맞이하였고 밥도 배부르게 먹어보았다. 하지만 생활은 단조롭게 흘러가지만 않았다.

해방된 이듬해 가을이었다.

며칠째 고기 몇마리 께인 께미만 들고 들어오던 남편이 어느때부터인가는 아예 빈손으로 나타났다.

요즈막에 배군들이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소리도 들은적이 있어 설분은 은근히 남편의 일을 걱정도 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무뚝한 물고기임을 이고 시장으로 가는 옆집내인을 보고서는 아연해졌다. 어찌된 일인가?

설마 오늘 저녁에는... 하지만 그 저녁에도 남편은 빈손으로 들어섰다.

게다가 바로 물고기임을 이고 장에 나갔던 옆집녀인이 가슴이 철렁한 소식을 설분에게 물어다주었다. 설분의 남편이 큼직한 물고기임을 시장에 내다 팔더라는 것이었다.

설분은 처음엔 그 말을 곧이듣질 않았다.

《내사 정신이 쏙 나가지 않으니 이런 거짓말을 지어내겠나. 남정네란 몰라. 혹시 판살림이라도 돌보고있는지 어떻게 알아?》

어이없는 억측이었지만 남편이 거의 달포째나 빈손이다싶이 집에 들어오고있는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였다.

별 오만가지 생각을 다 해보았지만 도무지 영문을 알수 없었다.

그러고보면 남편이 요즘 자기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가고있는듯도 하다. 이제 남편이 오면 흑백을 따지고들리라 단단히 별렀건만 정작 남편과 밥상을 마주하고보니 눈물부터 건잡을수 없이 솟구쳐올랐다.

《밥상을 놓고 웬 눈물이요?》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설분이 겨우 뱉는 말이다.

《당신이 읊에... 판살림 편다는 소리가 돌아요...》

금시 밥을 한술 떠넣던 남편은 뺨지도 넘기지도 못하고 부름 떠진 눈으로 설분을 쾅해 바라봤다. 그러다가 급하게 넘긴 밥알이 숨길에 들어갔는지 연방 채채기를 해댔다. 급히 물사발을 권했으나 그는 손사래를 치며 설분을 등지고있더니 담배를 말아 불을 붙였다. 담배가 타들수록 그 못지 않게 설분의 가슴도 타들었다.

이윽고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곤 남편은 쓰다달다 말없이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설분은 주저앉아 울고싶었다. 너무 속상해 물은것인데 사람이 어찌면...

해방전 죽물을 놓고도 남들이 시샘할 정도로 두텁던 그들의 정은 해방된 오늘에 밥상을 사이두고 금이 갔다. 시간이 훨씬 흐르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없는 방에 홀로 앉아있노라니 꼭 기둥빠진 지붕을 쓰고있는것 같이 불안스러워 설분은 밖에 나섰다. 어둡시그레해진 사위를 가려보며 걸음을 옮기던 그는 바다가의 후미진 곳에서 배전에 걸터앉은 남편을 알아보았다. 담배도 다 피워버렸는지 까딱않고 앉은 남편은 멀리 수평선쪽을 바라보고있었다.

쫄쫄한 마음은 그를 무작정 남편앞으로 떠밀었다.

《이봐요, 제가... 잘못했어요. 흐흑...》

눈물이 쏟아졌다. 설분은 마음도 아팠지만 실은 넓은 도량을 가진 그가 성을 내는것이 더 무서웠다. 그가 없으면 누가 자기를 살뜰히 위해주고 누구한테 어리광을 부려보랴. 그와 멀어짐은 마음이 공허해짐이요, 마음이 공허해짐은 사는 맛을 잃어버리는것과 같은것이어서 당장이라도 그의 무릎에 엎디어 무작정 잘못을 빌고싶어졌던것이다.

설분의 마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남편은 꺾꺾소리내며 웃더니 그를 이끌어 자기곁에 앉혔다. 설분은 눈물로 얼룩진 뺨에 와닿는 남편의 손길을 꼭 잡으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기댔다.

그제야 안정감이 들면서 물기 촉촉한 눈시울이 살며시 내려감졌다. 믿음직한 심장의 박동소리가 고르롭게 들렸다. 남편의 목소리는 그 가슴속에서

올려나오고있었다.

《설분이, 우리가 해방전엔 죽지 말구 나라가 해방될 때까지 살아서 배부르게 밥을 먹어보는것이 소원이였지. 이젠 선주놈들두 안 보구 천대도 안 반구 배도 굶지 않으니 그 꿈이 실현된셈이야. 그런데 내 말을 좀 들어봐. 그 소원을 이루자고 임자나 나나 무얼 바쳤나 말이야. 그저 잔명을 부지하려고 기를 쓰고 살아온것밖에 없지. 손에 총을 들구 왜놈 하나라도 쏘았나, 아니면 나라를 찾기 위해 싸운이들에게 소금 한줌이라도 보내줬나 말이야. 없었어. 난 그게 죄스럽구만.》

찌릿이 젖어드는 감회에 설분은 남편의 가슴을 더 파고들었다.

부지중 몇달전 그의 억센 손탁에 이끌려 성인학교에 처음 들어서던 일이 떠올랐다. 그날 너무 부끄러워 머리를 들지 못하던 그에게 남편은 얼마나 존절히 말했던가!

《이젠 사람답게 떳떳이 살라고 나라에서 학교까지 세워주었는데 뭐가 창피해서 그래. 머리를 들라구. 앞을 보며 곧바로 걸어가야 해.》

소학교라도 문전에나마 가본적이 있는 그의 도움으로 설분은 우리 글을 곧잘 익혔다. 단지 안해에 대한 사랑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남편에 대한 존경심으로 이어졌다.

《요전번 읍에 나갔다가 애길 들으니 농촌들에서 애국미헌납운동으로 들썩하더군. 그들이나 우리나라같은 해방된 새 조선 사람들인데 이 꼴이 뭐야. 제 구복이나 채우자고 집둘레만 채바퀴처럼 돌구... 그래서 내 놈들이 달아나면서 마사놓은 이 배를 수리해보자는거야. 바다에서야 배없이 용을 쓰나. 이 배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나라에 조그만 보탬이라도 주면 좀 좋아. 안 그래?!》

설분은 눈을 들어 그의 모습을 바라봤다. 어글어글한 두눈에서 넓은 바다가 굽닐고있었다. 어쩔 내랑군이 이렇게도 속궁냥이 띄었던 말인가?

이렇듯 멋있고 잘난 사람과 일생을 같이하는 나 는 얼마나 행복한가! 며칠째 배수리로 빈손에 들어온 남편을 나는 얼마나 한심하게 곡해했던가. 생각할수록 부끄러웠다. 그 부끄러움을 남편을 도와나서는것으로 씻고싶었다.

며칠 안 있어 이 얘기가 마을에 퍼지면서 남정들이 너도나도 팔을 걷고 배수리에 나섰다. 그 배가 바다로 고기잡이 떠나는 첫날은 온 마을의 명절이었다. 수평선너머로 멀어지는 배를 바라보는 설분은 살아오던중 처음으로 되는 희열을 맛보았다. 허나 그날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비통한 날로 될줄 어이 알았으랴.

행복감에 흠뻑 젖은 그의 모습이 눈물로, 고통으로 이지러질줄 과연 누가 알수 있었던 말인가.

저녁녘 온 마을이 마중나온 배에는 그의 남편

이 없었다.

그들이 바다로 나간지 얼마 안 있어 바람이 터졌다. 바람새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지 못한건 아니지만 난생처음 자기것이 된 배를 타고 나와 자기것이 될 고기를 잡는다는 크나큰 궁지와 희열은 그들로 하여금 선뜻 배머리를 돌리게 되지 않았다.

한기만만 더, 한기만만 더... 드디어 선창엔 물고기를 가득 채웠으나 돌아가는 길은 험치 않았다. 점점 세차지는 바람, 길길이 높아지는 파도... 아무리 억척같이 노를 저었어도 그 사나운 풍랑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파도우에 떠실리운 가랑잎 한가지였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결사적으로 노를 저어가던 그들은 누구인가 《바위섬이다!》하고 경악에 질려 소리를 치는 바람에 소스라쳐 놀라 눈들을 들었다.

배는 한창 바위섬쪽으로 사정없이 떠밀리워가고 있었다.

저 바위섬앞에는 크고작은 암초들이 물속에 곱처럼 웅크리고있다. 이제 배가 그 암초밭에 들어서게 된다면... 그때는 모든것이 끝장이였다. 모두들 전물하듯 몸을 떨었다. 어떻게 하든 암초가 없는 저 바위섬 동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다음순간 또다시 배가 파도마루에 올라섰다. 피뚝 저아래를 내려다본 사람들의 등골로 전류같은것이 짝악 흘렀다.

이제 배가 저 바위와 부딪치면... 눈앞이 아득했다. 파도에 높이 뿔던 배가 바로 그 바위를 향해 막 내려쫓히는 순간 누구인가 서슴없이 그가운데로 몸을 던졌다. 쿵 하고 무엇인가 부딪치는 소리가 났으나 배는 파손되지 않았다. 허지만 그 사람은?...

다시 달려드는 파도... 모두들 물속에 뛰어내려 배를 암초가 없는쪽으로 밀어냈다. 련이어 덮쳐우는 파도, 파도...

떠밀리웠다가는 다시 배에 달라붙는 사람들... 끝 끝내 그들은 바위섬을 벗어날수 있었다. 마침내 풍랑도 잦아들고...

그리하여 사람들도 배도 고기도 모두 건재하여 기슭에 와닿았건만 땀뻘 뿜어내렸던 남편만은 돌아오지 못했다.

설분은 이렇게 기둥이 꺾였다. 마음의 기둥이 무척 잘리웠다. 마을사람들이 품을 모아 도와주어 생활은 편이었지만 기둥잘린 마음에는 폐허만 남고 그 폐허도 타버려 재티만 날렸다. 마음이 텅 비여 사는 맛도 없어졌다.

문득 남편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생각났다. 사람은 배도 차야 하지만 마음도 차야 한다고, 그것이 짐승과 다른 점이라고 하던... 아무것이냐 저한테 당락되어야만 그 쓸모와 진가가 느껴지는 법인

가부다.

링 빈 가슴은 방황하기마련이다. 방황하지 않으려면 등대를 찾아야 한다. 바다에서는 등대가 있어야만 헤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노를 힘차게 저어갈수 있다. 그래야 나약해지지 않고 역세계 살아갈수 있다.

그럼 그 등대가 나에겐 있던가? 설분은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어째서 애아버지는 성큼 바다물에 뛰어들수 있었을가. 아마 그 시각엔 나도 귀여운 딸애도 감감 잊었던게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밖에 할수 없도록 그이를 떠밀었던 말인가?! 그의 발길은 저도 모르게 바다가로 향했다. 거기에는 남편의 손길이 스민 배가 있었다. 그 배전에 앉아 얘기하던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가에서 맴돌았다. 그 배로 몇번 고기잡이를 한 다음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돈을 모아 며칠전에 새 배를 샀다. 그 배로 고기잡이를 하여 이제는 개인배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기를 잡는다고 한다. 그들은 설분에게도 똑같은 몫을 나눠주었다. 그러나 그가 바란것은 남편의 죽음으로 차례지는 생활의 유족함이 아니었다. 그의 뜻을 이어 그 뱃을 살려 자기 가슴에 기둥을 일궈세워 마음을 꽉 채우는것이였다. 남편의 뒤를 이어 새 조선사람의 구실을 하는것이였다.

이제는 다 낡아 버려진 배! 그러나 여기에는 남편의 숨결이 깃들어있었다.

설분은 배에 손을 가져갔다.

며칠째 배를 마스는데 하더니 뜯어낸 판자쪽들을 교정하며 다시 맞추느라 늘 배에 붙어사는 그를 두고 사람들은 남편생각에 미치지 않았는가 우려도 했었다.

그러나 그가 간난신고끝에 매생이를 만들고 노질을 배워냈을 때는 아연해졌다.

그 매생이에 건진 미역들을 처신고 들어와 모래불에 넣어 말리는것을 보게 되자 뒤소리가 돌았다.

마을에서 생각해주는데 웬 욕심이 그리도 많은가고...

그가 그물질까지 배워내어 고기잡이를 시작하자 뒤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제는 배를 꿰을 일도 없는데 녀자가 《바다사냥》까지 하며 극성스레 집안살림을 꾸진다고.

나중에는 녀자가 할 일, 안할 일도 가릴줄 모른다고 손가락질까지 했다.

《은희 어멈, 들어왔나?》

딸애를 업은 옆집할머니가 대문가에서 찾는 소리다.

설분이 바다에 나갈 때마다 군말없이 애를 말아들보아주는 좋은 할머니이다.

이런 때 이웃에라도 의지하게 된것이 얼마나 다

행한 일인가.

《에그, 또 울었구만.》

아이를 안겨주며 걱정스레 말하는 늙은이에게 설분은 애써 웃음을 지었다.

《할머니도 참, 울다니요.》

말끝도 맺기 전에 눈물이 품에 안은 딸애의 옷설에 먼저 떨어졌다.

열사람이 손가락질하면 병없이도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설분은 자기가 이러다가 남들의 오해로 남편의 뜻은 고사하고 체 몸 하나도 지켜내지 못할거라고 여겨졌다.

그렇다고 끝이말하면 비웃을것 같아 누구에게 선뜻 터놓을수도 없고.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풀어주는 귀인이 있다면 나에겐 어찌 오지 않노 하는 황당한 생각마저 들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준다는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3

바다쪽에서 눅눅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장마가 건힌지 오랜 도로에서는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먼지구름이 피어올랐다.

김정숙어머님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는 죄스런 생각에 움하여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길을 떠난 자신을 탓하며 승금은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훔쳤다.

《차를 타고오실걸 그랬습니다.》

그는 아파나기 시작한 다리를 힘겹게 옮기며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말쑼을 올렸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가 송구스런 마음에 진심으로 하는 말임을 아시면서도 앞으로 함께 일해나갈 일꾼이기에 질책조로 말씀하시지 않을수 없으시였다.

《날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전 그제 제일 질색이에요. 동무나 나나 다같이 장군님의 전사라고 생각하면 그런 격식은 자연히 없어질거라고봐요.》

《!...》

한발 앞서 들어가겠다는 승금을 말리시며 어머님께서 마을에 도착하시였을 때는 일여덟명의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모여 저마끔 일손을 잡고있었다.

물고기를 손질하는 녀인, 빨래를 비비는 녀인, 남새를 씻는 녀인, 하여튼 녀인들이 할수 있는 일감들이 우물터 주변에 빙 둘러싸여 어느 내인이 더 알뜰하고 깐진가 저저마다 겨름하는듯싶었다.

어머님께서는 물을 한바가지 청하시고나서 한버치나 되는 물고기를 손질하는 녀인곁에 앉아 일손을 잡으시였다.

승금은 나서서 한마디 하고싶었지만 어머님의

눈빛을 띄어보고는 저도 말없이 우물가에 자리잡았다.

《귀한분같은데 힘든 일에 손적시지 마시라요.》

어머님께서서는 웃음을 지으시었다.

그이의 밝은 미소에 우물가가 다 환해졌다.

《이런 일이라면 성수가 나서 하겠어요. 물고기가 그득한걸 보니 마음이 다 즐거워지는군요. 요즈음은 물고기가 잘 잡히는 모양이지요?》

《그렇지 않구요. 여긴 원래 집이 세채밖에 없어서 집삼마을이라고 불렀다는 소리도 있는데... 이제야 겨우 열한집으로라도 불었지요. 우리 동네가 몇채 안돼도 돈과 힘을 합치니 옛날 선주놈 부럽지 않게 배도 사고 물고기도 잡는게 사는 재미가 있다고.》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문득 짚이는데가 있으셨다.

어촌마을인민들의 생활을 걱정하시며 장군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해결방도에 대한 실마리가 떠오르셨다.

돈과 힘을 모아 배도 사고 물고기도 잡는다... 그러니 여기 외진 바다가마을에서도 집단주의협동화의 싹이 자라고있는셈이다.

기쁜 생각과 함께 한줄기 그림자가 스쳐지나셨다.

이런 집단주의형성발전에 개인리기주의는 금물이다. 그런데 다름아닌 이 마을에 제 리속을 차리는것때문에 락후분자로 락인된 녀인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김정숙어머님의 신중한 안색을 우러르던 승금이 누구에게랴없이 물었다.

《온 마을이 힘을 합쳐 잘사는데 어째서 저 하나의 리속을 차리는 일이 생길까요?》

나이지숙한 녀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마을 설분이보구 하는 소린게구만. 실은 그도 남편있고 불쌍한 처지라오. 그래 모두가 도와주느라구 마음쓰는데 아마 성차지 않는가봐요. 아일까지 옆집에 맡기고 고생을 사서 한다니깐.》

결에 있던 녀인이 말꼬리를 물었다.

《남들이 숯보는가 해서 그러지요 뭐. 살림도 그만하면야 괜찮지요. 그런데 뭐가 모자라 내인이 배를 타고 바다에까지 나간단 말이우?!》

《그 녀인이 배를 타고 바다에까지 나간단 말입니까?!》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저도 모르게 반문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의미깊은 눈빛을 띄우시고 재차 물으시었다.

《아주머닌 그 녀인이 왜 그런다고 생각됩니까?》

《아, 거야...》

《욕심이 많아 그러지요 뭐. 녀자할일, 남자할일도 가리지 않고 이악하게 굶어모은다오.》

말꼭지는 이쪽에서 뻗는데 대답은 저쪽에서 한다.

그 녀인을 단단히 신칙해야 한다면 동네녀인들이 제기했다기에 본인을 만나볼 생각조차 안했다던 승금의 말이 다소나마 짐작되였다.

한사람이라도 힘을 모아 새 조국건설을 해야 할 때 더구나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 고조기에 오른 이때 아직까지 방황하는 생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락후분자들이 있다는것은 안될 말이다.

어머님께서서는 언뜻 승금의쪽을 바라보시었다.

그의 심중한 낯색을 보아 사상투쟁회의의 격렬성을 미리 예감해보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인을 만나보지 않고 할수는 없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설분의 집으로 걸음을 옮기실 때에도 녀인들의 사설질은 끊길줄 몰랐다.

《어벌도 커요. 바다토배기들도 어찌지 못하는 데...》

《사내가 없으면 다 그렇게 영악스러워지는게지.》

《그래두 녀자가 〈바다사냥〉이 뭐요? 원참.》

그이께서는 어쩐지 서운한 생각이 갈마드셨다.

남편을 잃고 고기잡이에 나선 녀인, 단지 그 녀인이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나 자기 구복을 채우자고 그럴가? 동네에서 다들 도와준다는데도 그 녀인이 기어코 바다에 나가는데는 기필코 사연이 있을 듯싶었다. 그러자 그들이 그토록 몸쓸 녀자라고 타매하는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었다.

토배기도 아닌 그가 배일을 끝까지 해낸것을 보면 그는 근기있고 강인한 녀인이다. 무분별에서 일관성과 강의성은 나울수 없다.

마을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실지에 있어서 그는 리기적인 욕심보다도 녀성으로서 바다에 나갔다는 그것으로 하여 같은 녀성들의 불만을 자아내고있다.

한마디로 녀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것때문에...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시자 어머님께서서는 더욱 허전한 생각이 드셨다. 녀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 녀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

백두산에서 싸울 때도 역시 유격전은 녀자들이 하지 못할 투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녀대원들은 그 힘든 행군길에 뒤진적도 없었고 남대원들 못지 않게 육박전도 잘했으며 총도 잘 쏘아 왜놈들을 때려잡았다.

오히려 행군철참에는 풀뿌리를 캐며 작식을 말아하고 전투도 치르면서 지칠줄 모르고 싸웠다...

그런데 해방된 오늘에 녀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니.

물론 녀성들의 육체적조건이 남자들과 다른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사회에는 녀성적인 직업이 따로 있는것이다.

문제는 녀성은 어떤 일들은 절대로 할수 없으며 해서도 안된다는 낡은 인습이 새 조선의 녀성들의 사고속에 인박혀있는 그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들은 녀성일반, 자기 자신들에 대한 구속적인것을 오히려 레사롭게 여기고있다.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된 이래 아직까지 이런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것은 잘못이며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것은 더욱 위험하다....

설분의 집은 안팎이 알뜰하였다. 마당은 티검볼 하나 없이 깨끗하였고 마루나 문틀, 집앞에 놓인 독을 보아도 칸진 집주인의 성미가 느껴졌다.

한마디로 정돈된 생활이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런 녀인이 결코 무턱대고 살아갈 녀인이 아니라고 여겨지셨다.

《엄마가 왔나보다.》

부엌문이 열리며 반백의 녀인이 아장아장 걷는 어린애를 앞세우고 마루에 나왔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밝게 웃으시며 늙은이의 치마폭에 감겨도는 처녀애를 품에 안으시었다.

《애가 귀엽군요. 할머니가 설분동무의 딸을 잘 돌봐주고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정깊은 어조로 말씀하시며 금방 새참을 먹인 흔적이런듯 애의 입가장자리에 붙어있는 밥알을 떼주셨다.

《웬걸요, 이 집 내인을 찾아오신가본테 어서 안으로...》

어머님의 남다른 인품을 대뜸 알아본 할머니는 서둘러 방문을 열었다.

부엌에도 집안에도 설분은 없었으나 그의 체취가 부뚜막에도 솔뚜껑에도 노전바닥에도 알른알른 어려있었다.

마루에는 정말로 미역망태기가 처마를 거의 닿게 쌓여있는데 척 보기에도 정성을 기울여 마련한것임을 알수 있었다.

그옆에 놓인 보기 좋은 오지독에는 물고기들이 해살모양으로 차곡차곡 절귀쳐있었다.

손끝이 여문 일솜씨가 그대로 비껴있는듯싶었다.

망태기를 하나하나 여겨보던 승금은 맨 꼭대기를 더듬다가 손바닥만 한 공책에 풍다리연필이 끼여있는것을 발견했다.

《매일 뭔가 꼭꼭 써넣군 하는데 까막눈인 나야 알수 있더라고요. 지내보니 내인은 진국입니다.》

묻는듯 한 시선을 느낀 할머니가 앞질러 이르는 말이다. 호기심이 북받쳐 저도 모르게 찻장을 번졌다. 또박또박 씌여진 글씨에서 녀인의 성미가 엿보였다.

—미역 세망태기 수확.

—미역 다섯망태기 말리웠음.

...

—오늘 처음으로 바다에 나갔다.

물고기는 한마리도 잡지 못했다.

—과도가 사나와 죽을번 한것을 남정들이 탄 배가 구원해주었다.

마을사람들이 내인이 바다에 나가서 바다룡왕이성을 났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어제 처음으로 물고기를 잡았다. 애아버지가 칭찬해주는 꿈을 꾸었다.

...

—이제 물고기 두입만 더 마련하면 내 힘으로 마련한 어물과 돈을 나라에 바치게 된다.

애아버지가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나도 남편처럼 나라에 그 무엇인가 보탬을 주는 자기 몫을 가진 생을 살고싶다.

승금은 더 읽지 못했다.

한 녀인의 깨끗하고 순결한 님을 들여다보느라 눈물이 났다.

글줄이 보이지 않았다.

아, 이런 녀인을, 이런 소박한 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번 했던가?!

인간의 마음속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못한다.

그래서 옛날부터 칼자리는 아물어도 말자리는 아물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그 아물지 않을 상처를 그의 순결한 마음에 남길번 했다고 생각되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승금은 김정숙어머님앞에서 심심히 자기의 실책을 반성하였다.

사상투쟁회의를 철회하겠다는 결심도 함께 여쭙었다.

그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어머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었다.

《계획대로 회의는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4

여기저기서 녀인들이 회의장소로 모여들었다. 그 짧은 시간에도 그들의 입은 설줄은 모른다.

《이번에 아예 혼맹이가 쑥 빠지게 해줘야지.》

《회의지도를 어디서 왔다가?!》

《말두 마소. 아까 우물가에서...》

《췌! 저기...》

그 소리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회의장 맨 앞자리에 앉은 설분의 발치에 놓인 고기함지에서는 아직도 물고기들이 펄떡펄떡 뛰고있었다.

자기가 잡은 그것들이 지금 발밑에서 푸들쩍거리고있다.

마치 당치 않은 사람이 자기들을 이런 함지속에

가두어넣었다고 행푼이하듯, 설분은 자기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그는 지금 남편을 생각하고있었다.

그의 뜻을 잇는다는것이 오히려 그를 욕되게 한 것이다.

그의 넋을 지켜주고싶어 이러저러한 뒤소리에도 귀머거리시늉을 하고 잠꼭밥마저도 떨어내며 아득바득 저축했었다.

바다토패기도 아닌 몸으로 배를 수리하고 노질도 배워내고 그물질까지 해내며 겪은 고생은 또 얼마였던가.

설분은 저도 모르게 자기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매출하던 손이 마디지고 굳은살까지 배겨 거칠어진게 남의 손같이 느껴졌다.

언제인가는 남편의 뜻을 이루어줄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참고 또 참아오던 그 모든 힘겨운 일들이 죄다 되살아났다.

그를 위한다는것이 오히려 먹칠을 하고말았다.

드디어 사상투쟁회의가 시작되었다.

승급이 연탁앞으로 다가섰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의 손에는 설분의 공책이 쥐여져있었다.

《제가 설분동무의 물고기잡이일지를 읽겠습니다.》

가볍게 떨리는 목소리가 장내에 젖어들었다....

회의장은 물을 뿌린듯 조용해지였다.

언제 그랬냐싶게 왁작하니 떠들던 녀인들의 기상은 물거품처럼 잦아들고 누구 하나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수 있으랴....

그들은 설분을 너무나 모르고있었다.

단지 집살림이나 불구려고 아득바득하느줄 알았던 그에게 그런 큰 마음이 자리잡고있는줄 어이 알았으랴.

오히려 바다일은 녀자가 할일이 아니라고 배를 타는 그를 탓하며 우리 같은 녀자들은 안살림이나 착실히 하는것이 도리에 맞는다고 생각한 그들이였다.

그러다나니 그가 배를 가지고 고기잡이하는것이 제 리속을 차리는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한쪽에 조용히 앉아계시던 김정숙어머님께서 일어서시였다.

《설분동무는 녀자들이 배를 탈수 없다고 할 때 처음으로 손에 노를 잡은 녀성입니다. 그는 그것으로써 자기 운명의 노도 틀어쥐였으며 녀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자기 몫을 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녀인들을 한명 한명 둘러보

시였다.

수십세기동안 천대와 멸시의 대명사로 불리워오던 우리 녀성들이 참된 삶의 진미를 느낄 때는 왔다.

지지리 억눌려사는것이 단지 이 세상에 녀자로 태어난탓이겠거니 하며 구속과 속박을 웅당한것으로, 절대적인것으로 감수하며 살아온 우리 녀인들...

지나가는 한가닥 동정과 스쳐가는 관심의 눈길에도 감격스러워 눈물부터 흘리던 이들이다.

하지만 그 동정과 련민도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하였다.

수천년간 굳어진 녀성천시의 사상은 그들자신까지도 스스로 손발을 얹어매놓게 하였다.

망망한 바다우에 아무나 저어주는대로 이리저리 떠다니던 배, 이제는 그 배의 노를 튼튼히 쥐고 새 조국건설의 등대를 향해 힘차게 저어가야 한다.

새 조선의 주인으로 뗏뗏이 나서서 자기 몫을 남기려는 그 의지로 우리 녀성들모두가 자기 운명의 노대를 억세게 틀어쥐자!

그 노대를 처음으로 쥔 설분이 돋보이시였다.

녀인들은 녀인들대로 설분을 새삼스레 바라보았다.

녀성천시울타리를 처음으로 박차고 뛰쳐나온 그! 한마일에 살면서도 왜 그를 리해하지 못했던가?! 낱아진 관점에는 옥도 티로 보이는 법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참다운 존재를 깨닫게 해준 김정숙어머님의 영채도는 안광을 하염없이 우러렸다.

《배도 노를 량쪽에서 저으면 더 빨리 앞으로 전진할수 있어요.

부강한 새 조선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지금 여기에 모인 동무들이 남성들과 함께 그 한쪽노대를 맡아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생활에 만족하여 지낸다면 새 나라는 누가 일떠세우겠어요. 그 누가 세워주길 바라는건 이 나라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모두가 애국의 마음으로 새 조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해요.》

어머님의 곡진한 음성이 장내에 젖어들었다.

그이께서는 어깨를 떨며 흐느끼는 설분을 바라보셨다.

그 연약한 두손에 배와 자기 운명의 노대를 틀어쥐고도 뗏뗏이 머리를 쳐들지 못하던 그의 심정이 헤아려져 마음이 쓰리셨다.

멍이 든 가슴을 활 열어주고 생기를 부어주고싶으셨다.

《설분동무처럼 남편의 뜻을 따라 새 조선의 주인이 되겠다는 자각을 가지고 다문 미역 한오리라도 나라에 보탬을 주겠다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애국심입니다. 너와 나의 애국심, 그 자그마한 마음들이 합쳐져서 큰 힘이 되고 더 큰 힘이 되면서 새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김정숙은 마안산밀영에 와있던 4중대의 성원들가운데서 좌경분자들이 〈민생단〉 딱지를 함부로 붙일수 없었던 유일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좌경분자들은 그를 무력대고 〈민생단〉 혐의자들의 중대에 배속시키었다. 너도 조선사람이니 혐의가 있건없건 〈죄〉진 조선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한다는 심보였다고 본다.

김정숙은 그 불쾌한 처사를 오히려 흔연히 받아들이었다. 그는 죄없이 죄를 들 쓴 전우들과 생사운명을 같이할 결심이였다.

그는 〈민생단〉 혐의자들과 함께 한병실에서 숙식하면서도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외형상 남보다 특별히 뛰어난데가 없는 그 작달막한 몸매의 수수한 녀대원이 온 중대의 사랑을 받게 되었던 리유를 나는 그후의 생활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김정숙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 남을 위해 자기를 깎그리 바친 삶, 그것이 바로 김정숙이였고 그가 걸어온 인생이었다.》

조국도 그만큼 강해지는거예요. 녀성들 개개의 힘은 작아도 그 힘을 합치면 높은 산도 허물수 있고 깊은 골도 메울수 있답니다.

그러니 설분동무를 따라배워야지요?!》

《예!》

녀인들의 활기어린 목소리가 쩍 — 울렸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밝게 웃으시며 설분에게로 다가가시었다.

그를 한팔로 정히 껴안으시고 녀인들앞에 내세워주시었다.

《우리 설분동무가 얼마나 장해요. 남편의 뜻도 지키고 남녀평등권실현에서도 봉화를 들었거던요. 설분동무 우리 나라에서 노를 잡고 새 조국건설에 나선 첫 녀성선구자예요.》

어머님께서는 좌중을 둘러보시다가 처음 우물가에서 만났던 중년녀인에게 눈빛을 보내시었다. 설분의 혼맹이를 쑥 빼졌다면 녀인이기도 하다. 앞사람의 뒤에 일른 얼굴을 감추던 그는 어디서 담이 생겼는지 움쭉 일어섰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거린 우리였수다.》

그러자 말집이 흐물거린 녀인들이 저저마다 한 마디씩 한다.

《영금두 하지, 자기비판하는줄 알았더니 결들이기까지 하구...》

《그래, 혼맹이가 쑥 뽑혔소?》

《뽑혔다! 임자네들두 정신차렸겠지? 안 그래?!》하며 털썩 앉아버리자 장내에 삽시에 유쾌한 웃음이 퍼졌다.

어머님께서도 따라웃으시었다.

승금은 말없이 그이를 우려했다.

현미경같은 투시력으로 현상과 본질을 갈라보시고 사람들의 속마음을 밑바닥까지 들여다볼줄 아시는 명철한 그 눈빛...

단 하루동안에 승금은 어머님으로부터 한생의 좌우명으로 될 참다운 녀성관, 녀맹사업의 지침을 받아안았다.

김정숙어머님의 품에 얼굴을 묻은 설분은 참고참 아오던 눈물을 쏟고말았다.

말 한마디 나누신적 없건만 어쩌면 내 마음을 이리도 속속들이 알아보실가?! 자기 마음을 헤아려주고 풀어줄 귀인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그에게 있어서 어머님은 정말로 마음의 기둥이였고 생의 은인이시였으며 한생 바라고 따를 해빛이였다.

등대는 바로 앞에 있었다.

열하루후 다시 마을을 찾아오신 김정숙어머님께서 설분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조직되는 수산합작사의 첫 바다가양식장 책임자로 내세워주시었다....

이것은 나의 어머니의 이야기이다.

이 얘기를 옛말처럼 들으며 자란 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이듬지어주신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의 선장이 되었다.

지금은 이름난 녀성과학자, 녀성예술인, 녀성군인, 녀성체육인들이 수없이 많다.

공화국영웅, 로력영웅은 물론 박사, 인민배우, 작가, 비행기련대장, 인민체육인, 지배인, 관리위원장 등 이런 자랑스런 대오속에는 언제나 녀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어깨나란히 서있다.

이제는 레사로온 일로 되어버린 이런 훌륭한 녀성일군들의 활로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끝없는 로고를 바치신 우리의 김정숙어머님!

어머님은 영원히 우리 녀성대오의 맨 앞장에서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다.

애국의 노래, 건설의 노래를 더 힘차게 저으라고...

시 초

조국은 군자리를 잊지 않는다

여기선 아직도 전쟁이다

류 명 호

여기 군자리에 와보니
오늘도 여기선 전쟁이다
전화의 그날로부터 세월이 흘렀어도
여기선 아직도 전쟁이다

나는 강사의 해설이나
그 어떤 상상이 아니라
군자리 갯도굴속에서
전승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친 사람들
지금은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나니

천정에서 석수가 비물처럼 줄줄 쏟아지고
바닥에서 지하수가 차오르는
어둡컴컴한 갯도속
그 굴속에서 갖은 고생을 다 하며
전시생산을 보장한 사람들

더 많은 탄약과 무기를 전선에 보내기 위해
맨밥에 소금을 찍어먹으며
잠을 못 자 통통 부은 눈에
자꾸만 감기는 눈에 찌리꼬챙이를 쫓고
삼꾼으로 기대에 자기 몸을 비끄러맨채
일하고 또 일한 사람들

이 세상 그 어느 전쟁사에서도
그 어느 책이나 영화에서도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본적이 없거니
푸른 하늘 한점 없는 깊은 땅속
컴컴한 굴속에서 하루도 아닌 3년세월
폭격에 전기가 끊어지면 손으로 피대를 돌리며
주야장장 석수에 젖고 땀에 젖고 피에 젖으며
오로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불굴의 로동계급

아,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기관단총과 박격포와 수류탄과 탄알들을 만들어
싸우는 전선을 앞으로

오직 앞으로만 떠밀어준 사람들

하기에 우리 수령님과 우리 원수님
그들의 공로를 그리도 높이 평가해주시었어라
우리 당은 전쟁승리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군자리로동계급의 공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
라고

50년대 땅속의 병기창
누구나 여기에 와보라 그러면
그 무슨 고난과 시련에 대하여 말하던
지난날들이 부끄러우리
가장 엄혹한 조건에서도
조국의 승리만을 생각한
군자리로동계급에게 경의를 표하게 되리라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이 어떤 기적을 창조하는가를
승리에 대한
철석같은 신념이 어떤 위훈을 세우는가를
시대와 력사앞에 보여주는 곳
여기 군자리지하병기창

오, 준엄한 전화의 그날처럼
미제와 제국주의렬강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이 벌어지는 이 땅
선군시대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기 군자리에 와보아야 하리
그러면 억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고귀한 정신적재부를 받아안게 되리니

군자리로동계급의 투쟁위훈을
흐르는 세월속에 덮어둘수 없어
우리 당이 전화의 그 나날들을
그대로 펼쳐놓은 군자리지하갱도
여기선 오늘도 전쟁이다!
여기선 아직도 전쟁이다!

석수소리

최 주 원

여기 군자리 깊은 갯도에 들어서니
고요를 흔들며 깨치며 들려오네
전화의 날 포연천리를 헤쳐오신 수령님
뜨겁게 새겨가신 그 자욱 못 잊어

오늘도 떨어지는 석수소리 석수소리

불비 쏟아지는 최전선을 떠나
땅속의 병기공장을 찾으신 그이앞에

암벽처럼 막아선 군자리사람들
석수 떨어지는 이곳에 들어서면 안된다고
눈물에 젖어 아뢰던 그 목소리인가

박격포와 기관단총을 더 많이 보내달라는
전선용사들의 부탁을 받고 왔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설수 없다고
그리고 절절히 하시던 그날의 그 말씀
석수소리에 실려 메아리로 울리네

자신의 로고는 아랑곳없이
제힘으로 무기를 만든 로동계급이 대견해
한사람 또 한사람 마지막사람까지
기름물은 손과 손들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뜨거운 사랑과 믿음 안겨주신 아버지

아, 그이의 어깨와 옷자락을 적시며
차거운 석수는 사정없이 쏟아지고
얼굴마다엔 비오듯 눈물이 쏟아지고...
오열을 터뜨리며 황— 황— 암벽을 두드리던
그날의 모습들 군상처럼 어려오네

전승을 위해 바친 피어린 위훈은
60여년세월을 넘어 오늘도 빛나건만
그날의 석수를 막아드리지 못한
군자리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인가
석수조차 눈물인양 줄줄이 흘러내리네

그날의 시계앞에서

신 창 섭

여기 석수내리는 굴안에서
벗어있는 그날의 시계를 본다
전화의 날 시계조차 거꾸로 돌려
시간의 귀중함을 피로 새긴
군자리의 호소를 듣는다

《일본일초라도 랑비하지 말고
더 많은 박격포를 생산하자!》
《480분로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생산에 리용하자!》

통강냉이에 소금이 무슨 맛이랴만
식사시간마저 그리고 아까워
기대결을 순간도 떠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짜낸 귀중한 한초한초를
수령의 명령관철에 바쳤다

거꾸로 시계바늘을 돌려
흐르는 시간마저 되돌려세운 사람들
이렇게 얻어낸 귀중한 한초한초를
무기생산에 아낌없이 바쳤다

천길땅속 갯도에서
군자리사람들이 창조한 한초한초는
그대로 기관단총이 되었고
박격포가 되었다
수천수만발의 수류탄이 되었고
멸적의 총탄알이 되었다

준엄한 전쟁의 나날
땀과 피, 목숨마저 바쳐가며
그리고 아끼고 소중히 수놓아온
군자리의 그 시간은
이 나라의 전승을 앞당겨온
위대한 력사의 기적을 낳았거니

오, 군자리의 시간은 가지 않는다
귀중한 삶과 아름다운 청춘을
조국수호의 총대를 위해
아낌없이 바친 조선로동계급
불멸의 그 모습을 오늘도 새겨주며
군자리의 시간은 언제나
전화의 그날을 가리킨다!

수령님 오르신 수직사다리

류 명 호

석수에 절어
미끌거리는 사다리
너무 높고 위험해
올려다보기조차 섬찍한 수직사다리
이런 위험천만한 나무사다리에
우리 수령님께서 오르셨다니?!

로동자들이 오르는 사다리를
나라고 왜 오르지 못하겠는가 하시며
아찔하게 솟은 나무사다리에
우리 수령님 기꺼이 오르실 때
긴장감에 입술이 탈탈 타들던 사람들

금시 무너질듯이
밟을 때마다 찌그덕찌그덕
위태위태한 수직나무사다리에 오르시여
우리 수령님
무기생산을 지도하시고
지하갱도에서 작전도를 펴시고

전선을 지휘하시었거니

아, 우리 수령님
그날에 오르셨던 수직사다리는
전선과 후방을 련결한 다리
위대한 전승의 다리가 아닌가!

백양산의 20명용사들

최 주 원

750정 기관단총조립장
여기에 한쪽의 그림이 있다
어깨에 하나같이 기관단총을 둘러멘
백양산의 20명용사들은
지금도 내앞에서 설새없이 일하고있다

한손에 화불을 높이 든 사람
한대의 선반기앞에 허리굽힌 사람
피호르는 손으로 피대를 잡아 돌리는 사람
번쩍거리는 기관단총격발기를
다시 또다시 연마하는 사람들 모습
기관단총조립장은 말그대로 불의 결전장

오, 묻지 말라 묻지 말라
그밖에 보이는것 더는 없어도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의 것처럼 어려운 시기
여기 남아 피의 결사전 벌린 20명용사들
폭파하여 메워버린 갱입구는 어대인지
결사전을 준비한 수류탄상자는 어디 있는지

한자루 한자루의 총을 위해
끓으면서도 채 깎지 못한 부속들을 깎았고
잃어선 안될 조국 목숨보다 귀중하기에
기관단총조립으로 피땀을 흘리면서도
승리만을 안고 싸운 불굴의 용사들

수백차례 시험사격으로
화약연기 자욱한 굴안을 밝히기 위해
위험도 무릅쓰고 화불을 들고
목표판결에 서슴없이 나선 결사대원들
승리한 패일만을 굳게 믿었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전을 벌린 사람들

상상도 할수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열흘도 아닌 단 6일만에
700정이 아닌 750정의 기관단총을 만들어
수령님의 명령을 기어이 관철한 그들
그 어느 나라 병기공업력사에서도
이런 기적같은 위훈을 찾아볼수 있으랴

이들이 피땀을 바쳐 싸운 지하병기창을
어찌 후방이라고 말할수 있으랴
땅우에선 보이지 않는 굴속이지만
평양을 지켜선 결사용위 제1선참호
지금은 한쪽의 그림속에 남아있어도
수천수만의 심장들을 버려여주나니

수령님과 장군님추억속에 빛나
전승의 력사와 더불어 영생하는 삶
오, 백양산의 20명용사들은
자주적국방공업의 드날지 않는 성새를
어깨우에 떠받들고 오늘도 억척같이 서있다!

잊을수 없는 이야기 몇토막

류 명 호

그토록 뵈고싶던 수령님
시험사격장에 오시여
무기성능을 물으실 때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

너무 총을 많이 쏘
굴속에서 너무 시험사격을 많이 해
귀가 먼 사람들

끝없이 울리는 요란한 총성에
귀청이 터져 귀에서 피가 흘러도
시험사격을 중지하지 않은 사람들

아, 그래서
수령님말씀도 알아듣지 못한
이 사람들을
조국이며 용서해다오

×

오늘도 못 잊어
수령님 오셨던 그날을 못 잊어
군자리지하갱도를 찾은 할머니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네

그때 나는 너무 키가 작아
발밑에 상자같은걸 고이고 일했는데
글쎄 수령님께서 꿈같이 나에게로 오시였소
이름이랑 고향이랑 물으시며
어린 처녀가 너무 큰 신발을 신었다고
그리도 안색을 흐리시더니
꼭 맞는 신발을 보내주실줄이야

그때로부터 술한 세월이 흘렀지만
난 내내 지금껏
수령님께서 주신 그 신발을 신고 살았소
검은머리 백발토록
마음속에 그 신발만을 신고 살았소

×

조국해방전쟁시기
1211고지에서 싸웠다는

비전향장기수
그날의 로병은 말하네

여기 와보니
전화의 그날 피어린 싸움은
땅우에서만 하지 않았다고
여기 군자리지하병기창은
땅속의 1211고지였다고!

×

시작부터 끝까지
걸음걸음 감탄하며
군자리지하갱도를 참관한 외국인들
저마다 마음속 걱정을 터치네

여기 군자리지하병기창은
조선의 국보 세계적인 국보라고
미국대통령이 이곳을 보았다면
넋이 빠져 눈깔이 뒤집혀질것이라고

아, 50년대 군자리지하병기창은
오늘도 이 세상에 없는 무기
위력한 사상의 미싸일을 생산하고있어라

영원히 군자리정신을 안고살리

최 주 원

내 오늘
땅속의 지하갱도 우리의 병기공장
어두운 굴길을 걷고 또 걸으며
받아안은 충격이 너무도 커서
쉬이 떠날수 없구나 군자리 군자리

그 이름 조용히 불러보면
우리 수령님 전후의 어느날
군자리가 바라보이는 고개길에서
뜨겁게 하신 말씀 심장에 젖어온다

—이 고개를 넘을 때마다
군자리로동계급이 생각납니다
미국놈들을 타승하고 우리가 쏘아올린
전승의 축포 한송이한송이에는
그들의 피와 땀이 스며여있습니다!

아, 수령님 그토록 못 잊어하시며
전승의 환희와 함께 안고계신 추억이여
그 불멸의 추억속엔 간직되어있었다
군자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함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군자리정신이

백두에서 안고오신 총대신념을
자위적국방공업의 억센 기둥으로 세우신
수령님의 업적을 빛내주시려
수십여년전 군자리를 찾으신 우리 장군님
쏟아지는 석수에 옷자락 적시시며
수령님자옥 어린 갯도길을 다 걸으셨나니

그렇게 가시였으리
엄혹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국방공업은 민족의 생명선이라고 하시며
군자리에 새겨진 수령님의 자옥을 이어
우리 장군님 가고가신 눈보라 사나운 길들

불멸의 그 자옥우에
군자리에 타오른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 영웅적희생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이 내려쳐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병기창이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나 솟아올랐나니

군자리정신—
우리 원수님 어이하여
우리앞에 우리 후대들앞에

군자리를 내세워주셨는지
그 위대한 뜻 심장깊이
철심으로 박아세우며 생각하노라

우리 나라 군수공업의 역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력사
조선로동당의 력사라고 하시며
여기 군자리에
혁명사적지를 더잘 꾸리자고
거듭거듭 말씀하신 원수님

군자리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정신
그날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노래를 비롯한 문학예술작품들도
많이 창작하도록 하신 숭고한 그 뜻이여

지구상에 악의 왕국 미국이 없는
자주와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존엄높은
백두산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백두의 칼바람정신 군자리정신을
탄창에 총탄처럼 재워넣는다

오, 위대한 수령님들 빛내주신
1950년대 군자리정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내세워주신 이 정신을
선군혁명 천만리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우리 변함없이 간직하고 살리라
영원히 군자리정신을 안고살리라!

황금해의 해돋이

문 용 철

새 절경 새 기적들이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전설처럼 펼쳐지는
꿈같은 이 세월

종구나
갈매기 너울너울 내려젓는
황금해의 창파넘어
또다시 이 가슴을 흔드는
바다양어 기쁨의 노래

바람을 안은 돛폭처럼
부푼 이 마음
어엿싸—
황금해의 물결우에 시흥을 실어
한껏 걱정을 터치나니

울려오누나
설레이는 양어의 바다우에
환한 미소 엮으시며
우리 원수님
시처럼 노래처럼 외우시던 그 음성
—바다양어 좋을시구 어깨춤이 절로 난다

미끈절썩 잘나기두 대서양언어
우리네 황금해가 좋아 때를 지어 찾아왔나
수평선 저 너머 올라가는
《바다만풍가》의 노래소리
날바다의 고기때를 불러왔나

에헤요
우리의 황금해는
백두의 칼바람에 기적의 돛을 단

만복의 바다
원썬들의 전쟁소동도 압살책동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승리의 바다

이 땅우에 차넘치는 바다향기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뻐하는
인민들의 모습앞에
가슴뭉클 눈굽을 적시시던
아버이의 그 정이 파도치는 바다

풍어의 노래높은
온 바다를 그대로
인민들의 풍성한 식탁으로
펼쳐주고싶으신
아버이의 불같은 그 사랑이
이랑이랑 금빛노을로 물드는 바다

두손에 소중히 떠담아보는 물에도
천금의 무게가 실리는
보물의 바다
인민의 행복이 일렁이는
우리네 바다엔
물이 아닌 황금보화가 출렁이네

은물결 금물결 파도우에
마음도 두둥실
헤요 헤요 어절씨구 어깨춤도 절로
선경의 바다를 한품에 안으신
원수님의 환하신 그 미소
만리창파우에 빛발쳐흐르는
아, 우리네 황금해에 해가 솟는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의 지성도는 한마디로 말하여 형상세계의 이성적인 높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성적인것은 이성적인것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문학의 형상은 이성적인것과 감성적인것의 통일로 이루어진다. 물론 문학은 그자체의 미학적특성으로 하여 감성적인 요소를 매우 중요시한다. 그러나 감성적인 요소는 이성적인 요소의 주도적작용을 떠나서는 작품의 사상 예술성을 높이는데 아무런 기여도 할수 없다. 작품의 사상예술적질을 담보하는데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성적인것의 높이가 다른아닌 작품의 지성도이다.

지성도가 높다 낮다 하는것은 작품에 보통사람들이 알고있는것보다 얼마나 더 깊고 풍부한 지식이 담겨져있는가, 사람들이 경탄하고 높이 올려다볼만 한 고상한 미의 세계가 개척되었는가, 형상기교와 문화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한마디로 말하여 작품의 세계가 높은가 낮은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시인 김두일과 가사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조선인민군협주단 창작실 작가였던 시인 김두일(1939. 9—1996. 8)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파사로운 품속에서 삶을 꽃피운 재능있는 가사창작가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의 사랑을 받는 시인의 삶은 영원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품속에서 작가로서의 삶을 빛나게 장식한 김두일은 장군님의 추억 속에 영생하는 시인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잊지 못해하시며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김일성훈장을 비롯하여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도 안겨주시였으며 사후에는 애국렬사릉에 영생의 모습으로 내세워주시는 은정깊은 조치까지 취해주시였다.

김두일의 창작활동과 그의 대표적가사작품들을 보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품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재능의 싹을 움티우고 활짝 꽃피워 선군혁명문학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김두일은 창작활동 전기간 위대한 장군님의 뛰어난 예술적천품에 대하여 매일, 매 시각 심장으로 느끼고 탄복하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아래 우리 조국땅에서 창조되고있는 전변들을 많은 가사작품들에 훌륭히 형상하기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깡그리 다 바쳤다.

그의 많은 가사작품들이 혁명가국의 노래들과 서

정가요들로 형상되어 인민들의 사랑을 받아오고있지만 우리는 30여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있는 노래 한편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문제사상을 실력으로 받든 창작적 재능을 보려고 한다.

가사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1980)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일 많이 추억하시고 평가하신 작품의 하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사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가 새로 창작되어 나왔을 때에는 물론 그후 고난의 행군, 강행군나날에도 이 노래에 대한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노래는 우리 당의 투쟁력사를 담았는데 많은것을 사색하게 한다고 하시면서 가사는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와 같이 깊이있게 써야 한다고 하시였다.

가사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가사내용을 뜻이 깊게, 감정정서를 폭넓게 형상한 가사로서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있다.

가사는 나온 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그것은 노래의 가사가 뜻이 깊은 시어들로 이 땅우에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력사를 감동깊게 노래한 철학적이며 생활적인 명가사이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노래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를 들을 때에는 해방후 빈터
우에서 첫삽을 뜨시고 간고한 혁명투쟁속에서 온갖
심혈을 다 바쳐 인민의 락원을 세워 우리에게 넘겨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로고가 떠올라 눈
물이 나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고 교시하시였다.

불빛도 아름다운 락원의 밤이여
꽃물결 흘러가는 조국의 거리여
이 행복 주시려고 우리의 수령님
빈터우에 건국의 첫삽을 뜨셨네

포화에 불타버린 폐허우에서
우리는 맨손으로 시작하였네
수령님 우리들과 함께 계시며
천리마의 억센 나래 펼쳐주셨네

우리는 제힘으로 우리의 식대로
이 땅에 주체조국 높이 세웠네
오늘도 래일도 언제나 한마음
수령님과 당을 믿고 우리는 살리라

아 오직 한마음
수령님과 당을 믿고 우리는 살리라

가사는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빈터에서 조국건설을 시작하여 오늘과 같
은 사회주의지상락원을 건설한데 대하여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가사가 부강조국건설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감동깊은 시적형상으로 되
는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어떻게 빈터에서 조국건설을 시
작하여 오늘과 같은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웠는가
하는것을 감동깊이 보여준 뜻이 깊은 작품으로 되
기때문이다.

가사는 1절에서 불빛도 아름다운 락원의 밤, 꽃
물결 흘러가는 조국의 거리를 시적계기로 주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사회주의락원을 세우시기 위
해 해방후 빈터우에 건국의 첫삽을 뜨신 감동적인
화폭을 깊은 서정을 안고 돌이켜보고있다.

해방직후 애국의 열의로 불타는 우리 인민을 믿
으시고 일체가 모든것을 파괴해놓고간 빈터우에 새
조국건설의 첫삽을 힘있게 박으신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의 그 위대한 건국위업이 있어 오늘과 같은
부강조국이 일떠설수 있었고 우리 인민은 수령님
마련해주신 락원에서 존엄높고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었다.

가사에서는 이러한 정서적체험에 기초하여 2절에
서 전후 우리의 사회주의건설력사에 대해 감동깊

이 노래하고있다.

2절에서는 전쟁으로 하여 벽돌 한장 성한것 없었
던 폐허우에서 우리 인민에게 천리마의 나래를 활
작 펼쳐주시고 그들을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
설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여 온 세상
에 천리마조선의 위용을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노래하고있다.

3절에서는 이 땅에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일떠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업적에 대
해 긍지높이 노래하면서 승리와 영광만을 안겨주
신 수령님과 당의 령도를 끝까지 받들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격조높이 토
로하고있다.

가사가 부강조국건설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감동깊은 시적형상으로 되는것
은 다음으로 예술적측면에서 재치있는 언어구사와
높은 비약의 수법으로 근 반세기에 걸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력사를 함축하여 집약적으로
보여준 독특한 묘기에 있다.

우선 가사의 묘기는 제목에서부터 나타난다.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라는 가사제목은
깊은 의미를 담고 많은것을 생각해보게 하는 철학
적인 문구이다.

이 가사제목을 불러볼 때면 우리 조국의 어려웠
던 나날들이 저도 모르게 그려지며 눈곱이 찢릿이
젖어드는것이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결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풍부한 조건과 안온한 환경에서
진행되지 않았다. 그것은 걸음걸음 제국주의와의
치열한 대결전을 동반하는 피어린 싸움이였고 사대
주의와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잡사상들을 물리치
면서 모든것이 부족한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며 진
행된 간고한 투쟁이었다.

우리 수령님 그 모든 난관을 헤치시며 부강조국
을 건설하시느라 바치신 로고 또 얼마였던가.

그래서 우리는 《빈터》라는 말을 무심히 부를수
없으며 눈물속에 되새겨보곤 하는것이다.

바로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라는 말은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이 간고한 시련속에서 진행되
였음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며 깊은 여운을 남기는
사색적인 제목이라고 할수 있다.

가사의 묘기는 또한 락원으로 일떠선 오늘의 조
국의 모습을 보면서 어제날의 간고했던 투쟁력사를
회고하는 형식으로 씌여진데서 나타난다.

어제가 없이 오늘이 있을수 없고 고난을 극복한
어제날의 투쟁이 없이 번영하는 오늘의 조국이 있
을수 없다.

가사는 바로 아름답게 변모된 조국의 모습을 두
고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 고난을 헤치며 피와 땀을
바친 긍지높은 나날들을 감회깊이 추억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씌여있다.

바다와 전사

김 희 종

바다의 나이는 수억수만년
전사는 갓 스물

행군의 장구 다 걸머지기에
어깨가 좁아보이던 전사
무슨 힘으로 풍랑을 휘어잡고
바다를 타고왔은 영웅이 되었던가

바다를 처음 보는 산골내기
무거운 잠수모에 잠수신을 신고
물속을 걸어가던 첫날
바다는 세찬 물살로 조약돌처럼
전사의 몸 휘뿌려던것만

두려워하였던가 밀물을
주저하였던가 두려운 얼음바다물
바다가 한번 격파를 끈두세우면
열번 다시 솟구치는 전사

해초덤불 감겨드는 물밑에서

용접의 불꽃 날리며 철배를 무어갈 때
바다도 어찌지 못한 전사의 그 힘은
우리 당이 키워준 심장
우리 당이 키워준 의지였네

지금은 조용히 갑문에 갇히어
맑은 거울로 비치는 바다
병사령장을 단 전사의 심장속에
하나의 호수로 잠졌는가

눈부신 해빛아래
어린애마냥 어리광치는 바다
그 물에 발을 잠그고
전사는 빙긋이 웃기만 하네

전사의 나이는 갓 스물
그러나 바다는 제 나이마져 잊어버리고
백발의 흰 갈기를 전사앞에 숙였네

주체75(1986)년

《우리의 수령님/빈터우에 건국의 첫삽을 뜨셨네》, 《포화에 불타버린 페허우에서/우리는 맨손으로 시작하였네》, 《우리는 제힘으로 우리의 식대로/이 땅에 주체조국 높이 세웠네》는 바로 부강조국건설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뜻이 깊으면서도 형상적인 시구인것이다.

가사의 묘기는 또한 매 절들에서 일정한 혁명발전단계와 시대적특징을 집약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시어들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집대성하여 보여주고있는것이다.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건설위업을 《빈터우에 건국의 첫삽을 뜨셨네》로, 페허우에서 시작한 전후복구건설을 《맨손》, 천리마대고조속에 이룩된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수령님 펼쳐주신 《천리마의 역센 나래》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운 근본원천을 《제힘으로 우리의 식대로》로 표현한것은 수령님의 위대한 부강조국건설력사를 짧은 문구속에 집약하여 보여준 작가의 탐구적결실이다.

가사의 묘기는 또한 오랜 역사적기간을 시적으로 함축하고 시공간상 비약하면서도 정서적흐름이 내적으로 이어지게 하고있는것이다.

가사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로부터 전후복구건설시기, 사회주의건설시기와 오늘에 이르는 장구

한 역사적기간을 단 두련의 시구에 반영하면서도 그 역사적기간들이 한선으로 쭉 이어지게 하였다.

특히 《포화에 불타버린 페허우에서》의 표현속에 조국해방전쟁이라는 하나의 역사적단계를 비약시키면서도 내용적으로 포섭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세로 전후복구건설에서 조선사람의 본패를 보여준 역사적사실이 련상되게 하였다.

가사의 묘기는 또한 평이하고 소박한 시어들로 작품을 뜻이 깊으면서도 생활적으로 꾸민것이다.

작품에 쓰인 표현은 어느것 하나 어렵거나 까다로운것이 없으며 또 문맥적으로 순탄하게 이어지면서도 매 문구마다 철학적인 깊은 뜻을 담고있다.

노래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는 바로 이러한 높은 사상예술적우수성으로 하여 오늘도 부강조국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힘차게 울려 퍼지고있다.

우리 인민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빈터우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시고 선군으로 주체의 내 조국을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비약의 역센 폭풍을 일으킬 굳센 결의를 가다듬고있다.

김 정 미

장 시

인생의 시작에서 끝까지

정 동 찬

누구에게나
생은 귀중한것
그것을 순간에 바쳐
조국의 기억속에 남기도 하고
그것을 한생토록 끌고 대바르게 지켜
빛나기도 하더라

내 인생길에
그 시작과 끝을 두고
하늘땅차이같은 세월의 공간속을
그 무슨 힘과 정에 끌려 걸어왔더냐

기쁨과 시련의 해와 달들에
많고많은 고개고개를 넘어설 때
헤쳐온 험한 령의 골은 깊었고
올라선 행복의 마루는 높기도 했더라

1

나는 발머리 땅막집태생
엄마젓도 모르고 보채일적에
맥을 놓은 딸을 찾하던 외할아버지
뉘집 발가는 어미소에서 받아온
젓모금으로 살려낸 나의 운명

이 땅에 든든히 뿌리내리고
무성하게 아지를 쳐서
오늘은 네귀번듯한 네거리 살림집구역에
문패를 달고
조용히 창가림을 거둔다

창을 열면
마치도 굴리는 생각 트이라고
발밑에 프락처럼 펼쳐진 넓고 푸른 바다
머리우엔 한생 불같이 살라고
꺼질줄 모르는 야금기지의 붉은 노을
기폭처럼 비쳐오는 이밤

새집들이를 마친 이날에
복은 쌍으로 겹들어
저기 포근한 잠자리에 든 아이를 보아라

북방의 소년단대표로
수도에서 러객기로 돌아온 막내손녀
고운 입술에 웃음이 여물었다

《제철소녀》로
대회장에 알려진 어린것아!
너희들을 위해 저 큰거리에 우유차가 달리니
소젓 찰랑거리는 조롱박 차고 산골 십리길을
하루에도 몇번씩 다니셨다는 외할아버지
이 거리에 나서본다면
이처럼 좋은 세상 안겨주시려
우리 수령님 고생도 많으셨다고
눈굽을 찍었으리

너와 나
인생의 출발점은 하늘땅차이
시작부터 은혜로운 해님의 축복아래 망울을 터친
네 나이적에 나의 생은
불모의 땅에서 마르고있었다

그런 밤이면 밤마다
밤알로 불인 쪽거울속에 비추어지던 산골소년
먼 하늘에서 주는 그 무슨 복인줄 알고
그어내리는 별찌 꼬리를 잡자리처럼 붙잡고싶었
더라

그 쪽거울속의 아이
이밤에도 별찌를 타고
광장중심거리에서 사는 나를 찾아 내렸는가
휙칠한 창문 황홀경속에
내가 비집고 들어서는구나

이렇듯 행복의 열매 주렁지는 마루에 올라
추억속에 불러들이는
어제와 오늘의 상봉이여

배꼽나온줄도 모르고
쪽거울속에 빠금히 얼굴내미는 아이야
새집 금방석을 당겨놓고
고마움에 눈물짓는 내 모양
그대로 네 얼굴에 옮겨앉아

너도 온통 눈물범벅 되었구나

이제는 그만 눈굽을 닦고
하루밤새에도
인생추억의 먼길을 다너볼
창문려행의 좋은 밤을 맞이하였으니
어서 길을 떠나보자

홀려간 인생의 달력을 한장한장 번지듯
내 못 잊을 정든 고장들과 정든 사람들
만나고 헤졌던 그리운 모습들을 만나보자
내 삶에도 따뜻한 별이 들었던
해방열로 달아올랐던 어느 여름날에 가보자

내 어머니 밤새워 주름잡아준 베바지를 입고
저도 알지 못할 코노래 부르며 소학교로 가던 날
골개물 돌다리 일곱짝을 건너건너 도레미화...
그날은 것처럼 고생많은 어머니를 울린
그런 날이었구나

그날의 첫 수업은 음악시간
사랑하는 누나처럼 머리태를 곱게 땡아내린
나의 담임선생님을 처음 보는 날
웬일일가, 발품곰뚜껑 조용히 열더니
눈가에 하얀 저고리고름을 가져갔더랬지

아, 그날이
그날이 어떤 날이었더냐
온 나라 인민과 온 나라 산천이
자기 수령의 첫 노래를 받아안고
목메여 울고웃던 날

인생의 봄물결 광광 소리치며
이 강산 갈피갈피에 낀 설음 다 가서내고
수난많은 아리랑민족에게
봄빛을 안겨준 날이었더라

장백산 즐기줄기 피어린 자옥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옥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옥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수천년 긴긴 역사를 두고두고
이 나라 민족이 갈망한 노래
나의 인생시작에
봄씨앗을 심어주고

희망의 나래 달아준 노래
이 노래와 함께 마음껏 활개치며
발머리태생의 이 무지렁이 운명도
태양에로의 인생궤도를 달리기 시작했더라

2

나의 청춘기는
고향지경을 멀리 벗어난 생활속에서 홀려
날마다 그리움이 달던 시절
새해를 맞을 때면
나의 돌격대주소를 찾아 하얀 새무리같이
년하장들도 많이 날아들었더라

이밤
눈부신 창가에 홀려드는 재빛구름을 보아도
어느 개발지의 청년역 흠에 내릴적에
단비를 뿌려주던 구름송이들 생각나라

그 시절에는 부르는 곳도 많아
역전마다 꿈많은 젊은이들로 흥성거렸다
누구는 먼바다 《갈매기》호 선단으로
또 누구는 무진대의 탄전으로
작별과 상봉의 뜨거운 교차속에서
헤어지며 나는 약속과 맹세속에서
목소리도 굵어지고
어깨도 넓어졌더라

나의 생은
가는 곳 어디서나 고향갈아서
곧 뿌리내리고
해마다 깊어가는 년륜의 역센 줄기는 자라
무성한 아지를 퍼갔더라

애국이란 어떤것인지
도덕과 량심이란 어떤것인지
내 이름을 올린 돌격대의 중대들에서
허물없이 낯을 익힌 동지들속에서 알았고

그네들과 보폭을 나란히 하며
생사를 같이하는 법을 배웠더라
자신보다 결사량의 아픔을 먼저 느낄줄 아는
그런 인간만이 참된 삶을 누릴수 있음을
익혀갔더라

이밤의 창문려행길에
날더러 어디쯤 달리는가고 따라서듯
언뜻 날아오는 용점의 푸른 섬팡이어

나의 첫 로동일의 못 잇을 벗처럼 번쩍거리던
저 푸른 섬광우에
얼마나 큰 희망을 담았고
때로 얼마나 엄청난 소원도 실어보았더나

열렬히 바치며 사노라면
자기도 미처 모르는 복이 문득 차례지더라
건설장구내 여기저기 널려진 일감도 많아
용접선을 둘둘 감아메고 바빠 뿔적에
날더러 로동속에서 큰 근로청년이라고
수도의 대학교정으로 떠밀어주었지

후날 어머니가 대학으로 띄운 한장의 편지
나를 얼마나 울려주던지
너를 소학교에 보낼 때도 울었던 이 예미가
대학공부를 하는 아들을 가지게 되었으니
너의 입학통지서를 앞에 놓고
온 집안이 밤을 새더라는 이야기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소학교 입학하여 첫 수업에서 배운 노래속에
수령님력사를 알았던 나
대학 1학년시절에 먼발치에서나마
아버이수령님의 친근하신 음성을 들었더라

그날은 옥류교개통식날
붉은 테프를 꿰으신 수령님
버들숲 우거진 대안을 굽어보시며 하신 말씀
온 대학교정에 울려퍼졌더라
나라에 처음으로
작가후비를 키우는 대학을 내왔는데
풍치수려한 저기 편광정기슭에
그들의 재능 키워줄 명당자리를 주자고...

몇해후 졸업증을 품어안고
대동강변의 밤길을 걸으며 생각도 깊었더라
보람찬 로동과 꿈같은 배움의 나날이 흘렀어도
그저는 넘길수도 비울수도 없는
커다란 생활의 공백이
나의 삶에 빈구석으로 남아있음을 알았을 때
라는 가슴 얼마나 아프게 두드렸던가

내 피로써 찾은 이 땅의 행복을 지켜
참호와 전호벽에 부대껴보았던가
달아오른 총대를 끌어안고
사랑과 증오의 계선을 넘어보았던가
차례진 복을 누릴줄만 알고

지킬줄 모른다면
그 무슨 청춘기의 뻔뻔한 생이라

오, 피끓는 시절의 년륜을
은혜로운 해빛으로 감아준 조국이며
그대는 나의 입대탄원을 기꺼이 받아주었고
그대는 나의 입당청원도 뜨겁게 읽어주었거니

그대와 함께 하루도 떨어져본적 없는
벽찬 생활의 격류속에서
참된 생이란 어떤것인지
삶의 진가를 내 눈물겹게 겨안았더라
내 인생의 구간들마다에서
누가 곁들어주어 걸군 하던
생활의 견습시절은 이미 끝나기 시작했더라

아무리 곡절많은 행로에 있다 하더라도
그대가 준 또 하나의 생명이
내 심장속에서 후둑후둑 뛰고있음을 알고 살라
그대가 준 피의 숨결이
내 혈관속에서 굵이치며 뿜는 소리를 들으며 살라
그러면 나의 신념, 나의 의지 훨줄 모르는
곧고 대바른것이 되더라

그 울림이 있어
사람의 무게를 알게 되고
절해고도에 살아도 외로움 몰라라
다 크도록 어미등에 업혀 살지 않고
저만 알고 곁뒀에 사는 인생
값없는 그런 생을 저주하며
인간다운 체모를 갖추었더라

내 또한 이 청춘시절에 값높이 새겨안은것
오늘보다 래일에
더 많은 뒹을 넘길줄 아는
인간의 천품과 미덕을 알았더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내놓으신 삶의 독본들
내 심장속 서가에 차곡차곡 얹어놓고
탐구의 참신한 세계를 안아보며
내 삶의 언덕에 이정표로 세우고 행군했더라

생각하면
어느 사단 근위중대와
속도전돌격대 어느 중대의 보풀진 대렬명단
어느 번호속에
보통청년의 수표도 남아있으리니
그것은 청춘궤도의 디딤돌

보람찬 생의 흔적

우리 시대 청춘이라면
누구나 소중히 간직하고 사는 자서전이며
이 나라의 만짐을 나에게 달라고
폭풍쳐 일어서는 힘의 대오
청년강국의 대오속에 청년전위로 산다는것은
가장 행복한 청춘의 생이더라

3

누구나 말하더라
로년기에도 시대가 지향하는 일감들을
주런이 앞에 당겨놓고
간고분투의 행군을 이어가는 삶은
동지들과 함께 값있게 사는 인생이라고

그처럼 깨끗이 살고싶은 내 머리말에
생의 맑은 향기를 풍겨주는 한송이 꽃이런가
저기 요람속에서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더듬는 손녀
곱게 피는 살불이가 내곁에 있음은
얼마나 큰 행복이나

너의 웃음을 지켜
너의 앞날을 위해
너희들 가는 앞길 구만리기에
세찬 여울속에도 드놀지 않게
잘생기고 듬직한 디딤돌 골라서 놓아주고
밀려오는 불구름도 순간에 차버릴
철벽의 요새도 우리 세대에 다져야 하리

이제 새날과 함께
자고깨면
온 동네 온 거리가 너를 붙들고 놓지 않을거다
어디 네 머리를 쓸어보고싶어
어디 네 손목을 잡아보고싶어

전국의 소년단대표들
저마끔 원수님의 품으로 발돋움해갈 때
자꾸만 뒤로 멀어지는 키작은 너를 가까이 불러
원수님께서 자신의 곁에 세워주실 때
너와 함께 북방의 온 제철소로동계급이 안겼고
이 늙은이도 눈곱을 닦으며 따라섰더라

새날이여 어서 밝으려마
희망찬 미래의 불타는 해돋이를 향하여
백두의 만년장설속에 폭풍 눈자욱을 내신

우리의 김정은동지

그이 품에 안겨 너의 생은 시작되고
나의 생은 마무리를 모르고 또 줄달음치거니

날이 밝으면
또 하루 시작되는 푸름한 거리를 보아라
어느것 하나 너의것이 아닌것 없구나
산천에 갓 심은 나무모도 너의것
방금 터를 닦는 미래원도 너의것
이 조선의 위성궤도를 열어가는
우주도 너희들의것

하루에 한걸음이라도 미래를 위하여
수억만년을 두고 한모양 한본새로
이 기슭으로 끝없이 달려오는
저 파도처럼 산다는것
얼마나 행복한 생으로 이어지는것이나

위대한 태양의 축복속에
인생을 시작하는 애어린 손녀와 어깨나란히
같은 나이의 생기에 넘쳐
나도 척척 발걸음을 맞춰간다

오, 집도 나라도
통채로 차압당한채
깨어진 문짝을 부둥켜안고
한지에 나앉아 설분을 토하던 옛 수난자들
위대한 시대의 령마루에 올라서서
락관하노라
나는 패일의 승리와 영광만을 안고살
백두산대국의 공민이라고

이밤
추억의 창문려행은 끝나가는데
내 붓을 놓지 못하노라
해방년의 골개물소리에 적셨던 이 붓
전승의 눈물겨운 환호성도 담았던 이 붓
천리마시대에 청춘언제를 구르던
장엄한 폭포수에 휘갈긴 붓으로
내 한자한자 적고싶은 생의 노래여

사랑하는 나의 조국
백두산강국의 나라여
이 나라 민족만대의 번영을 담보하는 국토가 있고
이 나라 민족만대에 그 운명 빛내주는 태양있어
김일성민족의 후손들 누구나
꽃으로 피고 열매를 맺는
인생의 아름다운 화원속에 길이 살리라

래일을 안고 산 처녀



김 승 국

어느덧 80고개를 넘고보니 한생의 총화처럼 지나온 나날들이 삼삼히 떠오른다.

기나긴 인생을 돌이켜볼수록 시대의 숨결에 발을 맞추어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애써왔다는 위안도 있지만 한가지 일만은 몇십년전에 받은 체증이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가슴을 아프게 한다.

벌써 40년전.

사람들은 흔히 세월이 흐르면 모든것이 삭막해지고 잊혀진다고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때의 일만은 더욱 뚜렷이 새겨져 자책은 갈수록 커만지고 있다.

아, 꿈에도 보고싶은 소조원처녀.

정녕 만날수 없단 말인가...

금진강상류의 오붓한 곳에 자리잡은 우리 농장은 《불밝은 마을》, 《감나무동산》으로 온 나라에 소문이 자자하다.

집집마다 3~4톤이상되는 감을 따서 토방가득 쌓아놓고 기쁨에 휩싸일 때면 사람들의 입에서 불쑥 불쑥 튀어나오는 말이 《이것을 우리 소조원처녀가 보았으면...》, 《어디에 있는지 알기라도 하면 잘 익은 감을 알알이 골라 듬뿍 실어다주련만...》 하는 소리뿐이다. 그러면 마음이 다소나마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아릿한 심정이 그 말속에 담겨져 있다.

내 심정도 마을사람들과 다를바 없다. 아니, 몇 갑절 더하다.

정말이지 소조원처녀를 한번만이라도 볼수만 있다면 그의 발밑에 엎드려 《소조원동무, 날 용서해주오. 난 정말 청맹파니였소.》라고 빌고싶다.

어제밤 꿈속에서였다.

빨갭게 익은 감들로 휘늘어진 감나무우에 어제날처럼 생긋이 웃는 소조원이 서있길래 《소조원동무!》하고 소리치며 허둥지둥 달려가니 어느새 저 건너편 감나무우에서 탐스럽게 익은 감알들에 불을 비비고있지 않는가. 그래서 또 그리로 달려가니 이번에는 저쪽감나무에... 이렇게 온밤 소조원을 좇아다니다가 깨어났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밝게만 안겨오는 소조원의 모습이다.

×

우리 마을에서 식솔이 제일 단출한 어느 반원네 집 옷방에 소조원처녀가 자리잡은것은 1970년대 초 어느해 가을이었다.

이름은 정윤미, 나이는 22살,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왔다는데 중학교졸업생들과 다를바없는 단발머리 애티어린 소녀같았다.

생긋이 웃을 때면 곱게 패이군 하는 보조개가 첫눈에 한껏 정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귀염성스러운 보조개가 그의 애티를 더욱 강조해주는듯 하였다. 그런데 처녀의 크고 시원하게 생긴 눈만은 활짝 웃을 때에조차 서늘한 애수같은것을 풍기면서 그의 나이를 대중할수 없게 하였다. 애티와 숙성미를 함께 지닌 그 인상때문인지 처녀는 우리 마을에 온 날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물론 인상이 좋다고 해서 사랑의 감정이 저절로 생겨나는것은 아니다. 그때 작업반장이었던 나의 경우가 그랬다. 저렇게 어린것이 우리와 기나긴 밭고랑을 함께 타고 힘든 농사일을 어떻게 하랴 하는

동정 어린 마음으로 나는 그를 대하였다. 그를 볼 때마다 귀밑으로 가쁜히 휘어든 단발머리아래 드러난 상큼한 목이 가냘픈을 자아내면서 저 애송이한테서 뭘 배울게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내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

제땅은 제가 다 알고 농사는 책에서 배운 과학도 중요하지만 땀으로 터득한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오랜 농사꾼들의 굳은 관습때문이었다. 소조생활기간 온 작업반이 제 딸처럼 생각하고 잘 돌봐줄테니 흙을 주무르며 한생을 보낸 우리 농군들의 경험이나 배우고 가라는 격이었다.

나와 우리 연장자들의 그러한 태도에 소조원도 별로 타내는 눈치가 아니었다. 우리들앞에서 소조원은 조금도 아는 티를 내지 않았다. 현실에 나오니 더 많은것을 배우게 된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농사경험을 주의깊게 듣고 수첩에 꼭꼭 써두곤 하였다.

성품은 겸손하고 성격은 이악하였다.

농장원들과 똑같은 들일을 하면서도 힘든 내색을 짓지 않았다. 구질은 농사일에도 언제한번 꿀살을 찌프리지 않고 흔연히 손을 붙였고 일쏘씨 또한 걸싸고 알뜰했다. 부모님들의 농사일을 도우면서 잔뼈를 굳힌 농촌집치녀에 한가지였다.

좀 이상한것이 있다면 하루작업을 끝내면 농장발여기저기에서 한줌씩 모아둔 흙을 두꺼운 종이봉지에 따로따로 싸가지고 들어가곤 하는것이였다. 나는 그것을 소조원치녀가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째짤이 토양분석을 해보는것으로 생각하고 무심히 스쳐보냈다. 치녀가 소리없이 싸가지고 들어가곤 하는 그 종이봉지속의 흙이 그 땅에서 우리가 년년이 거둔 높은 소출이 어떤 대가로 이루어진것이였는가를 증명해주는 산증거물이 되리라는것을 우리는 그때 알수 없었다.

또 좀 다른것이 있다면 여담삼아 하는 그의 말속에 언제나 당정책이 있고 신문독보도 우리처럼 그저 줄줄 내리읽는것이 아니라 사전에 읽어보고 그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곤 하는것이였다.

우리 소조원은 손뽕금과 기타도 잘 타고 노래도 명창이였다.

그래서 자기가 손뽕금이나 기타를 타면서 노래를 배워주곤 하였는데 생각없이 부르던 노래도 생각을 담아 부를수 있도록 가사에 담겨진 뜻을 우리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었다.

그때문인지 소조원이 끼운 일판은 늘 들썩했고 일자리도 푹푹 나군 하여 날이 감에 따라 그를 찾는 소리가 높아졌다.

이처럼 소조원은 조용히 우리 마을에 찾아와 날마다 웃음꽃을 더해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있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조

원을 보지 못하는 날에는 뭔가 잊어버린것처럼 나도 마음이 허전했다.

그가 온지 반년남짓이 지난 때쯤의 일로 생각된다.

그를 맞이한 때가 작업반사무실앞 느리나무의 누런 잎새들이 우실우실 떨어져내리던 때였는데 그 일이 있던것은 이듬해 애벌김매기때였으니까. ...

첫날 김매기실적을 종합하여 리에 보고하고 늦게야 들어온 나에게 저녁상을 챙겨주며 안해가 하는 말이 소조원이 나하고 토론할게 있다면서 기다리다가 쯤전에 갔다는것이였다.

《그럼 식사전이였겠는데 붙들어두지, 왜?》 밥숟가락을 들다말고 하는 나의 지청구가 끝나기도 전에 《많이 드세요.》하는 인사말을 앞세우고 소조원이 열어놓은 문지방에 들어섰다.

그날 소조원이 토론하려는 문제인즉 작업휴식시간을 리용하여 밭머리에서 매일 분조별로 기술학습을 하는것이 어떤가 하는것이였다. 제일 바쁜 모내기철도 지난 뒤라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는 선뜻 응했다.

소조원의 강의내용을 지금도 잊을수가 없다.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수 있는 말로 차근차근 깨우쳐주던 그날의 강의가 나에게 준 충격이 그만큼 컸던것이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밥뿐만 아니라 고기와 알, 남새 등을 넉넉히 먹어야 하는것처럼 식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 작업반토지를 포전별로 분석해보니 젖을 다 빨리운 병약한 어머니와 같은 상태라고 말할수 있다. 젖을 제대로 먹지 못한 어린애가 건강할수 없는것처럼 식물도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 못하면 잘 자라지 못하고 충실한 열매도 맺지 못한다. 지금 우리 작업반 농사형편이 그리 낮은 축은 아니다. 그러나 당이 요구하는 웅대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있는것은 벼와 강병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작물들에 젖을 주는 어머니와도 같은 지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그 원인이 있다. 앞으로는 수확고가 더욱 낮아질것이다.

그것은 10여년동안 화학비료만 쳐왔기때문이다.

소조원치녀는 말을 계속했다.

《방금 토양분석표에서 보신것처럼 지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쉬운 말로 그사이 땅이 나쁜 땅으로 되버렸습니다.》

이처럼 점점 척박해지는 땅에서 더 높은 수확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시비량을 해마다 늘이려고 하며 또 늘이고있습니다. 그 결과 땅은 점점 더 나빠지고있습니다. 이제 몇년후면 비료를 암만 주어도 소용없게 될것입니다. 더는 한모금의 젖도 내지 못하는 할머니의 젖가슴처럼 아주 말라버리고 말것입니다.》

포전머리에 세워놓은 걸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는 그의 강의를 숨을 죽이고 앉아들던 작업반원들의 얼굴에 긴장한 빛이 어렸다.

(비료를 암만 주어도 쌀생산량이 떨어지게 되다니?)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분조와 작업반의 쌀생산량에 의하여 온 한해 애써 벌어들이는 로력공수에 따르는 쌀과 현금분배몫이 결정되는 농민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아이는 배고프다고 우는데 그에게 물려줄 것이 말라버린 어머니를 상상해보라!

그런데 우리들자신이 그 땅을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더욱 큰 문제가 있었다. 농업협동화시기 첫 분조장을 했고 그후 인차 작업반장이 되어 지금껏 한 개 작업반포전을 책임지고 다루어온 나로서는 그것이 머리우에 떨어진 철추와도 같은 것이었다.

나의 마음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작업반사무실앞의 느티나무아지에 높이 매단 야외고성기에서 그때 한창 인기를 끌던 어느 예술단의 남성4중창소리가 몇개의 논배미진너 포전학습장소에까지 울려왔다. 《이 많은 분배를 어디에 다 쓸가》하는 노래였다.

풍족한 우리 농민들의 생활을 그대로 담은 노래여서 흥을 돋구며 들군 하였다.

이 돈이면 집 한채와 누렁소 한마리는 사고도 남으련만 집은 사서 무엇하고 소는 사서 무엇하랴, 나라에서 지어준 고래등같은 문화주택에 프락토르가 있는데야.

하여 배나무집 령감로친이 의논끝에 현금보따리를 통채로 꾸겨들고 저금소를 찾아간다는 노래...

노래속에 그려지는 늙은내외의 모습이 우리 마을 사람들의 모습으로 안겨와서 일하면서도 흥얼흥얼 함께 부르곤 하는 노래...

그런데 그처럼 풍족한 삶을 담보해주던 땅이 이제 아무리 비료를 많이 쏟아부어도 해마다 소출이 줄어들게 되며 종당에는 아무것도 자라울수 없는 땅으로 아주 메달라버리다니?!

첫 발머리기술학습이 사람들에게 준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다시 논김을 매면서도 온통 그 이야기였다.

《소조원의 말이 사실일까? 이제부터 비료를 암만 줘도 소출이 그냥그냥 떨어진다는데?》

《소조원이 밥먹구 할일이 없어 그런 거짓말로 사람들의 속을 놀래우겠소?》

《그럼 어떡하우? 생산계획은 해마다 올라가는데...》

《아니, 협동조합을 무을 때까지만 해도 상등밭이라던 저 앞밭의 사흘갈이논이 왜 그렇게 갑자기 나빠졌다우?》

《갑자기가 뭐요?! 소조원의 말을 뭘루 들었소? 10여년동안 비료에만 매달렸기때문이라구 하지 않습데.》

《하긴, 우리가 저 분조밭에다 그새 물어준게 뭐가 있소?》

그전에야 길을 가다가 개똥 하나 봐두 옆구리에 늘 끼고다니는 망태기에 담아다 밭에 뿌려주곤 하잖았소.》

《소똥은 뭐 버렸소? 소달구지앞에다 가마니 짝으루 만든 중태기를 엮어가지구 다니면서 소가 때없이 싸버리는 똥을 퍼담아다 밭에 뿌리지 않았소.》

《웁수다. 헌데 지금은 처처에 소똥, 개똥이 널려있어두 그걸 담아다 밭에 내는 사람이 어디 있소? 너나할것없이 비물에 보기 흉하게 퍼진 그것들을 밟을가봐 피해다니면서두 밭에 내갈 생각들은 도무지 안한단 말이요.》

《하긴 이제 개똥망태기란 말조차 없어졌으니까.》

일을 끝낸 뒤 슬깃슬깃 기여드는 어둠을 밟으며 불빛이 환한 집에도들 향한 동쪽길에서도 그 론의는 그치지 않았다.

《집에서 톤당 로력공수를 계산해서 내가는 진거름도 그렇지요. 10여년전에야 소우리에 깔았다가 돼지한테 다시 밟히구 거기에 겨우내 모아두었던 닭똥, 토끼똥, 염소똥을 버무려가지고 폭 채운 다음에야 밭에 내가지 않았소. 헌데 지금은 어떻게들하우? 알속있는 똥꼬치는 다 제집 터밭에 내구 하루만 지나면 버짚이 곳곳이 살아있는걸 뽕뽕 굵어 모아가지고는 진거름이 얼마요 하고 분조밭에다 내가지들 않소? 솔직한 말루...》

《풀베기철에 만들어내는 풀거름도 마찬가지로 손가락보다 더 굵은 나무아지를 그대로 베다가 무쳐놓고는 제대로 밟지도 않고, 석회와 진거름물에 폭 채우지도 않고, 똑바로 덮지도 않고 한해 묵여가지고는 풀거름 얼마요 하고 이듬해 논밭에 내고있으니 땅이 어떻게 걸어지겠소.》

《웁소. 밭에 내간 풀거름더미에서 나무아지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게 다행이지.》

《아따, 이 형님은 왜 남의 소리하듯 흥이 나서 이리 비꼬는거요?》

《남을 비꼬는 소리라니? 나한테 하는 소리란 말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소. 지금까지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러게 복속에 복 모른다질 않소. 노래에 있는 것처럼 〈...오누나 흥남비료가 오누나 어랑어랑 어허야...〉 나라에서 비료랑 농기계랑 술술 노래부르듯 보내주니 그 은혜속에 파묻혀서 염통 끓는줄을 미처 몰랐지.》

《암, 옳은 소릴세. 나라에서 보내주는 비료가 내는 소출을 우리 땅으로 내는 소출이라고 어리석게들 생각했단 말일세.》

결론인즉 나라에서 비료랑 많이많이 보내줄수록 땅의 주인으로서 농사군의 근본인 흙을 기름지울 생각을 못했다는 지탄이었다.

다음날도 발머리기술학습은 계속되었다.

나는 이번에는 반대하려고 생각했었다. 또 어떤 《폭탄》같은 《강의》로 사람들의 마음을 들쭉서 놓을지 알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장부일인 중천금이라고 애어린 처녀한테 하루건너 두소리 하기가 멋적어 좀더 들어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날은 귀가 번쩍 트이는 강의를 했다.

《어제 저의 강의를 듣고 모두들 마음이 무거우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락심할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밝은 어조로 운을 떼놓고 소조원은 계속했다.

우리 마을은 그야말로 보물로 짝 찬 마을이다.

말하자면 앞뒤산과 밭, 강밑에 우리 작업반 논밭에 심게 될 곡식들이 몇대를 두고 다 먹지 못할 큼직한 《쌀창고》, 《부식물창고》들이 있다. 저 참나무골에 무진장한 석회석, 샘골바닥에 쪽 깔린 린회석, 새초벌에 묻힌 니탄들이다.

지금껏 우리는 이런 보물의 땅을 매일 밟고다니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다. 그리고는 비료, 비료 하면서 나라의 《젓》만 드립다 파먹으려 하였다. 한마디로 땅은 땅대로 살찌우면서도 수확고는 수확고대로 높일수 있는 으뜸가는 천연비료를 가득 깔고앉아있으면서도 값비싼 비료를 내느라 나라에 술한 부담을 주면서 땅은 땅대로 못쓰게 만들었다.

문제는 우리모두가 땅의 주인은 다름아닌 우리 농사군들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일떠서 《창고문》들을 활짝 열어제끼고 사회주의대가정의 쌀독에 채울 곡식을 품어자래워주는 땅이 배부르도록 듬뿍듬뿍 먹여주는데 있다. 그러면 만풍년은 년년이 찾아온다....

나는 그때에야 소조원이 낮에는 농장원들과 똑같이 일하고 밤에는 모든 작업반포전들을 필지별로 토양분석을 했을뿐아니라 휴식일, 명절날에는 제기밥을 싸들고 우리 농장의 산과 골짜기, 강바닥과 논밭밑속을 다 두루보았다는것을 알았다.

농장원들이 일떠섰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분조별로 포전을 옮겨가며 진행한 그의 강의에 처음에는 우리 작업반의 모든 분조원들이 감심하여 일떠섰고 점차 온 농장이 따라섰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농장원들모두가 질통을 걸머진 우

에 삽과 팽이와 맞들이를 들고 펼쳐나섰다. 천연 비료채취장과 논밭들에 밤마다 모닥불이 타오르고 혁명가요의 합창이 울리는 가운데 하루일을 마치고 깨끗이 정비해세웠던 기계화작업반 트랙터들도 그 소리에 이끌린듯 줄맞춰 달려가 우렁찬 동음을 합쳤다.

하어 소조원이 온 그 다음해에 우리 농장은 정보당 3톤이상의 소출을 더 내어 군적으로뿐아니라 도적으로도 통장훈을 불렀다.

그중에도 우리 작업반은 도적으로 최고수확고를 낸 모범작업반의 영예를 지니었다. 몇해동안 입은 비료독으로 기름기가 빠져버렸던 땅이 소조원처녀의 노력으로 혈기왕성한 젊은 어머니의 그것처럼 풍만해진것이었다.

×

어느덧 3년이라는 소조생활도 끝나갈무렵이 되어 오자 단발머리에티를 벗지 못했던 소조원도 나이찬 아들을 가진 집에서는 너나없이 속을 쓰는 숙성한 처녀로 자라났다.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나도 저 소조원처녀를 맞을만 한 녀석이 나에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두번만 하지 않았으니 장가보낼 자식을 둔 집들에서야 오죽 욕심을 냈겠는가.

그런데 나의 한생에 털어버릴수 없는 후회와 번민을 가져다준 그닥 즐겁지 못한 일들은 바로 그무렵에 런이어 벌어졌다. 별참게 시작되어 크게 번져진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 일들이었다.

아직 망녕들 나이도 아니였건만 그 고마운 소조원앞에 왜 그토록 매정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더라란 말인가?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오른다.

첫 《사건》은 것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의 나날 우리 마을 집집에 단 하루도 변침없이 밝은 불빛을 보내주었고 지금도 고르로운 동음으로 마을에 생의 활력을 더해주는 옛 물방아간자리의 소형발전소때문에 일어났다.

서둘러 말하건대 소형발전소건설을 둘러싸고 일어난 그 《사건》은 전기가 부족하다는 말도 모르던 그때 모든것이 풍족한 오늘을 누리기만 할것이 아니라 보다 행복한 래일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바치려는 그와 오늘 풍족하니 래일도 풍족하리라는 생각에 묻혀 오늘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려는 나의 보이지 않는 인생관의 차이때문에 불거진 심각한 사상투쟁이었다.

소조원처녀가 나를 찾아와 우리 마을 웃동네에 있는 옛 물방아간자리에 소형발전소를 건설하자고 하였을 때 나는 속으로 놀랐다. 나의 의향이냐 알

아보는줄로 알고 귀를 기울였는데 이미 구상한지 오래데다 군 중소형발전소건설지휘부와 련계밑에 벌써 설제도 완성되고 발전기를 비롯한 자재도 확보된 상태였던것이다.

나는 처녀의 해설을 듣다말고 《형—》하니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채 한동안 그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나라에서 하루 스물네시간 전기를 팡팡 보내주는 데 그건 무슨 허황한 소리냐는 뜻의 힐난이 다물려지지 않은 나의 입과 그의 얼굴을 견주어보는 나의 눈에 담겨져있었을것이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금진강상류에 있다보니 대처와 퍼그나 떨어진 우리 마을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온것은 전쟁이 끝난지 이태쯤 지난 뒤였다. 그전까지는 온 리가 전기를 모르고살았다. 산에 흔한 솔팽이를 따다가 팡솔불을 켜거나 백리나마 떨어진 해안가에 있는 장에서 곡물과 바꾸어온 물고기기름등을 켜다. 명절날같은 때 양초불을 켜는 집도 있었지만 그것은 간혹 볼수 있는 희귀한 사치였다.

벼나 조와 같은 걸곡을 쪼거나 강냉이를 붓는것도 한 동네에 두세집밖에 없는 물방아를 리용했고 강낭쌀을 타개는것과 같이 매일 먹는 음식같은 망돌이나 나무절구로 했다. 8.15해방을 얼마 앞두고 기여든 난쟁이 일본인부자 한놈이 술한 인부들을 끌어다 금진강상류에서부터 마을뒤에 있는 야산기슭까지 물길을 채고 집을 짓고 무슨 바퀴같은것을 실어들이고 하더니 물방아간이 생겨났다. 산기슭을 따내어 만든 길을 따라 근 시오리 흘러온 물이 떨어지면서 내는 힘을 리용하여 수차를 돌려 쌀을 찧는 이른바 기계식방아였다. 수차와 련결된 축에다 대여섯개의 커다란 방아공이를 매달아가지고 한말 이상되는 벼나 강냉이도 한꺼번에 찧어내는 힘장수기계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물방아간신세를 얼마 지지 못했다. 아이보다 배꼽이 크다는격으로 방아삯이 턱자없이 비쌌던것이다.

그래도 방아간은 거의 쉬임없이 돌아갔다. 수십리 떨어진 골치기에 있는 일본놈 목재소와 당시 조선인민혁명군 국내무장소조의 급격한 국내진출과 그의 지도밑에 우후죽순처럼 조직되는 반일무장대의 활동을 저지시켜보려고 부라부라 들이민 일본군 부대들에서 자동차로 련일 걸곡을 실어다 찧어가군 했던것이다. 노래기 회쳐먹을 정도로 린색한 그 난쟁이가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산간오지에 술한 돈을 뿌려가며 물방아간을 세운것은 바로 그런 횡재를 노린것이였다.

하지만 왜놈난쟁이의 횡재도 오래 가지 못했다.

8.15해방과 함께 난쟁이는 쫓겨가고 물방아간

은 마을의 소유로 된것이였다. 군인민위원회에서 파견되여온 새로운 주인들(군량정소 사람들이였다.)은 심보나쁜 왜놈이 다 마사버리고간 기계를 수리하고는 마을사람들의 쌀을 받아 거의 공짜로 찧어주었다. 리내농민들이 알알이 골라 나라에 바치는 현물세도 그 물방아가 다 찧었고 전쟁때에는 술한 전선원호미가 그 방아간을 거쳐 전선으로 실려갔다.

그러나 이번에도 물방아간의 번영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고 리소재지유축에 제분소가 일어서서 전기로 쌀을 찧고 가루를 붓고 국수까지 팡팡 놀려주기 시작하자 물방아간은 자연히 사람들과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아이들이 정찰병놀음을 하는 장소로 되어버리고말았다.

소조원이 새로 건설하려는 소형발전소란 15년세월 사람들의 관심밖으로 밀려나는 바람에 허물어진 사석언제와 군데군데 못쓰게 된 물길을 보수하고 물방아기계가 들어앉았던 자리에 소형발전기를 들어앉히고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전기를 생산한다는것이였다.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고 흘러가는 물을 가지고는 양어장을 만들어 물고기를 기르며 양어장에서 빠지는 물은 다시 남새밭으로 뽑아 밭관수를 한다나...

보조개가 곱게 패운 그 인상적인 얼굴에 흥분을 머금고 처녀는 호호하듯 절절한 어조로 나에게 말했다.

《30키로와트, 잘하면 50키로와트의 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30키로와트는 50키로와트든 그 전기는 찢혀려구?》

잘 익은 사과알처럼 밧그레 상기된 소조원의 얼굴에 의아쩍은 눈길을 견주고 나는 말했다.

《찢히다니요?!》

오히려 제편에서 리해할수 없다는듯 의문실린 울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하는 처녀의 반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 나라에서 보내주는 전기가 팡팡 오는데 왜 그런 좀스러운 일거리를 벌려놓겠는가 하는 거요? 그 전기가 낮전등만 한 빛이라도 낼가? 응, 소조원.》

처녀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말했다.

《지금은 전기가 모자라지 않지만... 나라에서 새로운 공장들을 얼마나 많이 짓고있나요? 우리 군만 봐도 창성사람들의 본을 받아 전에 없던 식료공장, 종이공장, 공예품공장... 해가지고 열개도 넘는 지방산업공장을 세우고들 있는데 그 공장들이 다 전기로 돌아가겠으니 그 전기만 해도 아마 몇천, 몇만키로와트는 될거예요.》

나도 지고싶지 않았다. 나는 큰소리로 웨쳤다.

《그래서 나라에서 온 나라의 전기화를 위하여 큰 발전소들을 도처에 세우고있질 않소?!》

《온 나라의 전기화는 큰 발전소건설만으로는 안 돼요. 앞으로는 어디가나 <전기! 전기!>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서는 늦어요. 때문에 당에서는 지방들에서 자체실정에 맞는 중소형발전소들을 많이 세워 앞으로 긴장해지게 될 전기문제를 풀것을 정책으로 내세우고있는거예요.》

처녀의 사리정연한 말에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렇다고 그의 론거가 납득된것은 결코 아니었다.

처녀는 제 손으로 그러가지고 온 도면을 내려다 보면서 조용한 어조로 계속했다.

《이 작은 전기도 앞으로 우리 마을과 나라에 크 나작으나 보탬이 될거예요. 그리구… 후대들앞에도 몇몇할수 있구요.》

《어쨌든…》하고 나는 그에게 약간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다.

《아마 우리 후대들이 무슨 장난감같은것을 만들어 놓았다고 웃지 않으면 다행일거요.》

그때 분명 내 입에서 꺼리낌없이 튀어나간 이 말을 나는 지금 뜨끈뜨끈 달아오르는 뺨을 느끼며 진심으로 후회한다. 그러나 지금은 허끝에 울리기조차 부끄러운 그 말을 그때는 분명히 하였다.

《섭섭합니다.》 처녀는 눈물이 가득어린 커다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한동안 입귀만 실룩거렸다. 나는 그때에야 우리 소조원의 눈이 그렇게 크고 눈물이 가랑가랑 고인 눈물주머니밑에 알릴듯말듯 자그마한 기미가 있는것을 처음 알아보았다. 그가 활짝 웃을 때도 애수같은것이 느껴지군 한것은 그 기미때문이었다.

금시 떨어지려는 눈물을 옹히 가다듬고 처녀는 말했다.

《난 그래도 반장동지가 제일먼저 지지해줄줄 알았는데… 정말 섭섭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초연히 가버렸다. 순간의 미련도 없는듯 총총한 걸음으로…

그런데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소조원처녀에게는 한번 입에 올렸던 일은 끝끝내 행동에 옮기는 이악한 기질이 있었다. 아니, 그 보다는 자기가 일단 마음먹고 달라붙은 일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마술같은 힘이랄까… 그런 휘동력이 있었다.

물론 그 휘동력이 일을 시작하기 앞서 처녀가 기울인 노력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확실한 성공을 기약하는 일로 납득된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가 하자고 호소하군 하는

일이 어떻게 하나 우리 인민들을 잘살게 하시려는 수령님과 우리 당의 고마운 정책에 그 뿌리를 두고있기때문이었다. 내가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였다.

반장인 내가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낮에는 할수 없었던 관계로 우리 작업반 젊은이들이 밤작업형식으로 펼쳐나 시작한 발전소건설작업에 구경삼아 나갔던 몇몇 농장원들이 합세하더니 마을아이들까지 덩달아서 돌을 모아온다, 모래를 나른다 하며 야단법석을 피우는 가운데 온 작업반적인 중요사업으로 번져졌다.

농사일에는 지장을 주지 않기때문에 따라다니며 췌방은 놓지 않았지만 굳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벌려놓은 그들을 보는 나의 심사가 편안할수는 없었다.

(전기 몇십키로와트를 얻자고?!…)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으면서 나의 눈앞에 하얀 대낮에 켜진 낮전등이 어룡거렸다. 그렇다고 힘든줄 모르고 랑만에 겨워 일하는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것과도 같이 심술바르지 않은 소리를 할수는 없었다. 그저 못 보는척 했다.

그러던 어느날… 더는 못 본척 할수 없는 일이 우리 집에서 터졌다.

가을걸이를 앞둔 작업반포전들을 시오리끝에 있는 먼밭까지 다 돌아보고 흐뭇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안해가 없었다. 어디 나가면서 들어오면 먹으라고 챙겨놓은 밥상도 없거니와 부뚜막이 싸늘했다. 이 로친네가 혹시?... 하는 생각을 튼는데 온몸이 물주머니가 된 그가 털썩거리며 집에 들어섰다.

《밤중에 어딜 돌아다니는거요?》

나는 (혹시?!…) 하는 나의 생각이 제발 틀렸으면 하는 심정으로 통명스레 물었다. 그런데 나보다 굵은 더 통명스러운 안해의 대답이 그만 화를 터치게 만들었다.

《가긴 어딜 가겠소, 온 마을이 다 가는 발전소 건설장에 갔지.》

《뭘요? 이젠 당신까지 소조원의 그 장단에 춤추는거요?》

《소조원의 장단이 어째서요?》

우리 집사람이 소조원처녀를 꽤나 좋아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있었다. 하여 맛나는 음식이 생기면 그의 합숙부터 찾거나 그를 집에 데려다 꼭꼭 대접하군 한다는것을 좋게 생각하고있었지만 그새 이렇게까지 유식해진줄은 미처 몰랐었다.

《그건 그렇고…》 하고 나는 발전소문제를 꺼들어야 승산이 없다는 생각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가더라도 밤이나 챙겨놓고 가얏게 아니요?》

그런데 로친네(그렇다. 이런 뎨 정말 《로친네》라고 할수밖에 없다.)의 대답이 더욱 기가 막혔다.

《령감이 더러 굵어봐야 정신을 차리겠기에 우정안 차렸수다.》

《필?!》

《소조원이 내미는 일을 이제 더이상 외면했다간 매일 굵을줄 아시우.》

《허허… 놀고있다!》

하지만 《놀고있다》며 웃어넘긴 그 건설장에 나 도 종내는 발을 들여놓고야말았다.

이제 어찌나 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허물어졌던 물동도 다시 쌓고 물길도 보수되고 하더니 드디어 온 농장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었던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지막에라도 손발을 적신것이 다행이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고난의 행군시기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로 온 리가 작업반별로 시간을 쪼개가며 보는 불을 무슨 체면에 났겠는가. 고난의 행군때에만 덕을 본게 아니였다. 나라의 전기가 짹짹 올 때에도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몇십여키로와트의 전기가 결코 희미한 낮전등이 아니였다. 리소재지에 도시처럼 가로등도 그 전기로 불로 켜고 수양버들 늘어진 휴식장 주변도 그 전기로 대낮처럼 밝혀놓고 온 동네사람들이 모여 행복의 밤을 노래했다.

기어코 반대하던 일이 이토록 은을 내니 조금 게면쩍기도 했지만 마지막에나마 발을 들여놓았다는 위안이 그것을 덜어주었다.

그러나 그 위안은 약파였다.

헤여질 때까지 화해하지 못한 일은 이듬해 봄, 소조원처녀가 마을을 영영 떠나기 며칠전에 벌어졌다.

×

그날도 저녁 늦어서였다.

씨불임을 앞둔 령상모판들을 돌아보다가 집에 들어온 내앞에 안해가 소조원이 가져왔다면서 감나무 모를 내놓는것이였다.

《이건 뭐요?》

《심으라는거지요.》

《뭐, 여기가 안변인가 하는게지? 집주변에 이렇게 키 큰 과일나무를 심으면 그들이 저서 터밭농사는 어떻게 해.》

《소조원처녀가 힘들게 구해가지고와서 집집마다 나누어주었다고 하면서 모두들 심었다고 하던데… 우리만 성의를 무시하면 되겠나요.》

《성의를 무슨 성의?! 아무렴, 농사꾼이 터밭덕을 보지 감나무덕을 볼가?》

《그럼… 이 나무모는?》

《유치원이나 탁아소에나 갖다주오.》

소조원의 말이라면 제 남편 말보다 더 잘 듣군 하던 그 사람도 터밭에 그들이 지는것만은 싫었던지 내 말대로 나무모 심으라는 성화를 더이상 먹이지 않았다.

다음날 소조원이 나를 찾아왔다.

《반장동진 왜 감나무를 심지 않나요?》

《여기는 감이 되지 않소.》

《여기서 안변까지 200여리안팠인데 왜 감이 되지 않겠어요.》

《감이 된다고 합시다. 그 감나무때문에 몇년 후에 우리 동네가 아우성을 치리라는걸 생각해 봤소?》

《아우성을 치다니요?》

《동무는 보지 못하겠지만 나는 보오. 농장원들과 터밭은 뻔수 없는 인연을 맺고있단 말이요. 그 감나무들이 자라 터밭에 그늘을 던져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소?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맺은 터밭과의 인연을 다 끊어버리게 한다고들 할거란 말이요. 그것은 소조원에 대한 원망소리로 되지 않겠소? 소조원동무가 이것을 명심하기 바라오.》

소조원의 눈빛은 심각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 짧았어요.》하는 그런 자책의 눈빛이 아니였다. 지금껏 따뜻이 돌봐준 더없이 고마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호히 맞서려는 눈빛이였다. 눈시울밑의 작은 기미가 류달리 커보이면서 처녀의 그러한 내심을 더욱 강조해주는듯싶었다.

처녀는 담담하게 그러나 마디마디 힘주어 말했다.

《반장동지, 집집마다 다섯그루이상의 과일나무를 심으라는것은 당정책이예요. 수령님께서 내놓으시는 당정책은 우리를 더 잘살게 하려는 구상으로 짝 차있어요. 보다 아름다운 조국의 래일이 다 담겨져있단 말이에요. 당정책관철에 진심을 바치지 않으면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래일이 그만큼 밝지 못하게 되고 그 래일을 맞이하는 마음도 뻣뻣치 못하게 될거예요. 전 반장동지가 이것을 꼭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남기고 처녀는 돌아섰다. 그리고는 소형 발전소건설문제에 마주섰다가 헤여질 때처럼 총총 걸음을 놓았다.

소조원처녀와 그렇듯 쌀쌀하게 헤여진 후에도 나는 정당한 주장이 면박당한것 같이 생각되면서 좀처럼 속이 풀리지 않았다. 하여 (키낮은 앵두나무 같은것을 몇그루 심으면 되지 지붕우에까지 자라오를 감나무를 심자고 할진 뭐람?) 하고 불부은 소리로 귀먹은 욕을 해대며 관리위원회로 향했다. 일군

들앞에 내가 과연 옳으냐, 그르냐 하고 시비를 가트리라고 속으로 버르면서...

허나 그 말을 꺼내지 못했다.

관리위원장의 말인즉 매일 아침 소조원이 떠나간다는 것이었다.

(아니, 이렇게 갑자기 간단 말인가?)

그 순간에는 그와의 사이에 있었던 불쾌한 일은 뒤전에 밀려나고 오직 좋은 인상만 떠올랐다. 이름 없던 우리 작업반을 리적으로뿐 아니라 군적으로도 제일 앞선 작업반으로 만드느라 우리 소조원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바쳐왔던가. 그런데 이렇게 문득 가다니?!

후회는 언제나 행동뒤끝에 오는 법이다.

한치앞이라도 내다보았더라면 오늘 소조원의 말을 곱상하게 받아들이는척 하고 그렇게 아픈 말을 하지 않았을걸... 그리고 돌아앉아서 감나무를 심지 않으면 될걸 왜 맞섰단 말인가. 우리 마을을 영영 떠나갈 처녀한테...

미안한 생각이 서운한 감정과 함께 갈마들면서 소조원에게로 달려가 내 말을 없었던것으로 생각하라고 말하고싶었지만 막상 그렇게 달려갈 용기는 없었다.

집에 들어오니 안해도 매일 그가 떠나간다는 것을 벌써 알고있었다. 하긴 소조원이 하는 일에 대하여 일등가는 지지자였던 그가 아직 모를수는 없는 것이었다. 《소조원이 정작 간다니 온 마을이 텅 비는것처럼 서운하구만.》하고 혼자말처럼 탄식하는 나를 찰 흘려보더니 치마자락으로 눈금을 닦는 것이었다.

안해는 제 손으로 닭을 잡고 한판주리 잘되게 모아두었던 닭알에 옷감을 받쳐들고 소조원을 찾아갔다. 소조원이 든 하숙집은 우리 집에서 얼마 멀지 않았다. 한손에는 두발 묶은 닭을 잡고 다른 한손에는 옷감을 엮은 닭알판주리를 껴안고 집을 나서면서 안해는 나를 힐끗 돌아보았다. 《이걸 들고 같이 안 가려우?》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안해의 그 눈을 외면하였다. 소조원과 낮에 있었던 일이 다시 생각히우면서 따라일어설 의기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밤, 소조원이 든 하숙집에서는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후에 안 일이지만 떠나가는 소조원을 기쁘게 해준다며 온 마을사람들이 찾아와 절로 이루어진 송별모임이 마지막에는 눈물의 바다가 되었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 나는 떠나가는 소조원의 손목을 아무말없이 오래도록 꼭 잡아주었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동구밖까지 따라서며 뜨겁게 바래주었지만 나는 작업반사무실앞 마당끝에 뿌리내린듯 그

냥 서서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기만 하였다.

꽃수레에 태워보내야 할 소조원과 나는 이렇게 헤어졌다.

휘연히 굽어넘어간 언덕길로 일행이 사라질 때까지 서있다가 절로 젖어드는 눈금을 찍으며 돌아서려고 하는 때에 손에다 감나무모를 든 세포비서가 불쑥 나타났다.

《오늘 아침 소조원이 나를 찾아와 이 감나무모 10그루와 편지를 주면서 자기가 떠난 다음 반장동무에게 전해달라고 했소.》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펼쳐들었다.

《반장동지, 저를 친동생, 친딸처럼 극진히 보살펴준 반장동지와 아주머니 그리고 마을사람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어요.

어제 낮에는 제가 너무했던것 같아요. 아버지같은분에게 도덕없이 굴었다면 용서해주세요.

떠나가면서 부탁합니다. 감나무를 꼭 심으세요.

우리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만복이 쏟아진다는것을 부디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편지는 길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편지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땄수가 없었다.

소중한 사람들이 남긴 마지막부락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들어주는 미덕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것 같다.

편지를 안신후머리에 깊숙이 건사한 다음 감나무모를 들고 집으로 돌아간 나는 터발머리를 따라가며 10개의 구멍이를 깊숙이 파고 그 나무를 다 심었다. 퇴비도 듬뿍 주고 물도 착실히 주고 발로 톱톱 다지는것으로 있는것 정성을 기울였음은 물론이다.

뿌리밑에 고인 나의 그 정성을 알아서인지(그보다는 소조원의 그 마음이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감나무는 빨리도 자랐고 꽃도 남들보다 한해 먼저 피었으며 처음부터 충실한 열매로 오가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냈다. 우리 집 감나무만이 아니었다.

소조원이 심어놓고간 감나무들은 지금 《아들》, 《손자》, 《중손자》들을 거느린 《할머니》로 되었지만 해마다 제일 크고 맛있는 감을 집집에 가져다준다.

돌이켜보면 이제 선고개를 훨씬 넘어선 우리만이랑 마을조무래기들이 정찰병놀음을 놀던 물방아간자리에 소조원의 발기로 건설해놓은 소형발전소와 그가 마지막사업으로 가져다 심어준 감나무덕을 고난의 행군시기 온 마을이 톡톡히 보았다.

나날이 긴장되는 전기사정으로 다른 마을들에서

며칠씩 전기불을 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 마을만은 비록 적은 전기지만 온 리가 돌러가며 밝은 불빛 아래 텔레비존까지 켜놓고 살았다. 또 마당에 키높이 자란 감나무의 아지가 휘게 달리곤 하는 감이 흰쌀이 되고 기름이 되고 고기가 되고 떡가루가 되어 집집의 식탁을 기름지게 해주었다. 오죽하면 동네 늙은이들이 《감나무가 우리 동네를 〈부자동네〉로 만들어주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겠는가.

한마디로 마음을 매일에 두고산 소조원처녀의 말대로 우리를 보다 잘살게 하려고 애쓰는 당의 구상을 잘 받아들여온 덕에 우리 마을사람들은 고난의 행군을 이겨냈다.

밤마다 방안을 환하게 비쳐주는 전기불을 보면서 그리고 토방가득 따서 무쳐놓은 감을 두고 흐뭇이 웃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처녀가 마지막으로 남기고간 그 말을 생각하곤 하였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시는 당정책은 우리를 더 잘 살게 하려는 구상으로 꼭 차있어요.》

《당정책관철에 진심을 바치지 않으면 자기에 게로 다가오는 매일이 그만큼 밝지 못하게 되고 그 매일을 맞이하는 마음도 뻣뻣치 못하게 될거예요.》

마디마디 가슴을 흔드는 그 음성이 귀전에 젖어 올 때면 매번 이렇게 자신을 탓하곤 한다.

그때 나를 비롯하여 당정책을 말단에서 집행하는 우리 초급일꾼들이 그 처녀처럼 당의 구상을 더 잘 받아들였다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봄날에는 꽃속에 묻히고 가을에는 열매속에 파묻혀 불밝은 창가마다에서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날수록 떠나간 후 소식조차 알수 없는 소조원이 못 견디게 그리워지곤 한다.

이렇게 말하면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지금 그 소조원처녀(이제는 그도 60살을 전후한 할머니가 되었을것이지만)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는지 우리들 중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다.

나는 잊지 못할 고마운 소조원이 어디선가 나의 이 미숙한 글을 읽어볼수도 있다는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그에게 하고싶은 이야기로 이 글을 마치려고 한다.

《소조원동무! 날 용서해주오.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만복이 쏟아진다고 한 동무의 말이 정말 옳았소. 세월은 흘렀어도 소조원의 삶은 매일을 안고살면 오늘이 빛난다는 진리를 새겨주고있소.

그 참 뜻을 나만이 아닌 후대들도 뼈에 새기고 살도록 내 여생을 다 바치려고 하오.

소조원동무, 지금 어디 있소? 소식만 알면 천리건 만리건 내 걸어서라도 꼭 찾아가겠소. 한달이 걸려도 좋소. 난 아직 정정하오. 소조원을 찾는 내 마음의 소원이 뭔지 아오? 소조원을 기어이 만나 그저 사죄나 하고 융숭한 대접이나 하자는게 결코 아니요.

우리 원수님께서 온 나라 인민들이 김정일애국주의로 가슴 불태우며 산림복구전투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뜨겁게 호소하시질 않으셨소. 90환갑을 노래하는 때에 우리가 늙었다고 물러앉아 구경이나 할 수 없지요.

우리 손을 맞잡고 금은보화 가득한 전설의 나라를 눈이 부시도록 빛내이는 위업에 적은 힘이나마 바쳐갑시다. 그 시절처럼 눈물어린 아픈 말로 일깨워주기도 하면서...

꼭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소.

언제나 매일을 안고살 사람으로부터.》

가 사

조선옷 좋을시구

김 형 찬

민속명절 좋은 날에 옷차림도 멋이로세
남녀로소 펼쳐입은 조선옷 일색이라
보기에든 좋아 입기도 좋아
우리 민속전통 그 자랑이 비낀
조선옷 좋을시구

색동옷을 차려입은 아이들도 꽃이로세
처녀총각 그 차림은 선녀와 선남인듯
하나같이 고와 그 모습 고와

우리 민속전통 그 자랑이 비낀
조선옷 좋을시구

금수강산 내 나라가 환해지는 차림일세
명주비단 밝은 빛갈 우아한 옷이로세
은혜로운 품에 꽃피어나는
우리 민속전통 그 자랑이 비낀
조선옷 좋을시구

아름다운 세월을 삽니다

— 한 비전향장기수 안해의 노래 —

박 철

수십년간 리별이
이 가슴 에인 아픔이어서
남편을 다시 만나
한지붕아래 함께 산 15년세월이
이리도 목메이는 눈물입니까

내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신혼의 그 행복 남겨놓고
남편이 통일의 길에 나설 때
나는 눈곱젖어 생각했습니다
백년가약 우리의 매일을

긴긴세월 남편이 없는 집안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자식이 알세라 삼키던 눈물
따뜻한 아래목에 누워도
온밤 아프게 스며들던 그 랭기

아닙니다! 알고계셨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시집의 어른들도
씻어주지 못한 그 괴로움
가져주리라 천만밤을 지새우시는
은혜로운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우리 장군님
력사의 9월 2일을 마련하시고
죽음의 세상, 암흑의 땅에서
그리운 남편을 안아

꿈같이 내결에 세워주시었으니

—옥순이—
아, 신혼생활 그때처럼
정을 터쳐 내 이름 부르던 남편
눈물로 서로 껴안은 그날에
흘러가버린줄 알았던 젊은 시절이
다시 우리 삶을 푸르게 물들였습니다

궁궐같은 집에서만이 아닙니다
금강산과 묘향산, 송도원...
명승지들마다 그 젊음이 기다려
백발에 신혼부부가 된듯
따뜻한 정 나누어온 세월입니다

했어도 그 은정 모자라시는듯
생의 언덕 내려설 때에는
애국렬사릉
영생하는 삶의 언덕에
또다시 올려주시어
영원한 세월 안겨주시나니

아, 인덕의 화신 우리 장군님
하늘같은 사랑이 받들어주어
우리 부부들의 해와 달은 행복합니다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 품에서
백년가약 그 아름다운 세월을 삽니다!

가 사

방목길의 회초리소리

황 명 성

해쓷는 아침이면 사양공처녀
염소물고 방목길을 달려가네
머리우에 꽃수건도 곱게 날리며
이슬맺힌 풀판우에 휘젓는 회초리
랄랄라 행복의 노래짓는 지휘봉인가
호이호이 회초리소리 즐겁게 울려가네

멋있는 축산기지 등판 저 멀리
구름처럼 흘러가는 염소무리
서로 냉큼 앞서겠다 까불지 말아

살진 풀을 어서 먹어 휘젓는 회초리
랄랄라 행복의 노래짓는 지휘봉인가
호이호이 회초리소리 정답게 울려가네

당의 뜻 꽃피우는 사양공처녀
방목길에 땀을 묻고 정을 쏟네
자자손손 덕을 보며 만복을 누릴
꿈만 같은 그날 불러 휘젓는 회초리
랄랄라 행복의 노래짓는 지휘봉인가
호이호이 회초리소리 정답게 울려가네



학부형위원장

김 명 호

나는 오늘 학부형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전반적 12년제의 무교육의 혜택을 입게 된 나의 둘째아들이 초급중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내가 학부형위원장이라...)

감회깊이 되뇌이며 밤별들이 돋기 시작하는 창밖을 바라보느라니 그 하늘을 배경으로 우렁이 다가오는 모습이 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도 나의 인민학교(당시) 시절 학부형위원장이었다.

×

...내가 인민학교에 입학한 그해 첫 학부형회의에서 아버지는 학부형위원장으로 선거받았다.

도리암잡한 얼굴에 귀염성스런 미소가 인상적인 처녀선생이 어떻게 되어 농장의 평범한 도로관리원인 아버지를 학부형위원장으로 추천한 것인지 그때 나는 다 몰랐다.

두번째 학부형회의는 첫 학기를 지나보내고 겨울 방학을 앞둔 연말에 있었다.

그때 아버지는 전쟁시기 부상당한 상처가 도저 집에서 50리 떨어진 범포온천에 치료를 받으러 가 있었다. 그래서 회의에는 어머니가 대신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자녀들의 교양에 학부형들이 보다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담임선생이 지난 학기동안 학생들속에서 나타난 편향들을 지적하고 학부형들이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회의가 마감에 이르렀을 때 뒤문이 조용히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섰다. 모두 앞쪽에 눈길을 두고 있어 아버지를 본것은 담임선생뿐이었다. 아버지의

말없는 인사에 담임선생은 감동의 눈빛을 빔내이며 알릴듯말듯 눈인사를 보내었다. 가정교양을 등한히한 자책의 목소리들이 장내에 잦아들무렵 담임선생은 아버지에게 연권을 주었다.

모두의 눈길이 확 쏠리고 그제야 어머니도 뒤편에 서있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머니는 교탁앞으로 걸어나가는 아버지의 불편한 걸음걸이를 근심속에 바라보았다. 먼길에 먼지가 오른 얼굴은 피로에 싸여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대한 걱정이 살아오르는 한편 주위사람들 보기가 멋해 조용히 한숨을 내그었다....

이튿날 이모가 우리 집에 나타났다.

한마을에 사는지라 우리 집을 제 집 드나들듯 하는 이모의 출현이 별로 이상할진 없었지만 그날 삼작문을 벌각 열고 들어서는 그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다.

방안에서 이모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어머니는 대척없이 듣기만 하였다. 나는 그날 벌어진 대화의 내용을 후에야 알게 되었다.

사연인즉 리소재지마을에 있는 준호네가 학부형회의에 빠져서 아버지가 그 집을 찾아가 듣기 좋게 《견책》했다는것이다. 준호 아버지는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말하자면 나의 아버지가 학부형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한것인데 그것이 리당에까지 상정되어 준호 아버지가 가정교양을 등한시한다고 말을 들었다는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모와 한분조에서 일하는 준호 어머니의 눈빛이 온곱지 못했다는것이다.

좀 수다스러운 편인 준호 어머니는 끝내 자기의 불편한 심기를 쏟고야말았다.

《흥, 학부형위원장이 무슨 큰 벼슬자린가 하는

모양이지? 다 사정이 있어서 좀 빠진건데 뭘 그다 지나… 빠질데 안 빠질데…》

이모가 가버린 뒤 그날 저녁 어머니는 기분이 언짢았지만 아버지를 어려워하는지라 지나가는 말로 조심히 비쳤다. 아버지는 대뜸 어성을 높였다.

《당신은 내가 잘못했다는거요?》

《아니, 그런건 아니지만…》

어머니를 못마땅한듯 바라보며 아버지는 뒤를 이었다.

《난 학부형위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यो, 누가 뭐라고 하든.》

목소리타인지 무겁게 들려오는 그 말마디들은 자못 묵중하게 나의 심중에 박혀들었다.

학부형위원장… 조용히 불러보느니 그것은 학부형들앞에서 서두름이 없이 차근차근 얘기를 펴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의 더 다른것은 아닌듯싶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아버지의 그 말마디와 표정속에는 어린시절의 나로서도 강렬하게 느끼게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아버지의 가슴속에 끓고있는 지향과 념원이 무엇인지 다 헤아리기에는 그때 나의 가슴은 너무나 어리고 작았다.

인민학교졸업을 앞두고 아버지는 담임선생에게 알리지 않고 학부형회의를 소집하였다.

다름아니라 담임선생이 인차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연 회의였다.

담임선생이 30리 떨어진 광산마을의 특류영예군인의 일생의 팔다리가 될것을 결심한 사실은 학부형모두를 감동시켰다. 나라에서 결혼식상도 보내주고 새집과 가구들도 일식으로 갖추어준다지만 그렇다고 학부형들이 가만있겠느냐며 저마끔 의견들을 비쳤다. 그중에서도 준호 어머니의 목소리가 제일 높았다. 아마도 몇해전 학부형회의를 뚜꺼먹는 바람에 당하였던 창피에 대한 반감인지도 몰랐다.

《…마음 크게 쓰자요. 큼직한 세간살이를 갖추어주면 우리 마음도 좋고… 담임선생님도 그걸 볼적마다 우리 생각을 할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그렇지 않느냐는듯 턱을 쳐들고 좌중을 빙 둘러보았다.

이때 《너무 일면적이 아닌가요?》하는 목소리가 한마디 울리긴 했으나 그 녀자는 자기가 회의의장이기라도 한듯 그 의견을 들은척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거워진 아버지의 낯빛을 보며 학부형들은 여태껏 학부형위원장이 자기의 의견을 내놓지 않고있다는데 비로소 주의가 갔다.

《다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큼직하게 부조를 하는것도 좋지만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의 담임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분인가를 잘 알게 하는것이 더 의의있지 않는가

하는 의견ियो.

학부형이 뭇때문에 있는가. 학교후원이나 이러저러한 일에 무엇인가 지원도 할수 있겠지만 보다는 자식들의 밝은 눈동자에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들만이 남아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소? 자기 손으로 꺾은 들꽃들을 가지고가 노래도 불러주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겠소.》

아버지의 저력있는 말소리에 장내는 물뿌린듯 조용해졌다.

《웁아요!》

누군가 책상을 가볍게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학부형은 단순히 지원만 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좋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자구요.》

준호 어머니가 제꺼덕 발을 달았다. 여기저기서 찬동의 목소리들이 일고 생각은 한뼘으로 합쳐졌다. 아버지의 얼굴에도 느슨한 웃음발이 퍼져갔다.

삼복의 더위도 물러가고 선들선들 불어오는 바람이 무르익어가는 오희의 향기를 가슴에 그득히 채워주는 초가을 어느날, 우리는 소년단백타이를 날리며 결혼식이 진행되는 선생님의 집으로 찾아갔다. 30리길을 가는 동안 꽃이 시들세라 내내 물통에 꽂고 번갈아 어깨에 둘러메었다.

결혼식에 군당책임비서아저씨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지만 제일 이채로운것은 우리의 행렬이었다.

《선생님! 축하합니다!》

저마다 내미는 꽃다발을 한아름 받아안고 온통 꽃속에 묻힌 선생님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삼륜차에 앉아있던 선생님의 신랑도 《고맙소! 고맙소!》하며 우리 꼬마들의 손을 잡고 열정적으로 흔들어주었다.

행복에 겨워 젖은 눈시울을 반짝이며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미소를 머금고있던 그날의 선생님모습은 오늘에도 때없이 마음속에 떠오르며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그러면서 그날의 담임선생님의 모습이야말로 더없이 훌륭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에 숙연해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다.

그때 우리는 배움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고 때로는 잘못을 타일러 깨우쳐주기도 하시던 선생님의 정깊은 목소리를 되새기었으며 더불어 선생님의 당부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는 각오를 굳게 다지였다. 바로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들을 거기로 떠민것이 아닌지…

인민학교졸업후 우리는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있는 중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때 온 나라는 당

제6차대회를 맞이하면서 전례없이 양양된 분위기로 들끓고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학부형위원장이었다.

중학교의 첫 학기를 마치고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던 어느날, 우리는 준호네 집에 모여 방학숙제를 하고있었다.

집집의 퇴적장뒤집기를 하던 마을아주머니들이 휴식시간에 방안으로 쓸어들어왔다. 한결같이 방바닥에 머리를 박고 숙제에 골몰하고있는 우리들을 둘러보며 이 애는 누구네 애고 저 애 아버지는 누구고 하는 말추렴이 벌어졌다. 그런데 내 이름과 함께 《…친아들이 아니…》하는 귀에 선 말마디가 귀결에 울려왔다. 저도 모르게 발짝 일어난 내 눈썹에 슬그머니 눈길을 돌리는 아주머니들의 모양이 아무래도 이상하였다. 그다음부터는 숙제풀이에 정신을 집중하려고 하였지만 가슴이 쿵쿵 뛰여 도무지 더 앉아있을수 없었다.

나는 책가방을 둘러멘채 울적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오고있었다. 저쯤에서 등을 구부한채 소달구지에서 모래를 떠옮기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자 나는 한달음으로 달려갔다.

《아버지…》

아버지는 큰 산을 어깨로 떠올리기라도 하는듯 천천히 등을 폈다.

《내가, 내가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래요.》

나는 애원이 담긴 눈길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금시라도 나는 아버지의 입에서 《누가 그따위 소리를 들고다니더냐. 이 아버지가 당장 혼내줄라.》 하는 소영각소리같은 웨침이 터져나올줄 알았다.

그러나 묵묵히 나를 굽어보는 아버지의 두툼한 입술은 철문처럼 닫혀있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땀방울이 한별 덮인 아버지의 거뭇한 얼굴이 어찌나 피로운 표정으로 시꺼멓게 질렸던지 나는 그만 고개를 떨구고말았다.

잠시후 아버지의 입에서 침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괜한 소리를 들었구나. 집으로 돌아가거라, 어서!》

나는 그때부터 자연히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다. 아버지와 나사이에 자그마한 다름이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의 생활전체가 깨어져나갈것 같은 위구심속에 나날을 보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나는 응석과 어리광으로 아버지를 더는 대할수 없다는것을 깊이 깨달았다. 나는 마치도 길을 가다가 우연히 남의 집에 뛰여든 아이의 심정이었다. 이것은 더할나위없이 슬픈 일이었다.

어느 어슬어슬한 저녁무렵 내키지 않는 기분으

로 스적스적 집에 들어서던 나는 흐느끼는듯 한 어머니의 말소리에 걸음을 딱 멈추었다. 어머니의 구슬픈 음성이며 아버지의 침중한 말마디들은 여태껏 자라오면서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것들이었다.

《개가 물어볼 때라도 잘 말해줬어야지요. 요즘 영진이가 눈치를 살피는걸 보셨지요. 너무 고지식하니…》

《…물론 그 자리에서 네가 헛말을 들었구나 하고 영진이를 달랠수도 있었소. 그러나 차마 그 애 앞에서 거짓말을 할수 없었소. 어느때든 어차피 알게 될 일인데 너무 신경을 쓰지 맙시다. 나는 애육원에서 그 애를 데려올 때부터 영진이를 우리 아들로만 키우려고 생각한적은 단 한번도 없었소. 그는 나와 당신의 자식이기 전에 전선에서 돌아오지 못한 우리 소대전우들모두의 자식이란 말이요. 그래서인지 과연 내가 그들의 뒤편까지 합쳐 구실을 꽤 하고있는지 그것이 두렵소. 사람들이 그 엘 친자식이요 아니요 하는건 중요치 않소.》

나는 집안으로 들어갈수 없었다.

(최대 사실이였구나.…) 울컥 치미는 설음을 삼키며 나는 뺨 발길을 돌렸다.

나는 점차 울적한 아이로 되어갔다. 동무들과 썩 쓸리기 싫고 공부에서도 성수가 나지 않았다.

어느날 교원실로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책상우에서 어چه 치른 학과경연점수가 적힌 종이장이 나를 쳐다보고있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선생님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저…》 뭔가 하소연하고싶었으나 안타깝게도 말마디들은 목구멍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학생이야 모든 면에서 모범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봐서도 말입니다.》

가슴이 흠칫하였다. 선생님은 아버지를 말하고있었다. 나에게 있어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는것이였다. 그때로부터 한달쯤 지나 나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학년말에 열린 학부형회의에서 아버지가 학부형위원장 사퇴의사를 표명했다는것이였다.

아들인 내가 공부를 제대로 못한다는것이 그 이유였다. 고려해보겠노라고 담임선생이 말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커다란 충격이였다.

학부형위원장보다 더 중한 일은 없는듯 그렇듯 정을 기울이던 아버지,그런 아버지가 학부형위원장을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으랴.

하지만 학부형들이 한결같이 반대하여 아버지의 사퇴의사가 거부되었다고 했다. 나는 그때 일을 계기로 다시는 아버지의 속을 태우지 않겠노라 굳은 속다짐을 하였다.

세월이 흐르는 속에 아버지의 육체는 날로 로쇠

해져갔다. 몸이 불편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때가 드문히 반복되었다. 허나 변함이 없는것은 학부형위원장으로서의 자각이었다.

중학교 3학년이 다니던 어느날 우리 학급이 소년 단야영을 가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모두가 환성을 올리고 너무 좋아 뿔박질까지 하는 애들도 있었다. 뒤이어 학부형들이 모여 그 준비를 토론하느라 또 한차례 벅적거렸다. 학부형들의 열의가 대단하였다. 이제 야영소에 가면 도안의 곳곳에서 술한 애들이 모여있겠는데 우리 아이들을 제일 번듯하게 내세우자고 옥옥들 하였다.

야영모와 배낭, 샴썬, 운동화는 모두 흰색으로 하고 바지는 곤청색으로 해입기로 략착이 되었다.

전부 새로 지어야 하는것만큼 군인민위원회 상업부에 제기하여 해결받기로 하였다. 준비는 바람탄 연줄 풀리듯 순조롭게 진행되어갔다. 야영을 떠나기 며칠을 앞두고 새옷이 도착하여 모두의 기쁨은 하늘에 닿을듯 하였다. 새옷을 펼쳐입고 분별행진 연습을 하는 우리 학급을 보고 모두가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뒤따라 야영배낭도 우리에게 와달았다. 허나 그것이 학급인원수보다 세개가 적을줄이야. 일은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

군인민위원회 상업부에서는 우리가 주문한 야영복생산을 맡은 피복공장에 야영배낭도 맡기려고 하였으나 공장측에서는 생산도 긴장하거니와 계획지표가 아니어서 도저히 틈을 낼수 없었다. 그리하여 읍의 어느 한 가내편의작업반에 과업을 주게 되었다. 그런데 펍 덤비는 축인 군상업부 부원이 바쁜 전화를 하다나니 상대방은 서른세개라는 개수를 서른개로 듣고 그냥 내밀었던것이다. 야영배낭이 차례지지 못한 아이들은 그만 울상이 되어버렸다. 선생님이 하루이틀내로 또 만들어온다고 거듭 일렀으나 그들의 빼놓아진 마음을 돌려세우지 못했다. 그 애들중에는 팔다리가 지게작시미같이 가늘고 목이 헐끔한 연희라는 녀자애도 있었다. 생김그대로 가시같이 콧코 찌르기 좋아하는 그 애에게 언제인가 비판받은 일이 있는 나는 금방 눈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의 얼굴을 훌끔훌끔 바라보며 깨고소함을 금치 못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나에게 물었다, 연희에게 먼저 야영배낭을 주는것이 어떠냐고.

어깨가 폭 처져 고개를 외로 튼채 타박타박 집으로 돌아가는 그 애를 은연중에 보게 된 아버지는 연희를 붙들어세워놓고 꼬치꼬치 물었던것이다. 나는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담임선생님의 말씀을 상기하고서 고개를 끄덕이고말았다. 내가 그닥 어렵지 않게 승낙하게 된데는 별치 않은 일들가지고 툭쭈거리는 처녀애에 대한 사내로서의 우월감 비슷한 감정도 작용하였다. 즉시 군으로 전

화가 날아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튿날부터 뽕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사납게 불어나기 시작하는 금진강물을 지켜보았다. 이 기세로 물이 불면 나무로 만들어진 금진강다리는 물에 잠겨 길이 막히게 된다. 나보다 더 초조해하는 사람은 아버지였다. 밤중에도 몇차례나 들락날락하며 강물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얼굴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두워졌다. 래일이면 야영을 떠나는데 이젠 모든것이 끝장이라는 생각.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슴 한가득 차오르기 시작하였다. (하긴 제 자식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은 내 얼굴에 그대로 씌여졌다. 알팍한 입술을 꼭 다문채 눈을 찔 내리깐 나의 태도에 어머니는 어쩔줄 몰라했다. 다급해한 어머니가 없는 솜씨를 발휘하여 만들어낸 투박하기 그지없는 《야영배낭》은 나의 울화를 끝내 터쳐놓아야말았다. 야영을 떠난다고 온 마을이 명절처럼 흥성거렸지만 저녁밥을 뿌리친 나는 등을 꼬부린채 새우잠으로 밤을 보냈다. 꿈속에서도 설움에 겨워 흐느끼던 나는 누가 깨우는 바람에 눈을 떴다.

《자, 봐라! 배낭이다!》

기쁨에 겨운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반 눈물에 젖어있었다.

정말 흰 데트론천으로 만든 산뜻한 야영배낭이 머리맡에 놓여있는것이 아닌가!

밤새 아버지가 먼 하류에까지 내려가 철다리로 강을 건너 군에 다녀왔다는것이였다.

러지고 할퀴 상처자리에 봉대를 감고있는 물에 툭툭 불어난 아버지의 허연 손을 보는 순간 나는 그만 왈칵 울음이 터져올랐다. 눈물이 글썽하여 쳐다보는 나를 끌어주며 아버지가 일렀다.

《자, 메어보렴!》

세면도구며 학습장, 간식들이 가득 들어찬 새 야영배낭을 메고 쿵쿵 뛰는 나를 굽어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구름을 밀어낸 아침해빛마냥 환하고 따스하였다.

《학부형위원장이 다르구만.》

아버지가 밤동안 가져온 야영배낭을 아이들에게 메워보내며 학부형들이 저저마다 감동을 터뜨렸다. 나의 가슴속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긍지가 가득히 차올랐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본 학부형위원장으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전부가 결코 아니였다.

해마다 겨울방학이 오면 학교에서는 사로청원(당시)들로 학교로부터 80리나 떨어져있는 신흥지구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를 조직하곤 하였다.

우리가 사로청에 가땀한 그해 겨울은 유별나게 눈이 많이 내렸다. 두텁게 쌓인 눈의 무게에 못이

겨 팔뚝만 한 소나무아지들이 푹푹 부러져나가고 굽주리다못해 먹을것을 찾아 내려온 노루무리가 마을근방에서 얼씬거렸다.

출발을 앞두고 나는 망설이였다. 어머니가 대사가 있어 친척집으로 간데다가 아버지는 몹시 앓고 있었던것이다.

나의 속을 꿰뚫어본듯 아버지는 무거운 눈빛으로 이윽도록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가와 배낭을 어깨에 메워주며 말없이 떠밀어주었다. 나는 발뒤꿈치를 물듯 바투 따라오는 복슬강아지를 쫓는척 하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아버지는 구부정한 등을 펴지 못한채 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있는것이였다. 그 모습에 어쩐지 가슴이 알알해졌다. 나의 마음은 모임장소에 이르기 전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길에서 만난 준호 어머니가 준호는 앓아서 갈것 같지 못하다고 하면서 나를 살살 꼬드겼던것이다.

《한번쯤 빠진다고 무슨 큰일이 날가? 영진이는 아버지가 앓는다지. 마침 오늘이 준호 생일인데 동무도 해줄겸…》

종내 나는 준호네 집으로 걸음을 돌리고말았다. 아버지의 앓는 모습이 발목을 붙잡았지만 차마 당장 집으로 갈 용단은 내리지 못했던것이다. 그런데… 준호가 앓는다는것은 거짓말이였다. 준호 어머니는 호들갑을 떨며 나를 음식상으로 끌었지만 마음이 너무도 무거워 아무 음식도 맛있지 않았다.

어두워져야 집에 돌아온 나는 대문앞에서 한동안 서성거려였다. 나를 알아보고 어느새 뛰어나온 복슬강아지가 바지가랑이를 물고 안으로 끌어당겼지만 불이 환한 창문은 바라보는것마저 두려워났다. 속을 파내는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기침소리가 들려오자 나는 더 참지 못하고 방문을 열고야말았다. 아버지의 놀란 눈길에 화살처럼 날아왔다.

중얼대는 나의 이야기에 아버지는 아무런 응대도 없었다. 바위같이 무거운 한숨이 방바닥에 떨어지는가싶더니 아버지는 힘들게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숨외투의 단추를 채우는 손이 가늘게 떨리는것이 푹푹히 보이였다. 나는 슬며시 긴장해났다. 아버지는 나직이 일렀다.

《앞서거라!》

《아버지!》

절망과 애원의 웨침이 입에서 터져나갔다. 나는 열에 뜬 아버지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간절히 애원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하지만 이번만은…》

나의 몸부림에도 아버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맵짠 눈보라가 뽀얗게 일며 아츠러운 소리를 내지르고있었다. 눈물방울이 채 가는지

않은 속눈썹이 순간에 짙 들어붙고 아무것이나 단숨에 집어삼킬듯 한 사나운 눈보라는 어디가 어디인지 도무지 분간할수가 없게 휘몰아쳤다.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간 곳은 준호네 집이였다.

록음기까지 켜놓고 흥에 떠있던 준호네 식구들은 온통 눈가루투성이가 되어 불쑥 나타난 아버지앞에서 너무도 놀라 입을 항 벌리고 굳어져버렸다.

《준호 아버지,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지 맙시다.》

아버지의 말은 비록 짧았지만 바위와 같은 무게가 느껴졌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그 집문턱을 넘어나왔다.

아버지는 나를 앞세우고 신흥쪽으로 향했다.

한걸음한걸음 힘겹게 걷는 아버지의 가쁜 숨결이 극도로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버지…》

입밖으로 새어나온 이 부름은 거친 눈보라에 그대로 먹히우고말았다.

그때 나는 아버지가 나를 콕 때려주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이였다.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가슴이 짙 막히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의 발걸음은 점점 떠지였다. 아버지는 헉헉 단숨을 내뿜으며 자꾸 발을 헛짚었다. 한참씩 나에게 의지했다가는 다시 걸음을 옮기곤 하였다. 나는 더 참을수 없었다.

나는 울먹이며 아버지의 팔에 무작정 매달렸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젠 혼자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런 기척없이 나를 내려다보기만 하였다.

가쁘게 내쉬는 단숨이 얼굴에 끼쳐지더니 아버지의 묵직한 손이 어깨에 실렸다.

《네가 오늘 뭘 잘못한것 같으냐?》

《답사에 빠져서 학부형위원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체면을…》

《…》

숨가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으나 어둠속이여서 얼굴표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에 서린 아버지의 커다란 불만만은 감각으로 느낄수 있었다. 나는 서둘러 다시 대답을 올렸다.

《선렬들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운다는것을 말로만…》

그것은 책에서 배운 그대로의 대답이었으니 그때 나는 어떻게 하나 아버지를 빨리 되돌려보내고 싶은 심정뿐이였다.

아버지는 말없이 나를 떠밀고는 돌아섰다.

몇걸음 걷다가 뒤돌아보니 눈보라속에 언뜻언뜻

드러나는 아버지의 시커먼 형체는 나를 향하여 서 있었다. 다시금 눈물이 콧 치솟았다. 아버지에게로 달려가고싶었으나 웬일인지 두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큰죄를 짓고있는듯 한 감정이 너무나 강렬했던 것이다.

후날 누군가가 답사행군의 소감을 물었을 때 나는 선뜻 대답할수 없었다.

구호나무가 있는 아아한 산정으로 허리까지 치는 폭설을 밀어내며 한발자국 한발자국 힘겹게 뚫아올라간 그때의 감정을 가볍게는 다 표현할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길을 하루이틀도 아닌 20성상 풀뿌리를 씹으며 헤쳐온 항일의 투사들 생각에 숙연해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던것이 답사행군에 참가한 모두의 심정이었다.

학교로 돌아오는 날 집집마다 부모들이 동구앞까지 펼쳐나와 반겨주었다.

어느 누구를 보아도 자랑스럽고 땃땃하였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수치스러운 락후분자가 될번 하였다는 생각은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얼굴부터 찾아보게 하였다. 허나 아버지는... 없었다.

그날 밤 나를 떠밀어보낸 아버지는 끝내 길바닥에 쓰러졌다. 아버지의 질책에 한방망이 후려맞은 심정으로 황황히 따라나선 준호 아버지와 준호가 아버지를 발견하였을 때는 이미 정신을 잃고있었다.

아버지의 꼭진한 당부로 준호는 이 사실을 나에게 숨기었던 것이다.

그밤의 동상으로 하여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본 그 순간부터 나는 더는 칠부지가 아니었다.

속을 태우던 지난날들이 더없이 야속하게만 생각되었다. 아버지의 지칠줄 모르는 헌신이 무엇을 지향하고있는지 어렵듯이나마 깨달아지는것 같았다.

아버지가 퇴원하는 날에는 모든 학부형들이 나의 담임선생님과 함께 군인민병원에까지 찾아갔다.

×

사연많은 중학시절도 끝나게 되었다.

왜서인지 나의 마음은 그지없이 허전하였다. 이제는 더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학부형위원장이라 부르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에서였다.

년로보장나이가 지나 도로관리원일도 인계하였으니 집에서 새끼나 꼬고 터밭이나 가꾸고 돼지 기르기에 극성인 어머니의 일손이나 돕겠지 하고 아버지의 앞날을 떠올려보니 아버지에게 대한 동정에 내 마음이 그지없이 쓸쓸해났다. 그래서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떠나는 날 종내 아버지앞에서 눈물을 보이고말았다.

그날에는 아버지가 나를 꾸짖지 않았다. 다만 그

무겁고 투박한 손으로 애리애리한 내 어깨를 어루쓸뿐이었다.

나는 차창으로 멀어져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빌었다.

(아버지, 불편한 몸을 이제는 쉬우십시오. 초소에서 돌아오면 아버지를 속태운 철없던 지난날의 뉘까지 합쳐 정히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몇년후 표창휴가로 고향에 오게 되었을 때 학부형위원장이란 그 부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이야....

그동안 고향마을은 많은것이 변하였다.

내귀를 가지런히 한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서고 토지정리의 덕으로 세기를 두고 내려오며 대지에 열기설기 늘어졌던 주름살들이 번듯이 퍼져 고향은 한껏 젊어져있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것은 옛적 학부형위원장으로서의 아버지의 변함없는 자세였다.

내가 도착한 첫날 저녁 우리 집은 술한 마을사람들이 모여들어 명절분위기였다. 농장에서 일하는 동창생들도 찾아왔다.

내가 그날 제일 기뻐던것은 고향사람들이 여전히 아버지를 《학부형위원장》이라 부르고있는것이였다.

《위원장아바이, 기쁘겠수다.》

《이거 영진이랑 동창들이 한구들 모여왔으니 마치 두 옛날 학부형회의에 참가한것 같수다.》

《정말-》

하하, 호호...

확박한 분위기속에 밤이 깊어갈 때 나는 문득 준호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나는 옆에 앉은 동창생에게 물었다.

《준호 어머니가 왜 보이지 않나?》

그는 내 귀가에 대고 조용히 말하였다.

《준호 그치에게 무슨 일이 생긴것 같네. 군자재 공급소에서 일하다가 금진강발전소건설장에 나가 있는데 자재인수하러 다니다가 뭐가 제기됐다는만. 흥, 재미난 꼴에 범났지. 돌격대에 나갔다는게 걸핏하면 집에 왔다갔다 자유주의를 하더니...》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왜서인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다. 알고 보아서인지 나의 눈에는 웃고있는 아버지의 표정 밑에 근심기가 엿보였다.

다음날 새벽 나는 밖에서 두런두런 울리는 말소리에 깨어났다. 틀림없이 준호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러니 글썄 이 일을 어찌면 좋아요. 내가 외아들이라구 준호를 잘못 키웠지요, 어자어자하면서... 영진이 아버지, 저... 내가 가서 거기 어른들을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잇달았다.

《됐수다. 너무 마음쓰지 마시우. 당에서 어련히 알아 조처하겠지요. 언제까지 아들꼴무닐 따라다니면서 뒤치닥거릴 해주겠소. 그만 가보시우다.》

아버지는 엄엄하게 준호 어머니를 꼭 눌러놓았다.

그날 하루종일 아버지는 무슨 생각에 그리 움혔는지 일손을 잡아도 허둥거리는 눈치였고 나와 애기를 나누다가도 화제가 인차 동이 나군 하였다.

다음날은 내가 부대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아버지는 저녁밥상머리에서 발전소전설장에 가봐야겠다고 정식으로 말씀하였다.

《예? 평감은 그 준호일때문에 그러지요?》

어머니가 단박에 하는 말이였다.

나 역시 아버지를 만류하였다.

《아버지, 이젠 몸도 여의치 않으신데 그 걸음을 꼭 하셔야 하겠습니까?》

나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아버지의 얼굴이며 온몸을 어루쓸어보았다. 나의 아버지, 이제는 많이 늙으셨고 육체도 퍼그나 쇠잔해지셨다. 그러나 눈빛만은 불타던 그 시절의 그 정신을 담았는지 유난히 번쩍인다.

아버지는 시뭇이 웃으시더니 마음놓으란듯 마주 앉은 내 무릎을 툭툭 쳤다.

《영진아! 나야 학부형위원장이 아니냐. ...》

《예?!》

순간 나는 마음속에 쿵- 하고 오는 충격을 느꼈다.

끝내 아버지는 떠나셨다.

나도 부대로 떠나는 참이라 아버지와 함께 역으로 나갔다.

렬차승강구에 서계시는 아버지를 바래우며 나는 마음속깊이 우러나오는 걱정을 담아 한마디밖에 하

지 못하였다.

《아버지!-》

그후 나는 준호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

영진동무, 난 정말 몰랐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동무의 아버지가 날 찾아 그 먼길을 오실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동무의 아버지의 준절한 가르침을 들으며 난 그만해야 옛 학부형위원장의 품에 얼굴묻고 끝내 울음을 터뜨렸구나.

《준호야, 명심해라. 판계 반동이 아니다. 저박에 모르면 꼭 당과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걸 잊지 말거라.》

동무의 아버지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학부형위원장이야.

난 어제 제기했어. 돌격대에서도 제일 힘든 곳을 나를 보내달라고, 거기서 땀바쳐, 온 육신을 바쳐 죄를 씻겠다고 말이야. ...》

×

새록새록 돌기 시작하던 밤별들이 어느덧 검푸른 하늘을 짙 메우다싶이 무수히 반짝거리고있다.

저 별들처럼 많은 사람들, 자신의 량심에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자각, 공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스스로 없을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 하늘아래서 이 땅을 살찌워가고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안계시지만 저 별처럼 웃고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안겨온다.

나는 조용히 입속말로 속삭였다.

(아버지! 나도 영원토록 아버지의 그 헌신의 세속에 살립니다.)

상 식

탄 저 균

어느 한 나라의 통신자료에 의하면 고대그리스의 유명한 의사인 히포크라테스(B.C. 460-B.C. 377)가 저술한 의학저서들에 이미 탄저병에 대해서술되어있었다고 한다.

탄저균은 1849년 도이칠란드의 의사 폴렌테르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그 이후 여러 나라들에서 탄저병의 발생과 그 전파방식, 탄저병에 방에 필요한 항생제들이 연구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 탄저균이 사람들의 대량살육을 목적으로 하는

세균무기제작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37년에 일본침략군 731부대가 중국 동북지방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잔인한 세균무기실험을 진행하였다. 그중 탄저균이 주요실험균종의 하나로 되었었다. 미국은 1943년부터 탄저균을 리용한 생물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미국에 전파되고있는 탄저균은 미국의 국방연구소에서 만들어진것이라고 한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 있는 질병통제센터전문가들이 이에 대하여 해명하였다.

시대정신에 대한 민감형과 형상의 세계

—주체104(2015)년 1.4분기 《조선문학》에

실린 단편소설들을 두고—

김 학

시대정신의 반영은 문학의 생명요소이다. 시대의 주도적인 흐름에 민감할 때 문학은 사람의 사상정신적량식으로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문학예술은 격동하는 시대의 력사적흐름을 힘있게 선도함으로써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문학은 시대정신의 민감한 반영으로 시대의 력사적흐름을 선도하며 나아가서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참다운 생활의 교과서로,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사상예술적무기로 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 1.4분기 《조선문학》잡지에 실린 단편소설작품들은 일정하게 시사하는바가 있다. 분기에는 모두 11편의 단편소설들이 발표되였는데 비교적 량적으로도 적은것이 아닌데다가 주제분야도 다양하고 문제성도 일정하게 의의가 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모신 수령형상작품이 4편이고 김정일애국주의주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주제로 한 작품도 있다.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산림복구와 관련한 문제, 형식주의타파문제, 일심단결문제, 인간에 대한 정성문제 등이 취급되고있다.

얼핏 보아도 우리 작가들이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기며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인 문학예술창조와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요구를 심장에 받아들이고 5대교양에 이바지하는 작품창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위대성교양은 5대교양에서 핵을 이루는 분야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상과 령도, 덕망의 위대성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을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되며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하기에 작

가들은 분기간에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영상을 모신 소설을 4편이나 창작발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단편소설 《두단령감》(동의희, 1호)은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형상에 바쳐진 작품이다. 한평생 우리 인민에게 고기를 풍족하게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써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두단오리목장을 세워주시고 발전시켜오신 헌신의 사적을 문학적인 이야기로 가슴뜨겁게 전하는 소설은 독자들을 무한히 감동시킨다.

어버이수령님의 가금업창설과 그 현명한 령도는 그대로 사람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새 인간의 탄생, 인간민음의 력사였다는것이 이 소설의 형상적주장이다. 소설은 한갓 오리사양공에 지나지 않던 소박한 청년 최성준이를 두단오리목장의 지배인으로 키워주시고 정을 담아 《두단령감》이라고 불러주시며 온갖 사랑을 다 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인간애를 통하여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절대적인 지위와 결정적역할에 대하여 예술적으로 확인하였다.

소설이 항일무장투쟁시기 한 농가집에서의 사연과 《대통령감》으로 불리운 항일투사 리동백동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산채로 판매되는 닭을 두고 벌어지는 사건과 최성준의 양딸에 대한 이야기 등 많은 생활세부들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위인상을 설득력있게 부각시키고 등장인물들의 성격형상을 풍만하게 한것은 경험적이라고 할수 있다.

단편소설 《보화》(김혜영, 2호)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숭고한 품모를 소리높이 구가하면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에 이바지하는 작품이다.

대대로 천한 석공의 가정에서 태어난 리명준이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숭고한 뜻과 열정, 뜨거운 민음속에서 60나이에 또다시 군복을 입고 애국돌가공공장 지배인으로 임명되며 그의 아들까지도 아버지와 한공장에서 세계적인 돌가공기술을 펼쳐나가는 이야기는 곧 한가정의 운명이 전환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헌신의

로고가 감명깊게 펼쳐지는 과정이다.

(장군님! 이 나라의 한조각 돌도 소중히 품에 안아 열을 주고 정을 주어 보화로 빛내여주신 장군님이시야말로 이 세상 애국자중의 애국자,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라는 리명준의 심중의 웨침은 풍만한 생활묘사를 통하여 소설이 해명한 사상적주장으로서 독자들의 심장을 울린다.

소설은 인간을 키우시고 자연을 가꾸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의 세계를 력점을 찍어 형상함으로써 위인의 손길아래서는 사람도 산천도 귀중한 보화로밖에 달리될수 없다는것을 심오하게 우치고있다. 소설이 일정한 철학적무게를 가지는 요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간애와 령도풍모는 오늘 천만군민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키고있으며 그이에 대한 매혹과 흠모로 눈굽적시게 하고있다. 특히 수령의 혁명위업계승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를 한몸에 체현하고계시는 우리 원수님의 후계자적풍모는 세상을 경탄시키고있다. 단편소설 《소원》(탁숙본, 1호), 《해군맹기》(리주, 3호)들이 바로 이러한 력사적사실에 대한 진실한 예술적반영이다.

우리가 오늘 늘 우러러보며 마음속깊이 흠모와 매혹의 정을 뜨겁게 간직하면서 충정을 다짐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이 어떻게 모셔지게 되었는가 하는것을 예술적형상으로 감동깊이 전하는 단편소설 《소원》은 수령의 후계자형상창조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성과라고 말할수 있다.

오래전부터 위대한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오시면서 어떻게 하면 장군님의 영상을 더 밝고 정중하게, 친근하고 자애깊은 환하신 모습으로 모실가 하고 늘 마음써오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중대하고도 영예로운 사업을 인민군대 미술창작기관에 위임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신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디 가나 군대와 인민들은 태양처럼 환히 웃으시는 장군님 모습을 가까이 모시고싶어합니다. 그것이 전인민적인 념원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시기별로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하도록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장군님의 초상화를 새롭게 형상하여 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내 언제부터 무르익혀오던 생각인데 나의 결심은... 2012년까지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초상화를 모시도록 하자는것입니다.》

수령의 가장 충직한 전사, 후계자가 아니고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발기이고 결단이며 실천이다.

소설은 한 부진미술가의 재능의 싹을 발견하고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시여 이 중대한 력사적

과제수행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뜨거운 인간애를 여러 생활세부들을 통하여 감동깊이 보여줌으로써 예술적감화력을 높이고있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소원이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소원이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소원이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소원이라는것을 형상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수령과 군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시사한것은 이 소설의 여운이다.

단편소설 《해군맹기》 역시 최고사령관과 전사들사이에 맺어진 혈연의 동지적관계를 전투항쟁중 희생된 구잠함용사들에게 베푸시는 우리 원수님의 눈물겨운 사랑과 은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잘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용사들의 합장묘건립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가지가지의 생활들을 력사적사실에 맞게 더욱 부각시키는 방향에서 다양하게 펼쳐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동지애, 전우애의 세계가 얼마나 숭고하고 무한한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폭넓게, 심오하게 일반화하였다.

《조선문학》잡지에 발표된 수령형상소설들을 읽고나니 긍정적인 측면외에 일련의 생각되는 점들이 있다. 우선 수령의 형상을 보다 정치성의 측면에서 풍부히 하여야 하겠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정치적령도자로서의 수령의 풍모에 형상의 초점을 돌려야 한다는것이다. 인간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작품도 쓸수 있으나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을 창작하는데서는 그런 경우에도 정치성이 강조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감동적인 생활은 있는데 심오한 철학이 부족한 편향이 바로 정치성과 인간성의 옳은 결합을 놓치고있는데 있다고 본다.

분기간 《조선문학》잡지에는 《감상문》(리희찬, 1호), 《돌배항기》(김성희, 1호), 《보습산》(오광철, 2호), 《민아카시아》(주철웅, 2호), 《어머니는 곁에 있다》(안명국, 3호), 《뿌리깊은 나무》(리국철, 3호), 《정성》(오광철, 3호)과 같은 다양한 주제와 양상의 단편소설들도 발표되었다.

시대정신의 민감성은 작품들이 모두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정책적요구들을 인간학적으로 반영한 현실주체의 소설들이라는데서 표현되고있다.

단편소설 《돌배항기》는 갯목사업소 운전사였던 리도영이 뜻밖의 일에서 받은 충격으로 산림경영소 감독원이 되어 운흥리산판을 아글타글 가꾸어가는 형상을 통하여 우리 당의 산림복구구상을 옹호한 작품이다. 소설은 운흥길에서 자기의 차를 구원하고 희생된 한 운전사의 부락을 잊지 않고 운전사

로부터 산림감독원으로 인생전환을 하여 10여년동안 산림을 가꾸어온 한 인간의 애국심을 구체적인 필치로 그리면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를 위한 헌신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리도영의 희생적인 삶에서 충격을 받고 자기 역시 갱목사업소 운전사로부터 산림감독원이 된 최명룡(리도영의 사위)의 회상시점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산림조성은 결코 한세대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를 이어 진행되는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구성이다. 특히 수수한 돌배의 진한 향기에 비유된 평범한 주인공의 웅심깊은 애국심은 또 하나의 독특한 인간향기를 창조한 것으로서 탐구적이다.

일부 설친 구석도 있다. 주인공의 애국심을 폭발시킨 미지의 운전사(최명룡의 아버지)에 대한 형상이다. 최후의 순간에 운전사인 리도영에게 반각산을 잘 꾸러달라고 하는 부탁에 대한 타당성이 약하며 평시에 그가 반각산을 가꾸는 사람이 되겠다고 《넉불처럼》 외우던 사람이었다는 설명은 그에 대한 인상에 그늘을 던진다.

단편소설 《뿌리깊은 나무》 역시 산림복구, 산림애호를 주제로 한 작품이다. 소설은 소녀시절부터 산림감독원이었던 아버지의 애국적영향으로 산을 아끼고 나무를 귀히 여기면서 처녀의 몸으로 산림감독원이 되었으며 시집가서는 산림반 반장으로 아글타글 산을 가꾸어온 한 녀인(경옥)의 애국적소행을 감동깊이 보여주고 있다.

소설이 경옥의 전반생을 생활적으로 무리없이 취급하면서도 개성이 뚜렷하게 형성한 것이 좋다. 이 작품에서도 경옥의 소행을 뿌리깊은 나무와의 비교 속에서 의미심장하게 그리고 있는 것으로 하여 비교적 여운있게 읽히운다. 《옥심많은 부부》의 행복판을 두고, 《나무를 키우며 사람을 키우》는 리치를 두고, 《파넬줄도 알아야 하지만 물을줄도 알아야 하》는 탄부의 사명감을 두고 사색하게 하는 소설의 형상은 이채롭다. 반면에 까치등지에 불을 다는 세부는 류사성의 측면에서, 진실성의 측면에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위대한 당의 원대한 강성국가건설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면 누구나 오늘에 할수 있는 일, 오늘에 할 일을 태일로 미루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선군시대 인간의 참다운 애국의 삶은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태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데 있다. 단편소설 《보습산》은 이러한 시대적요구를 구체적인 예술적형상으로 여운있게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명천지구의 증광체존재를 립증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두 청춘남녀(리명훈관리국 기사장과 김혜선관리국부원)의 아기자기한 생활을

통하여 참다운 애국적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일정한 형상적해답을 주었다.

《…

따스한 햇빛속에서 오늘의 힘겨움도, 눈물도, 가슴다는 고백도 태일을 위한 오늘의 생활이고 투쟁이며 사랑이라는 따스한 목소리가 그냥 들려오는 듯싶어졌다.

…》

소설에서 긍정적으로 찾아보게 되는 것은 형상이 강한 극성으로 일관되어있어 비교적 긴 이야기이지만 탄력이 있고 감성적으로 흥미있게 읽히운다는 점이다. 인물들의 감정세계가 섬세하고 생동하며 한마디로 감정조직이 짙어있다. 언어구사가 비교적 다의미적이고 감성적이며 섬세한 반면에 지나친 복합문장이 라렬된 개소가 엿보인다.

보습산전설을 형상의 밑바탕에 깔고 이야기를 전개한것이라든가, 뽕새부를 적중하게 리용한것 등 묘사수법의 측면에서 작가의 탐구가 깃든 세부와 일화가 적지 않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키는 문제도 오늘의 정세하에서 중요한 사상사업의 하나로 나선다. 단편소설 《감상문》, 《어머니는 곁에 있다》, 《정성》 등이 바로 이 주제의 형상에 바쳐진 작품들이다.

단편소설 《감상문》을 읽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흐뭇해지면서 최근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리우는 노래 《세월이야 가보라지》를 흥얼거리게 된다. 그만큼 소설은 로동당의 햇빛아래 늠름을 모르는 우리 로인들의 복받은 생활을 흥취나는 필치로 펼쳐보이고 있는 것이다.

소설은 년로보장으로 교정을 떠난 한 퇴직교장의 가정생활을 본질적인 세부들로 재치있게 엮어가면서 자본주의는 흥내낼수도 없고 가질수도 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소리높이 구가하고 있다. 로동당세월이 아니고서야 사회적인 간으로서의 값높은 삶을 어떻게 마지막까지 빛내일수 있으며 또한 좋은 제도를 만나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부모들에게 효도를 하고파도 참다운 효도를 할수 없다는 소설의 형상적주장은 참으로 가슴을 울린다.

칠십로인의 소박한 말처럼 담담하면서도 구수하게 구사된 언어문체도 인상적이고 순수 세태적인 생활(낚시질세부)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생활(론문집필세부)도 배합하여 이야기를 펼친것도 정당하다.

단편소설 《감상문》이 사회적시책의 측면에서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구가한 작품이라면 단편소설 《어머니는 곁에 있다》는 당의 품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사는 우리 사

회의 우월성을 노래하는데 바쳐진 작품이다. 소설은 부모없는 탄부청년인 향국이 탄광당비서를 비롯한 공혼탄부아바이, 영순의 어머니 등 주위사람들의 진정한 마음과 따뜻한 보살핌으로 혁신자가 되고 나중에는 마음씨 곱고 열정적인 전차운전공 영순이와 한가정을 이루는 이야기를 통하여 당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곁에 있다는것을 주장하려고 하였다. 《어머니는 곁에 있다》는것은 곧 《당은 곁에 있다》는 말인것이다.

작가의 의도는 나무랄것이 못되지만 그것을 해명해나가는 세부형상이 다소 진부한것으로 하여 의도 자체도 구태의연한 인상을 주고있다.

단편소설 《정성》 역시 우리 나라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일련의 본질적인 사건의 제시로 일정하게 의도를 성취하였다고 본다. 그런데 주요인물인 의사 한정호의 성격형상이 논리적인 일관성이 부족하고 거친것으로 하여 일정하게 손해를 보고있다. 중환자를 간호원에게 맡기고 동창생들의 놀음놀이에 가고 환자의 생명이 경각에 달하여 연락을 보냈지만 수술이 진행된 세시간사이에 나타나지 않은 정호의 놀람기 짝이 없는 무책임성을 두고 동지들이 비판하는데 대하여 반발하는 그의 언행은 이미 오늘 우리 문학이 취급해야 할 형상대상이 못된다.

《물론 오진을 한 잘못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의사도 인간인만큼 실수도 있을수 있고 사적용무도 있을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계처럼 편차없이 사고하고 생활하겠습니까. 이젠 뭐 결함을 범하기를 기다렸다는듯이 몰아대니...》

이런 정도의 인간이 개조되는 형상은 아무리해도 그 어떤 삶의 진리를 도출해내기도 힘들고 독자들을 공감시키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우리 보건제도의 우월성에 그늘을 던질수 있다고 본다.

시대정신의 민감성은 결코 현실적인 주제분야나 문제제기에만 있지 않다. 그것이 풍만하고 깊

이있는 예술적형상으로 전환될 때 시대현실에 대한 문학의 예민한 반응은 응당한 가치를 가질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 보내신 서한에서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우리당의 사상과 정책, 의도를 생동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감정정서적으로 파악시키고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단편소설 《민아카시아》는 당의 사상과 정책, 의도를 민감하게 반영하는데만 그친것이 아니라 생동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감정정서적으로 파악시키고 깊이 심어주는데서 일정하게 모범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불필요한 가시가 없는 민아카시아의 생애적특성에 의탁하여 일군들에게서의 악성종양, 우리 사회를 쪼먹는 위험한 비루스로서의 형식주의에 예리한 형상적비판을 가하고있다. 소설은 심각한 사회적문제성을 제기하고있지만 그것을 해명해나가는 예술적형상은 매우 담담하고 정가롭게 흐르고있는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발랄하면서도 지성적인 세멘트공장 회계원 겸 경리원처녀 리수정 즉 《나》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전개시켜나간 형상수법에 많이 기인된다고 생각한다.

형식주의에 대하여 그토록 경멸하는 강필남의 성격적기초가 매우 정당하게 분석된 반면에 그와 대조되는 도건재관리국 부원의 형식주의적사업태도의 사상적근원에 대하여 무관심한것은 아무래도 흠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상의 소설들이 형상수준에서는 일련의 차이가 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총진군의 발걸음을 걸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일정한 사상정신적힘을 안겨준데 대해서는 의심할바 없다.

상 식

휴가를 받은 송장

우리 말에 《산 송장》이라는 성구가 있다. 살아 있으나 이렇다할 활동을 하지 못하고있는 경우를 두고 쓰는 말이다. 주로 상대방을 강하게 멸시할 때 쓰인다. 도이취어에는 《휴가를 받은 송장》이란 성구가 있다. 악명높은 《철혈정책》을 내걸고 침략과 략탈전쟁, 폭압에 날뛰던 도이쉴란드제국의 초대제상이었던 비스마르크(1815—1898)는 1888년

월헬름1세가 죽은 다음 월헬름2세에 의하여 1890년 3월 재상직에서 파면되였다. 그는 집구석에 들어 박혀 최악으로 가득찬 자기의 한생에 대하여 글로 쓴답시고 가련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신을 《휴가를 받은 송장》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였다. 이로부터 도이취어에서는 그의 이 말이 하나의 성구로까지 굳어지게 되였다.



자신을 믿으라

오 광 천

1

《누가 누구를 맞춰야 하는가. … 요즘 우리 검찰소의 일부 검사들속에서 당이 준 법적권한을 랍용하여 담당단위 일군들의 사업권위를 훼손시키고 그들의 창발적사업능력을 저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 당이 바라는 검사들의 사업원칙은 암행어사식작풍이 아닙니다. 물론 검사들은 일군들의 사업에서 결함이 나타나면 이를 고쳐주기 위하여 타협을 모르는 진심의 채적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해가는 일군이라면 그들의 사업에 발맞추어 자신의 어깨를 들이밀고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화국 검찰일군의 법적권한이며 의무입니다.》

세멘트분사업소현대화문제를 료해하는 도검찰소창국검사에게 느닷없이 검찰소 초급당비서가 했던 이 말이 떠오르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의 눈앞에서 사업소현대화문제를 놓고 대립된 두 일군의 모습이 어울려돌았다.

《송만호소장은 사업소현대화를 말아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설비수입을 마다하고 돌아선 겁니다.》

송만호소장과 함께 설비수입을 위하여 외국에 갔던 순천화학건설연합기업소 부지배인 리경선의 말이였다.

현시기 경제활성화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이 고조됨에 따라 질 좋은 세멘트에 대한 수요는 날이 높아갔다. 수도건설을 비롯해서 국가적으로 품을 넣는 대상건설에서 저마끔 더 많은 세멘트를 요구했다. 하지만 주요세멘트산지의 거대한 소성로들이 크링카를 아무리 쌓아놓아도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커지기만 하는 전국적인 수요는 미처 충족시

킬수 없는 형편이다.

판이 이렇다보니 국가적인 계획외에 도나 시, 군에서 계획하고 벌려놓는 건설은 나라에 손을 내밀 형편이 못되였다.

그렇다면 시, 군들에서 더 높이, 더 빨리, 더욱더 웅장화려하게를 지향하는 시대의 요구를 실현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중소규모의 지방세멘트공업을 현대화하여 자체로 질 좋은 세멘트에 대한 수요를 풀어야 한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이런 확고한 결심밑에 이 사업의 첫 순서로 화학건설연합 세멘트분사업소를 꼽았다. 원인은 첫째로 사업소가 품위는 그리 높지 못해도 거대한 석회석매장지를 타고앉아있다는것이며 다음으로는 비록 이 사업소가 년산 1만 5천톤용량의 소성로를 두기 가지고있는 보잘것없이 작은 공장이지만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에 벌써 도적으로 수직로에 의한 소성공정을 제일먼저 꾸려놓았으며 지금까지 그중 높은 강도의 크링카를 생산하는 단위였기때문이다.

조건이 이러한데 그럼 사업소의 현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

우로는 도당과 도인민위원회에서, 아래로는 사업소 로동자들이 여러가지로 의견들을 교환할 때 우연중 다행이라 할지 세계에서 건재공업이 발전된 어느 한 나라의 건설연합회사에서 10만톤규모의 발전된 수직로설비일식을 헐값으로 팔겠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도에서는 즉시 강력한 기술실무조를 무어 그 회사에 파견하였는데 만호소장과 리경선부지배인을 거기에 망라시키였던것이다. 수직로설비는 조작이 모두 컴퓨터화되고 연료와 전력소비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생산제품의 질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였다. 기술진은 기계설비에 대하여 만족을 표

시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실무조는 교섭을 추진시켜 나갔다. 상대측에서도 우리의 모든 요구를 긍정적으로 대하며 적극적으로 나왔다.

그런데 회담 마지막에 예상밖의 일이 벌어졌다. 아닌밤중에 홍두깨라고 만호가 회사측에 몇마디 질문을 하더니만 설비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최종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창국은 실망감을 금할수 없었다. 만호소장은 사업소현대화의 중요성을 몰라서 제멋대로 회담을 파기시키고 돌아왔는가.

이에 대한 만호소장의 대답은 단마디였다.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서입니다. 남들이 하는걸 우리라고 왜 못하겠습니까.》

창국은 한방망이 얻어맞은듯 어리벙벙해서 만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너무도 돌발적이었고 또 뜻밖의 충격이었다.

우리의 힘으로 한다고?...

지금 건재공업이 발전된것으로 알려진 몇개 나라에서는 대규모의 수평식회전로를 설비가격과 생산원가가 아주 적은 소규모의 수직로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었다. 이들은 고강도의 세멘트를 생산할수 없는것으로 공인되었던 수직로에서도 회전로와 맞먹는 질 좋은 세멘트를 구워내며 이를 건재공업분야에서의 획기적인 진보라고 요란히 떠들고있었다. 지난 시기 수직로는 회전식수평로에 비해서 여러가지 허점이 있었다. 우선 수직로는 열전도가 잘되지 않으며 증유와 같이 휘발성이 센 연료를 뿜수 없다. 로안의 온도를 올리려고 연료량(석탄)을 증가하면 재성분이 많아져 그만큼 크링카의 강도가 떨어진다. 발전된 몇나라에서는 이 허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새 기술도입으로 설비들을 현대화하여 재성분이 많은 석탄을 적게 쓰고도 소기의 열을 얻어내고있다. 다음으로 그들은 미지의 광물을 광화제로 첨가하는데 그러면 원료의 반응온도가 낮아져 적은 열량을 가지고도 크링카를 잘 익힐수 있었다. 그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결을 다른 나라에서는 철저한 기업비밀로 붙이고있었다.

이런 몇개 나라의 독점물이 되다싶이 한 현대적인 수직로를 만호는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우겠다 한다. 혹시 무분별한 객기나 일종의 허세는 아닌지. ...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거 조롱박 깨놓고 동이체로 물마신다고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지요. 하다가 못하면 할수 없다는 식인데 그러면 당결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리경선부지배인의 말이였다.

파연 만호소장이 자기보신적인 그런 사람이란 말인가.

창국은 머리를 저었다. 그가 료해해본 만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였었다. 주대가 있고 무엇인가 해보

겠다는 욕심이 하늘같았다. 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기질이 때로는 우환으로 될수도 있는것이다. 만일 소성로현대화문제에서 성격적기질이 작용했다면 경선의 말대로 다음해 도의 방대한 건설사업이 흔들리게 되지 않겠는가.

창국은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져움을 느끼였다. 그는 시원히 머리를 식힐겸 소성로에 나가보기로 결심했다. 합숙방을 나선 창국은 뒤집을 지고서 구내풍경을 바라보았다.

흰 연기가 무럭무럭 솟아오르는 소성굴뚝, 원료를 바수며 야단스레 돌아가는 각종 파쇄기들과 미루들, 뽕 만난듯 몸체를 부르르 떠는 요출기, 거기서 밀려나온 크링카를 담아내고 쉼없이 흘러가는 콘베아, 광산쪽에서 울리는 발파소리.

십여년간 세멘트생산부문을 담당해오면서 너무나도 익숙되어 아주 친근히 느끼고있는 생산의 숨결이였다. 어쩌된노릇인지 창국은 이 숨결을 느끼지 못하면 생활 그자체가 불편해지군 한다. 그래서 어쩌다 집에 들어가도 하늘을 치받을듯 우뚝 솟은 소성굴뚝이 새록새록 안겨와 잠을 못 이루는지도 모른다. 이때문에 때로 안해의 잔꾸중을 듣기도 한다.

《당신은 공장에 끝단지를 물어두고 오셨소? 어쩌다 집에 들어와서도 출창 공장에 대한 생각만을 하시니...》

《글쎄 끝단지만 묻은것 같지 않소. 공장에 가면 단맛, 쓴맛을 골고루 맛보니 말이요.》

롱으로 흘리는 말 같아도 여기에는 창국의 진심이 깃들어있었다. 담당점사의 사업이란 결코 즐거움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괴로움과 불만이 있는가 하면 격분도 있었으며 오늘처럼 량자택일의 번민도 있는것이다.

창국은 로를 휘감은 철계단을 올라 소성실에 당도했다. 거기에는 만호소장과 책임기사, 소성반장이 로상태를 살피고있었다. 창국은 이상한 감촉을 느끼였다. 자기가 소성실에 들어서자 책임기사와 소성반장이 불안해하는것 같았기때문이었다. 만호소장은 창국을 피곳 바라보고는 다시 로안을 예리하게 살폈다. 주름살이 얼기설기 간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어려돌았다. 무슨 일이 있는것이 분명했다.

창국은 책임기사의 팔을 건드리며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요?》

책임기사가 도수높은 안경을 추스르며 주뭇주뭇했다.

《저... 새로운 광화제에 의한 소성시험을 해보느라구...》

《난 그런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

이때 만호가 구령쳤다.

《요출!》

신호종소리가 울리고 요출기의 울림이 발밑에 미

쳐왔다. 이어 무선대화기에서 요출공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요출 정상! 잘 익은 크링카가 요출됩니다.》

《그럼 분석을 해보시오.》

만호는 이렇게 임무를 주고서 담배를 붙여물었다. 그리고는 초조한 심리를 달래듯 창가에서 서성이었다.

창국은 만호의 거동을 바라보다 책임기사에게 눈길을 주었다.

《새로운 광화제란게 뭐요?》

《저… 증광입니다.》

창국은 아연해졌다. 문득 두달전 기술협의회에서 있었던 격렬한 논쟁이 생각히었다.

《증광은 소성로안에서 산화되어 이산화류황을 형성하였다가 갑작열과 류동성기체에 의하여 무수석고로 전환됩니다. 무수석고는 우리가 이미전부터 쓰고있던 광화제입니다. 결국 증광에 들어있는 류황성분은 제2의 광화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성온도를 100도이상 낮추어도 크링카의 세기를 10~20프로 높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호의 설득력있는 논거에 동감을 표시했지만 리경선부지배인은 머리를 저었다.

《소장동무, 증광의 불탈림온도는 400도정도일거요. 만약 이산화류황이 무수석고로 전환되지 못하고 불이 달린다면 그 후과는 상상하기 어렵겠는데… 그러니 증광은 입에 올리지도 않는게 좋겠소.》

그런데 모험적인 증광첨가실험을 만호는 독단적으로 강행한것이였다. 패색한 생각이 굴뚝을 세웠다.

이때 대화기에서 처녀분석공의 흥분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류리석회 0, 강도 200.》

《성공이구나.》

책임기사와 소성반장이 희색이 만면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만호는 덤덤한 자세로 잠시 서있다가 창국에게 다가왔다.

《검사동무,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미안할게 있소. 나야 이 공장에서 손님이요 소장동무야 절대적인 군주인데…》

창국은 거친 어조로 불만을 토했다. 만호는 그런 창국을 한번 바라보고는 이내 머리를 숙이고 소성실을 나섰다. 창국이 소장의 꺼꺼부정한 뒤모습을 바라보는데 책임기사가 나직하게 말했다.

《어찌했습니까. 우에서는 증광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하지… 소장동지는 모든 책임을 각오하고서 오늘 시험을 단행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광화제에 대하여 믿음도 있었습니다. 소장동지는 5년전부터 증광에 대하여 연구했습니다.》

5년전부터 증광을 연구했다면… 그렇다면 만호는

이전부터 새형의 수직로건설을 가슴속에 안고 몸부림쳤다는 소리가 아닌가. 울곧은 인간의 이런 피라는 탐구를 나는 어째서 알고고도 하지 않았는가.

창국은 자책에 잠겨 아무 말 없다가 소성실을 내렸다. 그리고는 공장 소장을 찾아갔다.

방에 들어서니 의사등반이에 기대여 눈을 감고있던 만호가 엉거주춤 몸을 일으켰다. 눈확이 폭 패이고 입술에 조갈이 든 그의 얼굴에서 모진 피로가 엿보였다. 아마 몇밤을 팬듯 했다.

매일 눈맞대고있으면서도 어째서 지금에야 소장의 초췌한 모습이 안겨오는것인가.

창국은 만호의 얼굴을 한참 여겨보다가 의자를 당겨 앉았다.

《소장동무, 다르게 생각말고 내 물음에 대답해주오. 정말 우리 힘으로 현대적인 수직로를 건설할수 있을까?》

만호의 입술에 실날같은 미소가 스쳤다.

《물론 증광에 의한 소성법이 성공했다고 현대적인 수직로가 절로 일어서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직로는 우리의 힘으로 꼭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라의 귀중한 외화를 들여 수입설비를 들여오는 손쉬운 방법만 택하다가는 언제가도 우리의 건재공업이 남들을 디디고 일어서지 못합니다. 검사동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강한 법이다.》

창국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가슴이 후터워졌다.

(그래,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강한 법이야.)

창국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한참 만호를 바라보던 그는 손을 내밀었다. 만호도 일어나 그 손을 잡았다.

《난 소장동무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사동지.》

만호가 빙긋이 웃었다. 창국은 마주 웃다가 방금 생각난듯 말을 꺼냈다.

《소장동무, 이번에 현대화공사에서 말이요, 날 자재인수원격으로 좀 써주지 않겠소. 내 이태비도 뭘 얻어오는데선 좀 끈질긴데가 있다오.》

《검사동지가 그렇게 나서주면 더없이 고마운 일이지요.》

《소장동무가 나를 식객취급하지 않으니 그게 더 고마운 일이지. 허…》

창국은 만족한듯 허리를 쭉 펴며 환히 웃었다.

다음날 수직로건설을 위한 협의회가 있었다.련 합기업소의 일부 일꾼들은 설비수입을 그냥 고집했다. 하지만 세멘트분사업소 로동계급은 자체의 힘으로 현대적인 수직로건설을 결의해나섰다. 도당위원회에서도 이 결의를 적극 지지해주었다.

회의에서 수직로건설상무가 조직되고 수직로건설

을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었으며 임무가 분담되었다. 여기서 당창건기념일까지 새형의 수직로건설을 완성하기로 결정하였다.

2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종합청사벽면에 이런 힘있는 대형구호가 새겨졌다.

화학건설연합기업소 세멘트분사업소 노동계급은 수입설비를 들여다 조립만 하면 되는 그런 손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현대적인 수직로를 일떠세울 어렵고도 힘든 걸음을 내짚고서 완강하게 돌진했다. 그 누가 도와줄것을 그들은 바라지 않았다. 설계와 시공, 설비구입과 제작, 자재구입 등 모든것을 자기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사업소의 소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주먹을 부르쥐고 뛰고 또 뛰었다.

자력갱생정신으로 충만된 세멘트분사업소 노동계급의 투쟁열의는 땅속을 헤치고 솟구치는 용암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 열파속에서 새날이 밝고 하루해가 저물었으며 그 열기에 받들려 수직로가 자기의 자태를 드러냈다. 8월초에 벌써 로축조가 마무리되고 9월 중순경에는 주요설비조립이 끝나 새로운 광화제에 의한 소성법 중간시험준비가 완료되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 건설상무위원으로 설비, 자재구입을 자원해서 맡은 최창국검사의 부담은 막중하였다.

아침해살도 퍼지기 전인 어둑새벽에 합숙식당에서 대충 한술 걸치고 나서가지고 그야말로 땀이 돌듯 하다나면 밤이 이윽고해야 방문고리를 잠근 했다. 평양, 대안, 강선, 개천... 수직로건설을 위한 설비나 자재가 있음직한 곳이라면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란 없었다. 이렇게 몸을 혹사하다나니 부엌부엌하던 그의 얼굴에 굴곡이 두드러지고 살결이 꺼칠해졌다.

《검사동지, 몸을 좀 돌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말아하니 미안해서...》

소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녀려할 때면 창국은 항상 선선한 미소로 대답했다.

《아, 또 날 나그네취급하려든다. ... 현대적인 수직로건설은 우리모두가 받아안은 당적과업인데 네 일내일 따로 가르면 이거 참 섭섭한 일이지.》

오늘도 창국은 점시형성구기제작에 필요한 강판을 해결해가지고 점심참에 도착했는데 그바람으로 돌아서서 150마력원료미루분쇄기본체를 수송하러 먼 득장탄광을 향해 떠났다. 원래 미루분쇄기접수는련합기업소 리경선부지배인이 분공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계획된 날자가 지났어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창국이 강판을 부리우고나서 소장방에 들어서니 만호가 결이 올라 수화기에 대고 열분을 토하고있었다.

《...이런저런 조건을 다 가리다가 언제 원료미루를 도착시키겠습니까. ... 됐습니다. 제가 날라오겠습니다. ... 예, 견인차들을 철수시켰다고요. 안됩니다. 제가 그리로 가겠으니 차들을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송수화기를 놓고 돌아서던 만호는 문가에 서있는 창국을 띄어보고 반색을 했다.

《언제 오셨습니까?》

《방금 강판을 부리고 오는 길입니다. 헌데 무슨 일입니까?》

《오래전에 닦았던 길이라 미루가 있는 곳까지 견인차들을 대지 못하겠답니다. 제가 가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중간시험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소장동무가 여기 있어야 할 때인데... 내가 가겠습니다.》

《아니, 방금 돌아오셨는데 무슨 소리를 합니까. 공무반장을 보내겠습니다.》

만호가 황급히 손을 저었다.

《허참, 그만큼 굴려봤으면 이런데선 내가 못하지 않다는걸 알겠는데... 소장동무, 걱정놓으십시오.》

창국은 소장이 두말 못하게 즉석에서 돌아섰다. 그는 방금 강판을 부리고 정비를 하는 화물차를 불러서 운전칸에 올랐다. 이때 황황히 뒤따라온 소장이 팔을 부여잡았다.

《떠나더라도 식사는 해야지요.》

《히, 벌써 점심시간이구만. 하긴 먹은 소가 힘 쓴다는데... 운전사동무, 함께 가지요.》

《예, 뒤따라가겠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며 만호소장은 석성한 목소리로 말했다.

《검사동무, 미안합니다.》

창국은 악의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눈길을 흘렸다.

《또, 또 이런다니까...》

3

현지에 도착한 창국은 난감해졌다. 원래 이 지구에 세웠던 세멘트공장은 산중턱에 자리잡고있었는데 20여년전에 폐기되다보니 길은 잡초가 무성하고 드문하게 나무까지 뿌리를 내리고있었다. 협곡을 가로지른데는 큰물로 하여 험상스레 패여있었다.

리경선부지배인이 지레 겁먹은것이 어느 정도 리해되었다.

견인차운전사들이 투덜댔다.

《검사동지, 보십시오. 팍크가 아닌 이상에야 중량물을 싣고 이런 길을 어떻게 오르내리겠습니까?》

그런 운전사들을 둘러보던 창국은 담배를 꺼내련했다.

《자, 현대식 태우자구. 참, 내 누구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보겠소?》

이야기란 소리에 흥미가 동했는지 운전사들은 화색을 띠우며 슬금슬금 다가들었다.

창국은 담배를 길게 한모금 들이키고는 말머리를 뺐다.

《어느날 운행에 나선 책임운전사가 내리막길로 차를 몰며 보조운전사에게 이렇게 물었다오. 〈이런데서 제동이 풀리면 동문 어떡하겠소?〉 보통 급한 경사가 아니었다오. 가만, 한동무라면 어떡하겠소?》

《기관제동을 하겠습니까.》

《기관도 죽었다오.》

《그럼… 죽기를 각오하고 차와 운명을 같이해야지요. 어딜 들이받든가 아니면…》

《죽음을 각오한다, 비장하구만. 서동무는 어떡하겠소.》

얼굴이 길쭉하고 처녀처럼 해사한 젊은 운전사가 얼굴을 붉혔다.

《거, 급한 경사라면 보통산길이었는데 차를 올리막으로 꺾겠습니다. 그럼, 차가 뒤집어지든가 박살나든가 하겠는데 완전파손은 막을수 있습니다.》

《죽는거보다 까무라치는게 낫다는 소리인데… 하여간 까무라쳐도 마지막까지 차를 몰아갈수는 없겠구만.》

운전사들이 창국의 팔을 잡았다.

《그 보조운전사는 어떻게 대답했답니까?》

《보조운전사가 어떻게 말했나 하면… 〈제동장치가 고장난 차를 운전해보아야 알겠습니다.〉 했다는거요.》

운전사들이 탄성을 했다.

《그 친구 기지있구만.》

《아예 말공부쟁이야.》

창국은 머리를 끄덕이었다.

《그 보조운전사의 말에도 들을 소리가 있지. 일에 닥쳐보지 않고서야 어렵고 위험한것을 알수 있겠나. 모든 일엔 빠심을 들여보고서 시비를 가르는 버릇을 붙여야 한다는거요.》

창국은 얼굴에 미소를 담고 운전사들을 둘러보다가 적재함에 실었던 삽과 곡괭이를 꺼내들고 협곡쪽으로 걸어갔다. 운전사들은 그제서야 창국이 꺼낸 이야기의 의미를 깨닫고서 저마끔 공구들을 나누어주고 그의 뒤를 따라섰다.

길닥기전투가 벌어졌다. 나무를 찍어내고 도랑을 메우며 길폭을 넓히고…

땀별속에서 옷동을 벗어붙인 창국이며 운전사들이 땀을 벌벌 흘리며 길을 내는데 도당의 연락을 받은 득장의 탄부들이 도와주러 왔다. 그속에는 원로

미루분쇄기해체를 위하여 선발대를 책임지고 먼저 왔던 화학건설련합기업소 계획과장도 있었다.

《미루는 다 해체했겠지?》

《부지배인동지가 원로미루를 수송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직 설비이관문건도 채 마무리 못했습니다.》

《뭐라구?》

저도 모르게 노성이 터져올랐다. 과장이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했다. 창국은 날카로와진 눈초리로 계획과장을 쏘아보았다.

《동무에겐 당창건기념일까지 우리 식의 수직로를 일떠세우자는 도당위원회의 결정이 장마당의 싸구려소리처럼 들리오?… 더 긴말할것 없소. 빨리 가서 설비이관수속을 오늘로 끝내오. 그리고 사업소에 연락하여 설비해체인원을 보내도록 하오.》

계획과장이 풍지가 뻗뻗해서 달려갔다. 창국은 억하심정에서 거센 숨을 내쉬었다.

(리경선이 그렇게도 우리의 수직로가 미덥지 않단 말인가. 그에게는 우리의 힘이 것처럼 보잘것없이 보인단 말인가. 환상주의자, 동요분자!)

창국은 가슴속에 솟구치는 격분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은 곡괭이날에 실어 땅을 파제끼었다. 돌에 맞아 팽이날에서 불씨가 탕, 탕 튀겼다. 그래도 창국은 계속 내려친다.

보다못해서 한 운전사가 창국의 곡괭이를 잡아 쥐었다.

《검사동지, 좀 쉬십시오.》

그제서야 곡괭이질을 멈추며 창국은 한숨지었다.

(성난 소 끝받이에 뿔 찰리는줄 모른됐지. 나에게 감정을 살릴 권한이 없다. 누가 옳고그름은 결과를 놓고 따지자.)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좀 가라앉는것이 느껴졌다. 이때 손전화기의 신호음이 들려왔다. 둘째팔 향미에게서 온 전화였다.

《…아버지, 지금 집에 오실수 없나요?》

《공장일때문에 잠을 낼수 없다. 졸업배치때문에 그런다면 전에 말하지 않았니. 당에서 배치하는 곳으로 가면 되는거야.》

향미는 군사복무를 마치고 공업대학을 다니고있었는데 지금 졸업배치를 눈앞에 두고있었다.

《그것때문이라면 항상 바쁜 아버지를 찾지도 않아요. 지금 어머니가…》

말을 못 잇는 딸의 목소리는 갈리었다. 창국은 불안해졌다.

《어머니가 뭘 어떻다는거냐?》

《어머니가 눈을 못 볼수 있대요.》

《뭘, 뭐라구? 향미야, 좀… 좀 자세히 말하거라.》

《어머니는 몇달전부터 원인모를 눈병을 앓고있었어요. 아버지가 아시면 사업에 지장있다고 숨겨왔는데 방금까지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어머니는 오늘 최종진단을 받았는데 각막박리란 병

이래요. 빨리 중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아버지, 꼭 오셔야 해요.》 창국은 심장에 칼날이 박히는듯 한 아픔을 느끼며 아래입술을 깨물었다. 머리속에선 요전번 집을 떠날 때 출장가방을 집어준다는게 딸애의 책가방을 내밀던 안해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신 정신을 어디다 두어서 눈앞의 가방도 잘 갈라보지 못하오?》

당황해서 어찌할바를 모르던 안해. 창국은 머리를 쳤다.

(이 덜통하고 미련한것아...)

그의 눈앞이 흐리마리해졌다.

《아버지... 아버지...》

딸애의 부름에 창국은 마음을 다잡으며 전화기를 귀가까이 가져왔다.

《항미야, 당장은 못 가겠다. 그러니 어머니를 데리고 먼저 병원에 올라가거라. 모레 아니, 글피에 꼭 가마.》

《알았어요. 기다리겠어요, 아버지.》

창국은 천천히 전화기를 접었다. 이상한 감촉을 느낀 운전사들이 무슨 일이 있는가고 물었다.

《손주녀석이 이 할애비를 보고싶다누만. 두벌자식에겐 별스레 마음이 해퍼진단 말이야. 자, 우리 일들을 다그치자구.》

창국은 애써 웃음을 지었으나 불안하고도 조급한 마음은 덜 길 없었다.

4

해체한 원로미루분쇄기부분품들을 산지에서 끌어 내리는 전투는 참으로 간고한것이였다. 짧은 시간에 닦은지라 어설픈돈에 많은 길로 무게가 수백톤을 헤아리는 거대한 미루본체를 싣고 내리는 견인차는 당장에 뒤집어질듯 휘친거렸다. 만일 뒤집어진다면 차는 미루와 함께 골짜기를 따라 사정없이 굴러내릴것이였다.

《난, 난... 정말 못 가겠습니다.》

그래도 운전경력이 십여년이고 제일 로련하다는 한민철운전사도 두다리를 와들와들 떨며 도리질했다.

창국은 주변지형을 둘러보다가 소리쳤다.

《견인바줄을 미루에 매시오.》

분쇄기본체에 맨 바줄을 길우에 뿌리내린 아름다리 밤나무에 걸친 창국은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붙어 내리당기도록 했다.

그러면 산아래로 쏠리는 미루에 반대힘이 작용할것이였다.

하지만 삼십여명남짓한 사람들이 무슨 힘을 내겠는가.

창국은 차적제함에 올랐다.

《아니, 어찌자는겁니까. 내리십시오.》

운전사가 야단쳤다.

《한동무, 사람의 육체적힘엔 한계가 있지만 정신적인 힘은 무한한거야. 우린 죽어도 이 길에서 물러서지 못해. 자, 경적을 크게 울리고 나가자구.》

창국을 바라보며 눈을 슴벅이던 운전사가 입을 앙다물었다. 그리고는 발동을 걸고 경적을 길게 울렸다. 운전칸지붕우에 오른 창국이 손에 든 붉은 신호기를 휘둘렀다. 그걸 신호로 해서 사람들이 바줄을 힘껏 내리당겼다.

《영차! 영차!...》

차가 움직였다. 한치 또 한치...

드디어 차가 본길에 나섰다. 온몸이 그대로 땀주머니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싸안고 돌았다.

《검사동지, 우리가 내려왔습니다.》

한민철이 눈물이 글썽해서 창국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그러다가는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은듯 자기가 방금 차를 몰고 내린 울퉁불퉁한 길을 바라보고...

누군가가 노래를 댔다.

제힘을 믿고 펼쳐나서면
천리도 눈앞에 지척
남의 힘 믿고 바라다보면
지척도 아득한 만리

...

그렇다,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강자가 되는 법이다.

창국은 운전사들의 얼굴에 질박하게 내뿜 땀을 수건으로 훔쳐주며 말했다.

《정말 수고들 했소. 자, 이제 공장까지 단숨에 달려보자구.》

《알았습니다.》

운전사들과 보장성원들이 명령을 받은 병사처럼 가슴을 내밀며 힘차게 대답하고는 차들에 올라탔다. 이때 탄광의 한 일군이 차있는데로 헐레벌떡 달려왔다.

《검사동무, 세멘트분사업소에서 무슨 중간시험인가를 하다가 사고를 났습니다.》

속이 덜컥한 창국이 다우쳐물었다.

《무슨 사고랍니다?》

《모르겠습니다. 난 검사동무에게 연락을 해주라고 해서...》

얼굴이 퍽퍽하게 질린 창국은 서둘러 손전화기를 꺼내들었다. 그런데 전원이 다 나간지라 이미 차단된 상태였다.

(무슨 일로 어떻게 사고가 났는가?)

창국은 탄광에서 보장해준 차를 타고 먼저 떠났다.

《무슨 사고요?》

분사업소에 도착하자 창국은 책임기사부터 찾았다.

《성구기 스크류축이 부러져나갔습니다.》

《스크류축이 부러졌다고? 그럼 다시 가공하면 되겠구만. 난 또 무슨 큰 사고라고...》

창국은 안도의 숨부터 내쉬며 말했다.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구기가 제 역할을 못하니 성구의 실적지표가 보장되지 못했고 이로 해서 크링카의 강도도 저품질입니다. 이렇게 되자 리경선부지배인동지가 하는 말이 우리의 기술로 수직로에서의 고강도세멘트를 뽑을 수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기본설비뿐아니라 부분설비도 수입하자는거지요.》

창국의 미간이 좁아졌다.

《부지배인동무가 어디 있소?》

《수입설비추가제의를서를 작성해가지고 줌전에 도당에 올라갔습니다.》

《뭐라구! 아니, 소장동무는 필하고있었기에 그런 제의서가 도당으로 올라가게 한단 말이지요?》

창국의 눈에서 불이 펄펄 일었다.

《소장동진들 어찌했습니까. 사업소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책임진 부지배인동지의 립장이 것처럼 강경한데야.》

《이건 완전히 망태기란 말이야. 그래 소장동문 어디 있소?》

《공무반에...》

만호는 해체한 스크류축앞에 앉아 담배만 빨고있었다. 끌기없는 만호를 보자 창국은 화가 나서 열을 올렸다.

《소장동무가 이렇게 맥놓고있으면 현대화는 어떡하겠소?》

만호는 축축한 눈매로 창국을 올려다보다가 머리를 저었다.

《힘듭니다. 정말 이제 지쳤습니다.》

《뭐라구? 실망하게 되누만. 그래 소장동문 이 모든것에 대한 각오도 없이 자체의 힘으로 현대적인 수직로를 일떠세우겠다고 결의했겠소? 난 그래도 우리 식 수직로의 기술적타당성에 앞서 자기의 힘을 믿고 나라의 건재공업을 세계의 앞자리에 내세우려는 한 인간의 몸부림과 의지를 먼저 믿고 지지했겠소. 사람을 잘못 보았지. 자신을 믿는 사람은 쉽게 주저않지 않는 법이요.》

만호가 머리를 수그렸다. 창국은 그의 손을 잡고 절절히 말했다.

《소장동무, 우리가 이제 물러서면 조국의 전진이 또 한걸음 늦게 되오. 그러니 일시적인 난관앞에 주눅이 들지 말아주오. 온 사업소가 동무를 바라보고있소. 이는 검사로서가 아니라 한 당원으로서의 부탁이요.》

만호가 머리를 들었다. 그의 눈가에 그 어떤 비

장한 각오가 엿보였다. 창국은 그런 만호의 어깨를 한번 툭 치고는 몸을 돌렸다. 그는 정문을 나서는 득장탄광차를 멈춰세웠다.

《운전사동무, 내 동무네 지배인에게 승인을 받았으니 평성까지 좀 갔다오지요.》

창국은 차가 떠나서부터 운전사에게 재촉을 했다.

《빨리, 좀더 빨리...》

5

창국은 평성시 초입에서 리경선부지배인이 탄 차를 따라잡을수 있었다.

차에서 내린 경선은 창국의 험한 인상앞에서 주춤했다.

《부지배인동무는 지금 어디로 가오?》

《난 되지도 않을 수직로에 시간과 로력을 소비하는걸 더 수수방관할수 없소. 우리가 올해중으로 고강도의 세멘트를 뽑지 못하면 다음해 도의 방대한 건설사업이 뒤틀리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 부지배인동무는 한번의 실패에 겁을 먹었구만.》

경선의 입가에 땀소가 비끼었다.

《난 처음부터 설비수입을 주장한 사람이지요. 첨단과학은 욕망 하나로는 성취하지 못하는거요. 오늘엔 생산 첫시작에 벌써 스크류축이 부러져나갔는데 래일엔 다른 공정들이 튀어나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소. 그리고 난 폭발로 이어질수 있는 새로운 광화제에 의한 소성 그자체를 반대하오. 그러니 두번째 방안을 예견하는것도 나쁘지 않은거요.》

창국의 눈가에서 서늘한 빛이 뿜어나왔다.

《여보 부지배인동무, 우리가 적수공권으로 연결 폭탄을 만들어내고 전후 재더미우에서 천리마의 역사를 창조한 힘이 무엇인줄 아오. 그리고 제국주의의 끈질긴 제재와 봉쇄속에서 주체조선의 위성을 우주에 쏘올린것은... 그 모든건 자신의 힘에 대한 믿음이지요. 우리 혁명 그자체가 바로 우리 힘에 대한 믿음이고 확신이란 말이지요. 이 길에선 제2의 방안이란 있을수 없소. 동무처럼 자신의 힘을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며 남의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강성국가건설에선 장애물이란 말이지요.》

경선의 얼굴이 검붉어졌다.

《검사라고 해서 권한을 쓰며 함부로 감투를 씌우지 마오. 나도 일이 되게 하자고 뛰는 사람이지요.》

《검사로서의 권한을 쓰는게 아니라 세멘트분사업소현대화를 책임진 상무위원으로서 내 마지막으로 동무에게 충고하건대 혁명의 락오자라는 진짜감투를 쓰기 전에 자신을 반성해보는것이 좋을듯 하오.》

창국은 얼빠진 사람처럼 행해있는 경선을 두고

몸을 돌렸다.

창국은 차를 타고 달리며 리경선부지배인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그도 우리 당에서 품되어 키워내세워준 일군의 한사람이다. 지난 시기에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건설을 비롯해서 주요대상건설을 맡아 훌륭히 해낸 뚜렷한 공로를 가지고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남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자기 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상적독소에 물젖었는가.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파왔다.

(남의것에 대한 환상에 절대적인 타격을 안기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우리의 수직로를 성공시켜야 한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문득 부러져나간 스크류축이 안겨왔다.

(공장에서 사고의 원인을 찾았는지...)

창국은 품에서 손전화기를 꺼내들었다가 전원이 없다는것을 의식하고는 운전사에게 눈길을 돌렸다.

《운전사동무, 전화를 한번 쓸수 없겠소?》

운전사의 손전화기를 받아든 창국은 만호를 찾았다. 창국의 목소리를 듣자 만호가 반가워했다.

《...검사동무, 사고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꼬리부분이 설계대로 정밀가공을 잘하지 못해 축 중간부분에 모든 짐이 걸렸던겁니다. 그리고 소재의 열처리도 잘되지 않았고...》

《아, 그렇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나도 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강선에서 축가공을 하자는겁니다. 어떻습니까?》

《강선이 강선이지요. 그런데...》

《소장동무, 스크류에 대한 설계만 보내주십시오.》

소장이 덴접을 했다.

《아니, 또 강선으로 간다는겁니까. 안됩니다.》

《허, 난 불일이 있어 지금 강선에 와있습니다. 그러니 검사해서 제강소에 돌려려 합니다.》

창국은 소장이 걱정을 할가보아서 본의아니게 거짓말을 했다.

《글쎄 그렇다면야...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소장과 전화를 끝낸 창국은 운전사에게 말했다.

《운전사동무. 난 내려야겠소. 그러니 차를 좀 세워주오.》

운전사는 말없이 차를 돌려세웠다. 그리고는 히죽 웃었다.

《사업소에서 고강도세멘트가 나오면 우리 탄부들도 툭툭히 신셀 지겠는데 까짓거 하루쯤쯤 바쳐둬지 못하겠습니까. 지배인동지도 아마 내 결심을 지지할겁니다. 강선까지 함께 갑시다.》

창국은 가슴이 뭉클해움을 느끼었다.

《고맙소.》

《참, 검사동지의 손전화기가 제것과 같던데 이 예비축전지를 먼저 쓰십시오.》

《이거 너무 신세를 지는것 같다, 하여간 다행이요.》

창국은 서둘러 손전화기축전지를 갈아끼웠다. 동시에 세개의 통보문이 날아들었다.

《원료미루를 무사히 도착시켰음. 우리 운전사들도 미루분쇄기조립전투에 진입하였음.》

창국은 히뭇이 웃으며 다음통보문을 펼쳤다. 그러던 그의 인상은 갑자기 흐려졌다.

《아버지, 어머니가 적십자종합병원에 입원했어요. 위험한 수술이래요. 빨리 오세요.》

다음통보문도 딸 향미에게서 온것이였다.

《아버지, 어째서 소식이 없으시나요. 어머니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계세요. 자칫하면 눈물 못 볼수 있대요. 의사들은 어머니가 과부냐고 물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맞나요?》

창국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듯 한 아픔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었다.

《차를 좀 세워주오.》

차에서 내린 창국이 딸을 찾으려는데 낮모를 전화가 들어왔다.

《저, 박춘애환자의 남편이십니까?... 제 담당의입니다. 환자가 받은 진단은 각막박리인데 이에 대한 수술은 의학계에서 새로 개척한 분야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러니 동지가 꼭 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해에게 힘이 될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창국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의사선생님, 안해와 전화를 좀 할수 없겠습니까?》

좀 있어 안해와 전화가 편결되었다.

《여보, 나요. 지금 상태가 어떻소?... 날 용서해주오. 당신을 혹사시키기만 하고 언제한번 따뜻이 위해주지 못한 이 남편을 말ियो. 당신의 소식을 듣고도 난...》

《여보, 그만하세요. 전 당신이 오지 못한다는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수술을 눈앞에 두니 당신이 보고싶고 기다려지고... 저도 사랑을 그리워하는 녀인이니 나약해졌나봐요. 여보, 저에 대한 걱정은 마시고 지금 맡은 일에 전심해주세요. 전 가정에 돌릴 사랑까지도 짊그리 나라를 위해 바치는 그런 검사일군의 안해가 된것이 자랑스러워요. 바로 그것이 당신이 저와 가정에 줄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예요.》

《여보...》

창국은 목이 메여와서 이 말밖에는 더 하지 못하였다. 그의 눈가가 축축히 젖어올랐다.

(여보,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힘을 주는구려. 정말 미안하오.)

창국은 손수건으로 눈곱을 훔치고는 차에 올랐다.
《떠나자구.》

6

창국은 강선에 도착하자 먼저 지배인을 찾아갔지만 그는 아예 막무가내였다.

《동무 정신있소? 우린 국가계획만 하재도 맘놓고 하품 한번 할새없이 일손을 놀려야 한단 말이요. 그런데 뭐 스크류축이라. 사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 돌아가보오.》

창국은 지배인의 손을 잡고 보기 딱할 정도로 빌붙었다.

《지배인동무, 조업기일이 박두했는데 성구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보! 그건 동무네 사정이요. 이걸 놓소. 난 바쁜 사람이요. 당장 우에서 실패로해를 내려온단 말이요.》

지배인은 창국의 손을 뿌리치고 힘하니 방을 나섰다. 창국은 망연해서 한동안 서있었다.

(이렇게 물러설수는 없어.)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서 강철직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자네 새로 배치돼왔나. 가만, 나일 박선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창국이 용해공들의 일손을 거들자 나이지숙한 로장이 물었다.

《전 순천에 있는 세멘트공장사람입니다.》

《그럼 지원자인가?》

《전 강선의 로동계급에게 지원을 받아오 왔습니다.》

《우리에게 지원을 받는다....》

창국은 사람좋은 미소를 지으며 자기가 찾아오게 된 사정을 용해공들에게 이야기했다.

《...제 그래서 여기 용해공으로 일하자는겁니다. 한 뒤달쯤이면 스크류만큼한 로력원가는 보상하겠지요.》

용해공들은 창국의 말을 들으며 감동한 표정들을 지었다. 로장이 창국의 아래우를 훑어보며 말했다.

《로력보상을 한다. 질군이구만. 하긴 온 나라가 다 모여드는 여기 강선에서야 그쯤 비위가 좋아야 얻어갈게 있지. 헌데 손바닥이 말랑말랑한게 힘든 일은 해보지 않은것 같은데 우리 일을 꽤 해낼수 있겠나?》

《아, 걱정마십시오. 내 보긴 이래도 똑심이 있습니다.》

《좋아, 그럼 저기 주물모래를 여기 날라오게.》

창국은 손바닥에 침을 붙이고는 달구지채를 잡았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손을 다그치는데 중앙

에서 내려온 일꾼들이 지배인의 안내를 받으며 전기로에 다가왔다. 창국을 알아본 지배인이 그에게 다가왔다.

《동무, 아직까지 가지를 앓고 여기서 뭘하나요?》

《스크류를 해결할 때까지 갈수 없습니다.》

《뭐라구?》

지배인이 어안이 병병해 서있는데 로장을 비롯해서 용해공들이 한마디씩 했다.

《지배인동무, 사람이 제 집일이라면 그리 극성이겠소. 진국은 진국이웨다.》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하여 증산을 하겠으니 세멘트공장의 현대화를 도와줍시다.》

이럴 때 무슨 일인가 하여 이쪽으로 다가온 한 일꾼이 창국의 손을 덥석 잡았다.

《아니, 이거 최검사동무가 아닙니까?》

누군가 하여 눈길을 들던 창국이 반색을 했다.

《지배인 아니, 부총리동지, 이거 얼마만입니까?》

검사란 소리에 제강소지배인이며 용해공들이 놀라와했다.

《검사동무는 여전하군요. 순천세멘트제설비 현대화때도 우리 생산일꾼들보다 먼저 앞채를 메고 달리군 했지요. 지배인동무, 인사하오. 도검찰소 검사동무요. 내가 거기서 지배인을 할 때 최검사동무에게 혼썰났지. 허, 혼썰났기에 더 엄중한 과오를 범하지 않은거요.》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제진설비현대화를 할 때 있던 일을 두고 하는 소리였다.

부총리에게서 얘기를 듣고난 지배인은 멧적은듯 뒤머리를 쓸었다.

《난 자재인수원인줄 알고... 검사동무, 미안하게 됐소.》

《아, 미안할건 하나도 없습니다. 스크류만 해결해준다면야...》

《용해공들이 세멘트공장의 현대화를 위해 증산을 결의해나셨는데 무조건 만들어야지요.》

지배인이 제잡담 주먹을 흔들며 장담했다. 부총리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지배인동무, 아까 내 말한 추가계획이 바로 순천화학건설련합 세멘트분사업소현대화에 필요한 설비요. 비록 이 세멘트사업소는 작은 지방산업공장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수직로상에서 고강도세멘트 생산을 처음으로 결의해나셨소. 그렇게만 되면 우리의 건재공업은 한걸음 더 전진하게 될거요. 그러니 우리 내각에서 무관심할수 있겠소.》

《아, 그렇다면야 이것저것 쥘것이 없지요. 동무들! 오늘중으로 스크류를 가공해서 세멘트로동계급에게 보내줍시다.》

《알았습니다.》

용해공들이 화답했다.

《동무들! 고맙습니다.》

창국은 강선의 로동계급에게 거듭거듭 인사를 했다.

그날 창국은 강선의 로동계급과 함께 밤을 패며 스크류를 가공했다. 완성된 제품을 중량차에 싣고 분사업소를 향해 떠날 때는 먼동이 떠올무렵이었다.

시험생산준비를 완료한 3호로에 불이 지펴졌다. 분사업소의 모든 종업원들이 새로 일떠세운 3호로 앞에 모여들어 긴장한 마음들을 달래고있었다.

성공할것인가, 실패할것인가 만약 또 실패한다면...

시험생산의 총지휘와 감독을 맡은 만호와 창국이 소성실로 향한 철계단을 오르려는데 리경선부지배인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소장동무, 나도 시험생산에 참가시켜줄수 없겠소?》

석잡한 그의 말소리가 측은하게 느껴졌다. 창국이와의 감정격화가 있는 다음부터 그는 이렇다할 반응이 없었다. 있다면 말 한마디 없이 로동자들과 어울려 일만 직심스럽게 할뿐이었다. 창국은 그의 심중에서 일어나는 번민의 파동을 읽을수 있었다.

만호가 시답지 않은듯 눈길을 돌렸다. 그런 그의 손을 잡으며 창국이 조용하게 말했다.

《소장동무, 부지배인동무가 곁에 있으면 일이 더 잘될것 같은데 참가시켜줍시다.》

만호는 입을 한번 다시고는 말했다.

《보는 눈이 많으면 오금이 저려와 될 일도 안된다는데... 하여간 검사동무나 부지배인동무에게 미리 오금을 박는데 내 지휘에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소.》

창국은 경선에게 눈웃음을 지어보이고는 그와 함께 만호의 뒤를 따랐다.

만호는 무선대화기로 각 부문별, 기대별상태를 마지막으로 알아보고서 명령을 내렸다.

《소성로에 원료를 투입할것!》

밤알처럼 도글도글한 성구알들이 회전식미끄럼대를 타고 줄줄이 쏟아져내려 로우에 고루 퍼졌다. 세찬 송풍압을 타고 솟구쳐오른 희뽀얀 물김과 가스가 소성로굴뚝이 미여지게 밖으로 빠져나간다. 기대들의 세찬 동음이 귀가를 멍멍하게 했다.

20분, 30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신경이 바늘끝처럼 예민해졌다. 이제 10분후이면 새로운 팽화제를 첨가한 원료가 예열대를 지나 소성대에 미치고 새로운 형식의 소성반응이 이루어질것이었다.

《조정실, 요출을 진행할것!》

요출기의 몸부림이 발밑에 미쳐왔다. 좀 있어 콧

퓨터조종공의 흥분된 목소리가 울려왔다.

《류리석회 0, 강도 220, 기대상태 모두 정상.》

그 소리를 듣고 만호가 머리를 푹 떨구었다. 창국이 어정쩡한 눈길로 만호며 로안을 들여다보다가 경선에게 물었다.

《어떻게 됐다는겁니까?》

경선이 벌거우리해진 두눈을 습벅였다.

《검사동무! 성공입니다.》

《뭐, 성공?... 소장동무! 성공이라오!》

창국은 저도 모르는 총동에서 만호를 덤석 그러안았다. 그리고는 어린애처럼 두발을 쿵덩쿵덩 굴렀다.

《소장동무, 끝내... 끝내 우리가 해내고말았소.》

《검사동무...》

세상 과묵해보이던 두 일군이 이마를 맞비비며 좋아 어쩔줄 몰랐다. 옆에 서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성공한 소식을 전해들은 분사업소종업원들이 만세를 불렀다.

창국리와 만호가 소성실을 내렸다. 마당에서 좋아 어쩔줄 모르던 사람들이 만호와 창국을 열싸안아 하늘높이 추켜올렸다.

창국의 가슴이 찢르르해왔다. 수직로를 일떠세우며 겪은 만난고생이 한꺼번에 안겨오며 마음이 숙연해졌다.

자기의 힘으로 일떠세운 공장, 자기의 힘으로 번영할 공장.

창국의 꺼칠해진 두볼로 눈물이 굴러내렸다.

×

순천화학건설연합기업소 세멘트분사업소 현대화 총화 및 평가사업이 있었다.

그날 아침 분사업소회의실에 사업소종업원들이 모두 모여앉았다. 대중앙에 나서던 만호소장은 피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책임기사에게 물었다.

《검사동무가 어디 있소?》

《글쎄말입니다. 아침부터 보이지 않았는데...》

《합숙에 가보오.》

이때 회의장으로 들어서던 리경선부지배인이 손을 저었다.

《검사동문 이른아침에 평양으로 떠났소.》

《그건 어째서 말입니까. 아, 우리 공장현대화사업에서 검사동무만큼 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 종업원이나 같은데 우리가 평가해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만호는 어성을 높였다.

《검사동무가 떠난 다음 내 검찰소 초급당비서동무의 전화를 받았소. 검사동무의 처가 며칠전 눈수술을 받았는데 아직 한쪽눈을 보지 못한다누만.》

《뭐라구요?》

수 필

술에 대한 생각

송 혜 경

자연과의 전쟁!

온 나라가 전후복구건설을 하던 그때처럼 산림복구전투에 떨쳐나섰다. 한그루 또 한그루 조국의 산들에 어린 나무를 심어가는 사람들.

나도 그들속의 한 전투원이다!

한그루, 한그루 나무를 심어갈수록 숲파의 인연이 감개스럽기만 하다. 하여 월참의 우등불가에서 어릴적 추억에 잠겨 즐거이 사람들에게 그 옛이야기를 펼쳐보이곤 한다.

나는 어린시절에 아호비령산줄기밑의 깊은 산골

에서 자랐다. 앞에는 고려의 옛 성터가 우뚝하고 뒤에는 해발 천여미터의 재룡산이 산악을 이룬 그 심산유곡에 우리 집이 있었다.

풋고추나 울감자, 강냉이를 심어먹던 자그마한 터밭을 내놓고는 트랙이 그대로 산과 이어진 집이 여서 아름답리 이깔과 소나무들이 곧 정원수였고 진달래와 철쭉꽃덤불이 곧 꽃밭이었다. 울타리도 포장길도 필요없었다. 빙 둘러싼 숲이 우리 집 성새였고 락엽깔린 산허리길이 리소재지나 학교길과 이어진 큰길이었다.

그 울창한 산을 끼고 살면서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일은 땔나무를 장만하는 일이었다. 우리 산골에서는 《봄나무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한 여름에 장마철을 나기 위해서 기본은 겨울에 뜻이 지내기 위해서 집결에 한동가리씩 가려놓는 나무마련이었다.

흰눈덮인 겨울에 도시에서 산골에 오는 손님들은 그 어느 집에서나 맛툰질로 흥부내외가 박통을 켜듯 통나무를 켜고 도끼로 쨍쨍 장작을 패는 광경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끝없이 물결쳐간 높고낮은 산발들과 흰 연기가 타래쳐오르는 투박한 통나무굴뚝들을 보듯이 산골이 낳는 류다르고도 폐사로운 화폭들이었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만은 언제한번 맛툰질이란걸 해본적이 없었고 아궁에 매끈한 장작을 때본적이 없었다. 우리 집 땔나무는 늘썩 잡관목투성이었다. 동생까지 네식구가 뽕산에 올라가 나무를 한다는 것이 아름다리나무들사이에 제멋대로 우거진 땅참나무와 개버들, 개암과 쉬당 등 배여내면 한두해안에 그 뿌리에서 또 무섭게 돌아 우거지는 관목들을 낫가락으로 휘어베어서 차곡차곡 툇줄기로 단을 묶어 쌓은 것이었다. 한 여름에는 소나무밑의 가래기를 굽어 밤을 짓기가 일쑤였다.

나는 정말 그런 나무가 성차지 않고 불만이였다. 어느해 나는 봄나무를 할 때 입을 삐죽 내밀고 아버지에게 청을 드렸다.

《이따윈 하기 싫어! 우리도 만철이네처럼 좋은 나무를 해때자요. 장작은 불때기가 막 좋아요. 한 아궁만 넣어보지요. 밥이든 국이든 다 설설 끓지 않나. 아버지 그걸 모르는가봐.》

《안돼! 아버지 알아도 힘이 없어서 큰 나무는 절대 못 잘라.》

나는 아버지의 그 말을 곧이듣고 어느날 동생과 둘이서 좀 구불었다고 생각되는 소나무를 베어 집에까지 척 끌어다놓았다. 그리고는 시뚱해서 칭찬을 바랐건만 그날 나는 난생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에 얻어맞았다.

밤에는 내쫓기까지 해서 허청간에 들어가 무저놓은 술가래기속에서 울다가 잠을 잤다.

아버지는 농장의 평범한 리발사였는데 마음이 참 선량하고 고정한분이였다.

신새벽에 누가 찾아오든 그리고 식구들이 밥상을 펴놓았건말진 방앗목에 접이의자를 펴놓고 리발가위를 꺼내들었다. 찾아온 사람이 관리위원회 일군이든 어느 작업반의 소방목공이든 낮가림을 하지 않았다. 그런 착한분이 구부러진 나무를 뺐다고 내뭉치 손을 댄 것이었다.

그 다음날 아버지는 리발하러도 안 가고 나무모를 얻어다가 소나무를 베어낸 그 자리에 열대의 이빨나무를 심어놓았다.

그후에도 나는 두번이나 더 아버지에게 얻어맞았다. 한번은 동네사람이 우리 집 뽕산의 나무를 베어서 밭구에 엮어 팔고가는것을 보고도 자기한테 알리지 않고 가만있었다는 《죄》였다.

그날 아버지는 시라소니라고 벼락같이 나를 꾸짖고 나서 그 《나무도적》네 집에 찾아가 당장 내놓으라고 호통을 쳤다. 그 한동네사람, 만철이 아버지는 너무도 기가 막혀 생당썩물주리를 문턱에 대고 탕탕 두드리며 어처구니없어 고아됐다.

《뭘뭘, 도적? 아이쿠!... 야 이 까까쟁이야, 그게 뭐 네... 네 산이야?》

그때 장작패는 소리처럼 쨍쨍 울리던 아버지의 목소리.

《그래. 내 산이야!》...

그후부터는 누구도 우리 집 뽕산에 함부로 손을 대지 못했다. 일부 사람들은 흥, 제가 마치나 산림감독원이기라도 하나... 하고 뽕소리들을 했다.

나무잡이를 잘하는 동생이 들메나무꼭대기에 바라올라가 할미새둥지에서 알을 꺼내왔을 때에도 아버지는 무섭게 달구었다.

《이녀석, 새가 얼마나 나무벌레를 많이 잡아먹는지 알아?!》...

이런 아버지와 함께 자란 나의 어린 의식속에는 우리 집 뽕산이 정말로 우리 산이라는 자각이 뿌리를 박았다.

그 산이 사회주의조국의 전인민적인 재부라는 리치를 환히 깨닫고 우리 집재산처럼 그 산을 지키고 사랑한 아버지의 공민적감정에 깊이 머리를 숙였을 때는 나는 이미 대학생이 되어있었다.

지금도 우리 집 뽕산은 푸르다. 탄광의 동발목감을 한차례 베어내어 이제는 또 새로운 청춘림이 자라고있다. 미끈한 이빨, 겨울에도 질푸른 소나무, 곧은 참나무들...

너무도 빼곡하여 소슬한 바람에도 아지들이 서로 비벼대는 소리 장엄하고 하늘의 태양을 향하여 저마다 키를 솟구는 울울창창한 숲을 생각하느라면 그밑에서 조용히 웃고있는 한창 젊었던 시절의 아버지의 그 모습이 눈에 삼삼하다.

이제는 그 산을 나의 동생이 지키며 가꾸고있다. 어릴적 나와 함께 숲속을 쫓다니며 새둥지를 털고 나무말을 타던 그 첩부지도 이제는 아버지가 되어 어린 아들을 가르친다.

《애야, 저 박새가 하루에 벌레를 몇마리나 잡아먹는가 하는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했느냐?... 용타, 이 산은 바로 우리 집 산이구 나라의 재부다.》

그는 집뜨락에 아들과 함께 자그마한 양묘장도 꾸렸다. 별의별 나무와 약초씨를 다 뿌리고 나무모에 대한 연구도 한다. 꼭 세상떠난 아버지처럼 살고있다.

아!...

숲이란 무엇인가?...

나의 아버지, 나의 동생, 우리 가정의 사랑이다, 자랑이다.

온 나라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생명의 원천이다. 오늘보다 더 좋아질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찬란한 미래를 억척같이 떠받드는 뿌리이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이다!



우 인 희

△때 현대

△곳 평양의 어느 한 가정에서

△나오는 사람들

최봄향: 사범대학 졸업반 학생

순정: 봄향의 어머니

정민: 봄향의 아버지

선향: 봄향의 동생

순철: 봄향의 외삼촌

△무대

봄향의 집.

무대정면으로 창문이 나있고 벽에는 족자와 벽시계, 한쪽으로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다른쪽으로 나들문이 있다.

무대 한가운데 원탁과 의자가 놓여있다.

△전막앞

렐차의 기적소리 《소연아!》 하며 봄향 급히 달려나온다.

봄향:(여기저기 찾으며)소연아, 가면 안돼! 가면 안돼!

△다시 울리는 기적소리에 이어 렐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봄향:소연아! 아,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봄향 한손에 펼쳐든 편지를 들여다보며 흐느낀다.

봄향:어머니, 난 어쩌면 좋아요! 그 애가 무화

도에서 온 애인줄 몰랐어요. 아,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담.

△피로움에 모대길 때 암전되며 또랑또랑한 처녀애의 목소리가 울려온다.

《대학생언니! 전 대학입학시험을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제가 정말 철부지였어요. 언니말대로 제가 욕망만 가지고 너무 쉽게 들어섰던 대학입학시험장에 저보다 더 높은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수많이 왔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실력을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배워 대학입학시험장에 떼떈이 들어서겠다는것을 약속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해의 최전방 무화도의 딸 림소연 올림》

△막이 열리면

봄향이 의자에 앉아 편지를 읽고있다.

봄향:(너무도 억이 막혀)서해의 최전방 무화도의 림소연...

△봄향 무겁게 일어서더니 창문가로 다가간다.

봄향:무화도... 무화도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고있을까?

△순정 보약단지를 안고나와 원탁우에 올려놓는다.

순정:봄향아, 보약이다. 어서 와 먹어라.

봄향:(창밖을 내다보며)...

순정:애, 봄향아! 아까부터 뭘 그렇게 생각하니?

봄향:(그제야 돌아보며)어머니! 사람이 제일 하기 힘든 일이 뭘가요?

순정:보약을 먹으라는데 똥판지같이...

봄향:글쎄 말해줘요.

순정:그건 한마디로 대답하기 힘든 일이구나.

봄향:아마 나같이 인생의 첫걸음을 떼야 하는 처녀들에게는 말이에요, 자기가 바라고 꿈꿔오던 아름다운 리상이 손만 내밀면 당장이라도 잡힐수 있는데도 자신의 의무는 다른 곳에 있다는 량심의 호소를 따라야 하는 일이 아닐가요?

순정:너 무슨 일이 있는게구나.

봄향:...

순정:왜? 배치문제가 생각대로 안될것 같니?

봄향:글쎄요....

순정:너무 걱정말아. 어제 너의 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네 소리뿐이더구나.

봄향:교장선생님이요?

순정:네가 작년에 교육실습나갔던 평양제1중학교 교장선생이 널 수학수채라면서 자기네 학교에 보내달라고 우에다 정식 제기했다더라.

봄향:그래요?

순정:그러니 다른 생각말구 이 보약이나 먹어라. 그동안 졸업시험칠래, 변론준비할래 몸이 축갔다.

봄향:엄마두 정말...

순정:자, 아- 어서.

△선향 들어오다 멈춰선다.

봄향:선향이 온 다음 같이 먹을래요.

순정:보약은 나누어먹지 않아.

봄향: 에이, 어머니두. 그러다 선향이가 심술부리면 어떻게 해요.

순정:그러게 선향이 없을 때 먹으라지 않니.

선향:(나서며)오, 알만 해요.

순정:응? 호호...

선향:음- 엄만 그저 언니밖에 몰라. 혹시 날 다리밑에서 주어온게 아니냐요?

봄향, 순정:호호...

순정:넌 후에 해주마.

선향:피- 후엔 필요없어요. 난 보약 안 먹어두 몸이 너무 나서 야단이라는거.(코노래 부르며 방으로 들어간다.)

순정:호호... 어서 이 엄마앞에서 좀 먹어라.

봄향:(몽클해진듯 순정을 껴안으며)엄마.

순정:원 애두.

봄향:엄마?

순정:응?

봄향:음- 만약 내가 엄마결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가?

순정:그건 무슨 소리냐? 너 혹시 애인이라두 생겼니?

봄향:애인이요? (시치미를 떼며)나라고 없을가?

순정:호호... 밤낮 책속에 파묻혀 공부만 하는가 했더니 어느새 별써?

봄향:저에게 생긴 애인은 아이예요.

순정:호호, 네가 이 엄말 놀리누나. 어쨌든 봄향아, 명심할건 처녀시절을 너무 가볍게 보내면 후회가 따르는 법이라는거다. 알겠니?

봄향:알겠어요.

순정:그럼 보약을 먹고 좀 쉬려무나, 어서.

봄향:예.

△순정 들어간다. 봄향 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봄향:호... 어쩐담.(단지를 쓰다듬으며)아니, 그렇다고 마음이 약해져선 안돼.(다시 주저하며) 하지만... 어쨌면 좋아. 호- 최봄향, 너 정말 엄마 때문에 이런 결심 해야 하는거냐? 아니면?... 아니면?...

△이때 부름종소리 울리며 순철 들어선다.

순정:(나오며)예-

순철:누이!

순정:아니, 네가 갑자기 웬일이냐? 체육단일이 바빠서 집에도 못 들어간대더니...

순철:봄향이의 특별호출을 받고 왔지요.

순정:우리 봄향이가 외삼촌이 꽤나두 보고싶었던 모양이구나.

선향:(방에서 나오며)야, 외삼촌 왔네, 삼촌.(달려가 안긴다.)

순철:어, 선향이구나. 참, 매부는 여전히 부대에 나가계시는가요?

순정:그래, 오늘 오신다고 전화가 왔다.

순철:마침이군요.

선향:삼촌도 마침이에요.

순철:그래? 참 너 대학입학시험을 친다더니 어떻게 됐니?

선향:(갑자르며) 음-

순철:합격이겠지?

선향:(큰소리로) 땔-어-졌-어-요.

모두: 뭐? 하하하, 호호.

순철: 누이, 야가 확실히 성격있어요. 울어두 씨원치 않겠는데. 원, 하하...

선향: 삼촌, 나 유술 좀 배워달라요.

모두: 뭐?!

선향: 왜들 그래요? 아 나야 (허리를 가리키며) 요만할 때부터 삼촌이 감독으로 있는 체육단에 따라다니면서 눈에 익히게 유술인데, 볼래요?(순철에게) 자세 잡으라요.

순철: (얼결에 따라가며) 응?

선향: 야, 삼촌, 긴장 좀 풀라요, 메쳐보게.

순철: 하하하.

순정: 그만해라, 다 큰 처녀애가 그제 뭐냐?

선향: 왜요? 나두 다 생각이 있어 그러는데. 삼촌, 자, 안다리걸고 이렇게 얏.

△순철 꿈쩍 안한다.

선향: 삼촌, 중심 좀 허물라요.

순철: 하하하. 중심이야 네가 허물어메쳐야지.

순정: (기겁하며) 에그, 뻘뻘, 뻘뻘. 이 애 장단에 발맞추다간 곱새춤도 춰야 할거다.

선향: 그럼 언니하구 해볼까?(무작정 앞에 선다.)

봄향: (기겁하며) 어마, 난 싫어. 호호...

△따라잡으며 둘이 방안으로 들어간다.

순철: 하하하.

순정: 호호.

순철: 누이, 그런데 선향이 어떻게 돼서 대학 입학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공부 꽤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순정: 떨어지긴.

순철: 그럼?

순정: 학급동무들이 모두 경애하는 원수님을 총대로 받들겠다구 인민군대에 입대하기로 했단다. 선향이 기발을 들었지.

순철: 그래요? 군관의 딸이 다르군요. 요즘 애들의 정신세계는 정말 놀랄 정도예요.

순정: 그럼.

순철: 막내가 군대 나가면 누이가 허전하겠군요.

순정: 봄향이 곁에 있지 않니?

△봄향, 선향 웃으며 나온다.

순철: 참, 봄향이 배치문제 걱정말라요. 며칠전에 중앙기관에 있는 동무에게 부탁해놨어요...

순정: 헌데 봄향인 교원으로...

순철: 아아, 누이, 교원두 좋지만 봄향이한테 중

앙기관이 몸에 맞아요.

순정: 그래두 우리 봄향인 교원을 하는게 더 좋을 것 같다. 아버지똥도 그렇구... 나두 같단다.

순철: 봄향아, 넌 어땜니?

봄향: 삼촌, 고마워요. 난... 어머니뜻을... 따르겠어요.

순철: 허, 그렇다? 좌우간 오라는데 많으니 좋긴 좋구나. 하지만 덤비지 말고 잘 생각해봐라.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건 인생의 첫발을 어떻게 떼는가 하는거란다. 난 네가 자그마한 후회도 없이 누구보다 행복하고 보람있고 긍지높은 인생을 가꾸길 바란다.

순정: 아무렴 봄향이 삼촌마음을 모를가.

선향: 다 알아요, 언니는!

순철: 하하. 더퍼리같은 네가 언니생각을 알긴 어떻게 알아.

선향: 알지요, 엄마하구 삼촌이 언니만 꿈쩍이 고와한다는거. 그렇지, 언니?

봄향: 앤?

선향: 왜 그래? 난 심술부리지 않아, 절대루. 앞으로 녀성해안포부대 중대장감인 이 선향인 그런 소소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거, 이걸 알기 바랍니다.

△모두 유쾌히 웃는다.

순철: 누이, 우리 선향이 대를이웨다. 선향아, 대대장이 될 생각은 없니?

선향: 왜요? 런대장두 문제없어요. (모두 웃는다.)

순정: 애들아, 졸업을 앞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근본을 잊지 말고 삶의 보람과 긍지를 자기가 가꾸어야 한다는거다.

봄향, 선향: 알겠어요, 어머니.

선향: 엄마, 외삼촌이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계속 말만 할래요?

순정: 그렇구나. 인차 아버지도 오신다는데 제격한상 차리자.

선향: 우리가 도울게요. (함께 들어간다.)

순철: 봄향아! 넌 여기 와서 얘기나 하자.

봄향: (돌아서며) 예. 삼촌, 여기 앉으세요.

순철: 그래 (앉으며) 배치를 앞두고 생각이 많은 게구나. 이 삼촌을 불렀을적엔 따로 할말이라도 있니?

봄향: 저... 삼촌, 하나 물어두 돼요?

순철:그래.

봄향:삼촌은 무화도라는 곳에 가본적이 있나요?

순철:무—화—도?! 갑자기 무화도는 왜?

봄향:글쎄 말해줘요.

순철:무화도라...(생각에 잠겨) 무화도는 나의 군사복무의 날이 흘러간 잊지 못할 곳이지.

봄향:그래요? 저, 삼촌, 섬이 크나요?

순철:자그마하지. 꽃도 피지 못하는 이름없는 돌섬이라 해서 무화도라고 한단다.

봄향:섬에서 물이 먼가요?

순철:멀지. 나도 군사복무기간 물에 몇번밖에 나와보지 못했다. 그곳엔 배를 갖다대기도 힘들어 자그마한 목선을 타고다녀야 한단다.

봄향:어마... 외롭겠네.

순철:글쎄, 너같은 처녀들에겐 외롭고 쓸쓸하고 또 지어 무섭기도 하겠지. 하지만 총권 병사들에게는 순간순간 이 심장이 뛰는 격전장이란단다.

봄향:삼촌...(조용히) 나 무화도에 가면 어떨까요?

순철:거... 긴... 왜?

봄향:왜라니요? 섬초소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지요 뭐.

순철:하하하.

봄향:왜 웃어요?

순철:이 철없는것아, 무화도가 뭐 어느 동화에 나오는 꽃동산인줄 아니? 보이는건 검푸른 바다, 들리는건 사나운 파도소리, 기와장을 벗기는 드세찬 바람... 온실의 꽃같은 너에겐 무화도가 어울리지 않아.

봄향:에이, 삼촌은 정말, 남은 정색해서 말하는데.

순철:됐다, 됐어. 너 그래서 이 삼촌을 갑자기 호출했니?

봄향:네.

순철:그렇다? 심각한데... 봄향아, 그런 문젠 쉽게 결심하는게 아니다. 너야 평양에서 나서자란 평양처녀가 아니냐! 남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에 배치받고싶어한다는데. 허허 참, 평양처녀가 지방으로 가겠다니, 그것도 무화도로? 안될 소리!

봄향:삼촌, 난...

순철:이 삼촌의 말을 들어두는게 좋아, 후회하지 말고.

봄향:삼촌, 난...

순철:후회한다면서 시작하는 일은 없다. 그러구네 어머니가 승인할것 같니?

봄향:어머니요? 어머니... 승낙할거예요.

순철:뭐라구?!

봄향:물론 받아들이긴 힘들겠지만 종당엔... 승낙할거예요.(옹석부리듯) 삼촌, 그래서 삼촌의 지지가 필요한거지요 뭐.

순철:순간의 결심이 한생의 후회를 낳을 때가 있단다.

봄향:예?

순철:봄향아, 내 이야기 하나 할가?

봄향:이야기요?

순철:(생각깊이)이제는 25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군사복무시절에 알게 된 한 처녀대학생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구나.

봄향:처녀대학생이요?

순철:그래...(추억깊이) 내가 군사복무를 시작하던 그때 우리초소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위문품과 편지들이 오군 했는데 그중에는 병사들이 류달리 기다리는 한 처녀대학생의 편지가 있었다.

봄향:그가 어떤 처녀였게요?

순철:나도 후에 분대장동지의 얘기를 듣고야 사연을 알게 되었다. 어느날 우리 분대장동지가 부대에서 준 명령을 받고 물에 올랐다가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고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며 태풍이 불기 시작했다더구나. 그날 밤으로 돌아가야 할 명령을 받은 몸이라 옆에서 말리는것도 마다하고 무작정 배를 띄우려는데 한 처녀가 함께 바다길을 떠나겠다고 따라나섰다지 않니. 알고보니 사범대학 졸업반학생이었는데 우리 섬분교에 교육실습을 나오는 길이었지.

군교육부에서는 날씨사정으로 며칠후에 떠나도록 지시를 내렸다는데 실습계획에 다음날부터 수업에 들어가게 되어있다면 막무가내로 분대장동지를 붙잡았지. 허참, 한다하는 배군들도 엄두를 못냈다는 그런 날에 담도 크지. 그래서 한창나이에 죽고싶은가, 이런 날에 무사히 섬까지 간다고 군인이나도 장담 못한다 하고 으름장까지 냈단다.

봄향:그래 어떻게 됐나요?

순철:그랬더니 그 처녀가 하는 말이 교육사업은 미래를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전장이다, 그러니 자기의 걸음은 순간도 미룰수 없으며 시간을 다룬다, 명령을 생명으로 여기는 군인이 래일의 수업을 명령받은 자기의 걸음을 지체시켜야 옳은가? 허허,

무슨 힘으로 그 처녀와 세찬 파도를 헤쳐 섬으로 올수 있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는구나. 섬에 와서 그 처녀는 섬분교아이들은 물론 우리 병사들과도 얼마나 친숙했었던지 실습을 마치고 대학으로 떠나 가던 날 온 섬마을 사람들이 바래우러 나왔다는구나. 그후 그에게서는 위문편지들이 오곤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면 꼭 섬에 와서 우리 병사들과 함께 있으면서 군관의 자식들을 배워주는 선생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구나. 그래서 그의 편지 류달리 우리 병사들의 힘이 되었지. 그때 분대장동지의 말을 통해서나 알고 한번 만나본적이 없었던 나의 마음에도 어느새 그 처녀의 모습이 자리잡기 시작했단다. 그런데... 졸업하게 되었다는 편지가 온 후론 갑자기 소식이 끊어졌단다.

봄향: 그후 소식은 아나요?

순철: 1년후에 우연히 들었는데 평양에 있는 군관에게 시집을 갔다고 하더구나. 이해할만 한 일이지. 하지만 그때 병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는지 그 처녀는 생각 못했을거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를 찾아가 우리 병사들의 심장속에 자리잡았던 그 모습을 아니, 허울에 불과했던 그것을 훌 던져주고싶다. 그래서 그런지 김옥순이라는 그 처녀의 이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봄향: 김옥순?!

순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겠니?

봄향: (피로워하며) 알아요. 하지만 난... 난 이미 결심했어요.

순철: 그렇다? 물론 선택의 권리는 자신에게 있지만 그러한 선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줄수 있단다.

봄향: (단호히) 삼촌, 전 절대로 실망을 주지 않을거예요, 절대로!

순철: 영?!

봄향: 그러니 삼촌이 무조건 지지해주세요.

순철: 무조건?

봄향: 예.

△선향 나온다.

선향: 언니, 나 아버지 좋아하시는 두부 사러 갔다와.

봄향: 내가 갈테니 넌 가서 어머닐 도와줘라.

선향: 그럼 빨리 갔다와. (들어간다.)

봄향: 그래. (나가려다.)

순철: 봄향아!

봄향: ... (멈춰선다.)

순철: 혹시 너... 그곳에 꼭 가려고 하는 다른 리유가 있는건 아니냐?

봄향: 저... (주춤한다.)

순철: (조급히) 그렇지?

봄향: 삼촌, 그건 제발 더 묻지 말아주세요.

순철: (놀라 굳어지며) 봄향아!

△부엌에서 순정과 선향의 웃음소리 《앗!— 따가워라. 엄마—》 《그만큼 조심하라는데, 쓰리겠구나》, 《일없어요, 호호.》, 《엄살쟁이—》 높아가는 웃음소리.

순철: 봄향이 어머니때문에? 아니, 설마—

선향: (나오며) 삼촌, 내가 만든 음식이 어떤가 맛 좀 보세요.

순철: ... (생각깊이 창가를 바라본다.)

선향: 삼... 촌... (이상한듯 살피다가 부엌으로 들어간다.)

△선향 순정을 데리고나와 순철을 가리킨다.

순정: 뭘 그렇게 생각하니? 앉아 좀 쉬지 않구.

순철: (무겁게) 우리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순정: 뭐?!

순철: 우리 오누인 어려서 일찍 부모를 잃고 부모들이 일하던 공장 당비서어머니손에서 자랐지요.

순정: 갑자기 그 얘긴 왜?

순철: 우리가 자란 합숙방은 크지 않아도 당비서어머니와 공장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이 늘 짝 차있어 우린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자랐어요.

순정: 그랬지.

순철: 생각나요? 그렇게 다심하면서도 엄격하던 당비서어머니가 울던 일이?...

순정: 그래. 내가 자라 부모들이 섰던 일터에서 일할 때였지. 내 이름이 나붙은 작업반 속보앞에서 눈물짓던 당비서어머니의 모습을 난 처음 보았다.

순철: 내가 군대나가는 날 군복입은 내 모습을 대견히 바라보며 눈물이 글썽해지던 비서어머니의 모습이 군사복무 전기간 이 심장에 짝 차있었어요.

순정: 그래, 사랑이 어떤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었지.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니?

순철: 난 말이에요, 지금도 누이가 안해를 잃고 어린 봄향이를 홀로 키우던 때부와 일생을 같이 할 결심을 했을 때가 잊혀지지 않아요. 더우기 봄향이 친어머니가 처녀시절에 위험에 처한 동지들을 구원하고 몸을 상한 뒤 그 후유증으로 결혼후

에 딸자식을 하나 남겨놓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남긴 어린 자식의 어머니가 되어 줄 결심을 한 누이에 대한 존경과 믿음이 정말 컸어요. 그러면서도 누이가 혹시 일시적인 감정이냐 동정으로 후날 후회를 하게 될까봐 은근히 걱정도 했어요.

순정:후회?... 후회라는건 믿음이 적을 때 생기는거란다. 봄향이 친어머니도 훌륭한 여성이었지만 그런 여성과 선뜻 일생을 같이하는 봄향이 아버지 또한 훌륭한 사람일거라는 믿음이 더 컸지. 또 오늘날까지 날 믿고 봄향이 걱정없이 부대일을 하시는 봄향이 아버지가 고맙고...

순철:그래요?

순정:그런데 갑자기 그런 소린 왜?

순철:누이, 우리끼리 솔직히 말해보자요.

순정:뭘?

순철:혹시 누이가 봄향이때문에 마음속 부담을 느끼고있는건 없어요?

순정:영?!(굳어진다.)

순철:누이의 진정을 알고싶어요.

순정:진정?... 하기야 있는 정을 다 기울이느라 해두 혈육의 정을 넘진 못하는 법이겠지. 하지만 난 봄향일 단 한번도 내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순철:그럼 왜 봄향이가 집을 떠나려고 하는가 말이에요?

순정:그래? 아까 나보구두 뭐라고 하던데 정말 총각이 생겼다면?

순철:총각은 무슨! 봄향이가 무화도라는 섬 분교 교원으로 가려고 해요.

순정:(놀라며)뭐라구? 무... 화... 도?!

무화도라면 거 서해 한끝에 있다던 그 섬 말이나?

순철:그래요. 제가 군사복무를 한 그 섬이에요.

순정:봄향이가... 거긴 왜?

△선향 놀란다.

순철:내 보기엔 그 어떤 충격적인 일로 내려진 결심이 아닌것 같아요. 축적된 어떤 감정이 없고 서야...

순정:그러니 나때문이라는거냐?

순철:아니길 바라지만 평양을 떠나 그 외진 섬으로 가려고 할 때야 그 무엇이 가슴에 맺힌게 분명한데...

순정:(억이 막힌듯)그러니 이 예미가 친어머니가

아니어서 떠나겠단다는거지? 그것두 그 먼데루?

순철: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누이에게라고 뭐 이북예미의 속된 마음이 없었겠소?

순정:아니? 너... 무슨 말을 하자는거냐?

순철:누이가 종당엔 자기의 결심을 승인할거라고 하던데 가가 어디서 그런 확신이 생겼겠어요?

순정:이건... 너무 가혹하구나.

순철:이제 그 애를 탓할게 아니지요.

순정:이제 내 봄향이 아버지앞에 뭐라구 한단 말이나? 뭐라고... 아-

△순정 휘청거리며 심장을 움켜쥐고 의자우에 털썩 주저앉는다.

선향:엄마!(순정의 심장을 두드린다.)

순철:누이!

선향:(울먹이며)삼촌은 뭐예요? 언니가 엄마때문에 멀리 가려 한다구요? 삼촌이 어쩌면 엄마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할수 있어요?

순철:너도 어른이 되면 리해될게다.

선향:믿을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잔등을 두드린다.)

△봄향 구력을 안고 들어오다 달려온다.

봄향:어머니, 왜 그래요? 예?

선향:언니때문이야. 엄마 심장 터지기 직전이야. 예이-

봄향:뭘?(순정의 팔을 주물러주며) 엄마!

순정:그만해라.

선향:언니가 집을 떠나서 무화도라는데 가겠다는게 사실이야?

봄향:?!...

선향:어서 대답해봐.

봄향:그래, 사실이다.

선향:왜? 엄마사랑이 부족해서? 친엄마 아니어서?

순정:선향아?

선향:(울먹이며)엄마사랑에 주린건 사실 나야.

봄향:선향아!

선향:난 철없을 땐 늘 엄마를 원망했어, 내가 앓을 때조차 언니 걱정 먼저 하는 엄마여서... 내가 고운 옷 입고싶어해두 먼저 언니걸 사주었구, 어쩌다 맛있는 음식이 생겨도 언니를 먼저 생각하는 엄마였어. 생각나? 내가 급성폐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마저 애타게 엄마를 불렀지만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 교육실습으로 외지에서 생일을 맞는 언니를 찾아가느라 앓는 나에겐 울수 없었지.

혹— 철이 들면서야 왜 엄마가 언니를 그렇게 사랑 하는지, 그 사랑을 왜 나에게만 나누어줄수 없었는지 적게나마 깨닫게 되었어.

봄향: 선향아, 날 용서해라. 네가 받을 엄마의 사랑을 내가 다 빼앗았다.

선향: 그런데 왜 그래? 왜?

봄향: (순정에게 다가가며) 어머니, 난 태어나서부터 친엄마의 등에 한번도 업혀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친엄마의 사랑이 어떤것인지 모르고 자란 나였지만... 엄마, 엄마 나에게 혈육이상의 정을 갇그려 안겨줬어요.

순정: 그만해라.

순철: 그런데 왜 집을 떠나겠다는거냐?

△봄향 품에서 편지를 꺼낸다.

△선향 편지를 받아든다.

선향: (읽어보다가) 서해의 최전방 무화도의 딸 립 소연?

순철: (편지를 받아보며) 무화도? 봄향아, 이게 어떻게 된거냐?

봄향: 전 얼마전에 졸업시험준비를 하느라고 공원에 나간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리 대학 입학시험공부를 하던 소연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하루는 그가 수학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좀 배워달라기에 설명을 해주면서 보니까 공부는 많이 했는데 빈구석들이 좀 있더군요. 그래서 대학입학시험장엔 전국에서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오기때문에 입학이 쉽지 않을거라고, 그렇다고 부모나 그 누구의 도움으로 입학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자기 량심을 속이는 일이라고 했어요. 사실 그가 먼 외진 섬 초소에서 왔다는걸 알고 대학의 여러 선생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려고 애쓰고있었다는걸 전 그가 떠나간 후에야 알았어요. 하지만 소연인 그걸 알고있으면서도 글썽 이렇게...

순철: 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허허, 난 또... 누이, 내가 오해했겠다. 날 용서하시우.

순정:...

선향: 언니, 내가 잘못했어. 야,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같구나. 진작 그 말부터 할것이지 괜히 울며불며 했네.

순정: 그러니 그 일때문에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냐?

봄향: 어머니...

선향: 그렇다고 꼭 거기에 가야 한다는 법이 있어?(오금을 박듯) 언니 그 섬에 못 가. 나두 군대

나가는데 그럼 얼마 혼자 있잖아. 그렇지요, 엄마?

순정:...

선향: 얼마 갑자기 병어리가 뻘어? 어서 안된다 구 말해요.

봄향: 어머니, 허락하시지요?

순정: 이진... 그렇게 쉽게 결심할 일이 아니다. 자식들이 언제면 부모마음을 알 때가 있겠는지...

봄향: 엄마... 나 엄마마음 다 알아요. 허지만 엄마가 저에게 그토록 아낌없이 기울인 정이 이 한 가정에 머무르는 그렇게 작고 리기적인것이였나요? 예? 아니예요. 이 심장을 짹 채워준 어머니의 사랑은 저를 이 작은 울타리에 매어두기엔 너무도 뜨거웠구 큰것이였어요. 그래서 나도 어머니처럼 그들을...

순정: 그만해라. (눈물짓는다.)

봄향: (구원을 바라듯) 삼촌...

순철: (딱한듯 어쩔바를 모르다가) 하지만... 내가 말하지 않았니? 무화도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다가도 평양으로 시집을 간 처녀두 있어. 오죽하면...

봄향: 삼촌, 그 애긴 그만하세요.

순철: 왜, 너를 납득시키기 위한 구실인줄 아니? 너같은 수재급의 졸업생들은 꼭 평양의 교단에 서야 해.

봄향: (안타까이)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교육자의 교단의 높이는 평양이나 외진 섬이나 다 같다고 생각해요.

선향: 야, 언니두. 책대루 말해서 언니를 당해내? 언니 안돼!

봄향: 선향아!

선향: 언니마음속에 도대체 엄마가 있긴 있어?

봄향: 뭐?

선향: 엄마 생각 조금이라두 있다면 내 말 들어. 그렇지 않다면 섬이든 산골이든 가고싶은데 꼭 가.

봄향: (선향의 손을 잡으며) 선향아!

선향: (뿌리치며) 보기 싫어.

△봄향 창가로 다가가 창밖을 내다본다.

△순정, 선향, 순철 제 생각에 잠긴다.

△부름종소리.

선향: (달려나가며) 아버지 오셨어요.

△정민 신문을 들고 선향이와 들어온다.

정민: (순철에게) 처남, 이거 오래간만이요.

순철: 예.

순정: 오셨군요. (외면한다.)

정민:(분위기가 이상한듯)어, 방안의 공기가 좋지 않다. 왜 땀진인가? 선향아.

선향:언니보구 물어보라요.

정민:봄향아, 무슨 일이나?

봄향:...

정민:(순정에게)여보.

순정:(억이 막힌듯)봄향이아... 무화도라는 섬분교 교원으로 가겠대요.

정민:무화도?!(놀라며) 봄향아, 그게 사실이나?

봄향:네.

정민:사실이란 말이지?

선향:(편지를 보여주며)이거때문이야요.

△소연이의 편지를 받아본다.

정민:음...

순철:본인이 스스로 포기하고 갔는데 그것때문에 량심상 가책을 받으며 저러지 않소.

순정:당신이 말 좀 해줘요.(애원한다.)

△정민이 깊은 생각에 잠겨 방안을 거닌다. 사이.

선향:언니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온 아버지까지 괴롭히면서...

순철:봄향아, 봐라, 너의 그 충격적인 결심이 어떤가.

순정:아직 확정적인건 아니니 너무 탓하지 말아.

봄향:어머니...

순정:봄향아, 정말 이유가 그뿐이라면 이 엄마 말대로 하렴.

봄향:전 제 결심을 바꿀수 없어요.

모두:뭐라고?

△정민 생각깊은 얼굴로 봄향을 바라본다.

봄향:(정민을 마주보며)그래요. 전 아버지나 어머니가 저를 지지해주길 바래요.

순철:고집두 참, 매부.

정민:나도 네 결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모두:예?

정민:오늘 봄향이의 배치문제를 놓고 생각하던 바를 이야기하고싶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집에 들렀드랬는데... 허허, 많은 말을 준비했는데 결국 긴 설명이 필요없게 되었구나. 봄향아, 난 기쁘다. 내 딸이 어느새 이렇게 자라 사회앞에 지닌 임무를 스스로 결머질줄 알게 되었으니 정말 기쁘구나.

순철:(의아하여)매부?!

순정:여보, 갑자기 웬일이세요?

정민:봄향아, 내 너를 믿었다만 네가 이렇게 성장한줄은 미처 몰랐구나. 이제 네 친엄마도 마음을 놓을거다.

순정:친엄마라니요?

봄향:어머니... (품속에서 종이장을 꺼내준다.)

선향:(놀라며)아니?! 탄원서... 김옥순?!

정민:봄향이 친어머니다.

모두:예?!

순정:(읽어보더니)그러니 봄향이 친어머니도 대학졸업을 앞두고 무화도의 교원으로 탄원했던 말이에요?

정민:그렇소.

순철:뭐라구요? 김옥순이라구요?

정민:(생각에 잠겨)봄향이 친어머니는 그때 무화도에 갈 탄원서를 쓰고 동무들과 기념식수를 하러 산에 올라갔댔소. 그런데 산꼭대기에서 큰 바위가 굴러내려오는것을 먼저 발견한 그가 위험에 처한 동무들을 밀어내고 다리를 상했지. 그래서 무화도의 병사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구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르오. 그후 우리에게 봄향이 태어나자 섬방어대군인들과 한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그렇게 기뻐하더니...

봄향:흑...

순철:그러니 25년전에 우리 군인들과 섬으로 오겠다고 약속했던 처녀가 봄향이 친어머니였던 말이에요?

정민:그렇네.

순철:원, 세상에 이럴수가 있나...

순정:어쩌면 저에겐 한마디 말도 없이...

정민:미안하오. 봄향이 마음이 어떤지 몰라 선뜻 말할수 없었소.

순철:매부, 그 말을 왜 이제야 하는거요. 예? 그때 그 처녀대학생이 봄향의 친어머니였다는걸 왜 여직껏 말하지 않았는가 말이요. 우리 병사들이, 우리 섬초소사람들이 그의 소식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나 말이요?

정민:소식을 알면 가슴아파할 그들을 생각했던 거지.

순철:그런걸 난... 봄향아, 너라도 한마디 하면 안된다더냐? 여직껏 너의 친어머니를 오해해왔으니 네앞에 용서를 빈다.

봄향:삼촌, 사실 후날 말해주고싶었어요. 제가 무화도의 아이들에게 첫 강의를 하게 되는 그날 몇

뗏이 말해주고싶었어요, 그날의 처녀대학생이 오늘
에야 왔다고!

순철:그래그래.

순정:봄향아...

봄향:어머니, 미안해요. 사실 대학에 입학하는
날 아버지가 저에게 친어머니의 탄원서를 말없이
안겨줄 때 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처 몰랐
어요. 하지만 대학의 교정에서 제가 배운건 단순한
학문만이 아니었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또 졸업이
가까워올수록 이 탄원서를 안겨준 아버지의 말없는
부탁과 친어머니의 소원도 깨우치게 되었어요. 하
지만 결심을 내리기 힘들었어요. 내가 나서자란 평
양에서의 행복하고 환희로운 생활의 순간들이 저의
마음을 계속 흔들었으니까요. 더우기 엄마, 엄마의
결을 떠나기가 너무 아쉬워 더 주저했고 선뜻 말을
꺼낼수도 없었어요.

순정:봄향아.

봄향:하지만 무화도의 소연이를 만나본 후엔 피
로워 못 견디겠어요. 저보다 어린 그는 내가 여기
서 나 하나의 행복을 놓고 저울질할 때 그렇게 회
망하던 대학교정의 문어구까지 왔다가도 스스로 포
기하고 돌아가는데 당의 배려로 대학공부까지 했
다는 난 글썽...

순정:내가 네 마음을 다 몰랐구나. 난 정말이
지 널 키우기만 했지 정신은 네 어머니가 심어주
었구나.

봄향:아니예요. 어머니들의 사랑이 이 가슴에
심어준거예요. 친어머니도 주지 못했던 육친의
정을 짱그리 안겨준 어머니의 사랑이 우릴 키워
준 당의 사랑을 깨우쳐주었고 그것으로 키워온
조국에 대한 사랑이 저를 이 길로 떠밀어주었던
거예요.

순정:고맙다.

정민:옳게 말했다. 자, 봐라, 우리가 어떤 위대
한 사랑의 품에 안겨사는가를... 그 품에 누구들이
제일 가까이 안겨사는가를.

모두:(신문을 보며)아니?

선향: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무화도를 찾으셨다는
소식이 실렸어요.

순철:아니,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 사
나운 날바다를 헤쳐 무화도에 가셨단 말ियो?

거기가 어디라구. 예?! 흑- 아직까지... 군판에
게 시집을 보낸 딸자식들에게 부모들도 와볼 엄두
를 못 났다는 그 험한 곳에...

정민:얼마나 우리 병사들이 보고싶으시었으면,
얼마나 병사들을 사랑하시었으면 그 위험한 최대열
점지역에까지 몸소 가시었겠소.

순철:그래요, 정말이지... (목메인다.)

봄향:어머니, 아버지원수님께서 무화도의 아
이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어요.(신문을 짚으
며)여기.

모두:어디?!

선향:야, 이 애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정민:여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
봄향이의 앞길을 축복해주신것만 같구려.

순정:그래요. 봄향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랑
의 한품에 안아주신 무화도의 아들딸들을 잘 키워
라. 이 엄마의 아니, 두 어머니의 부탁이다.

봄향:알겠어요. 제 꼭 평양의 딸답게 무화도의
참된 딸이 되겠어요.

순철:고맙다, 결국 꽃도 피지 못한다던 그 험한
섬에 네가 봄의 향기를 안겨주는 한떨기 꽃으로 피
게 되었구나.

선향:어마, 봄향- 봄의 향기! 그럼 난 뭘가?

정민:우리 선향이야 총대로 조국을 지키는 선군
의 꽃이 돼야지.

선향:알겠어요, 아버지.

△모두 웃을 때 무대 암전되며 설화가 울린다.

오늘은 평양의 딸이 무화도로 떠난다. 그의 소
행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를 두고 잊지 못할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었
거니.

그는 이렇게 위대한 사랑에 떠받들려 온 나라가
다 아는 평양의 딸이 되어 우리 당의 전반적12년
제의무교육실현의 첫페지를 펼치며 인생의 첫걸음
을 떼었다.

그렇다, 이런 크나큰 사랑이 있어 이 나라 수
천수만의 청년들의 평범한 인생의 첫걸음은 언제
나 애국으로 시작되고 애국으로 이어지고있는것
이다.

△설화속에 무대 밝아지면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이다.

△여기로 봄향과 그의 가족들 나와 환하게 웃으
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
사를 드린다.

-막-

특다른 수료

리 순 실

하늘의 별들이 내려앉은듯 집집의 창문들에 불들이 하나, 둘 켜지는 저녁 하루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식구들이 다 모여앉는 때는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다.

우리 가정의 평범한 어느날 저녁도 그렇게 깃들었다. 맛있게 식사를 끝내고앉아 저저마다 하루동안의 일들을 자랑하기도 하고 다음날 일요일계획도 토의하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아들은 공장에서 직장별 축구경기를 하는데 무조건 저희가 이긴다고 열변을 토하고 유치원교양원인 손녀는 애인과 함께 유원지에 가기로 했다고 얼굴을 붉히며 말한다. 육아원에서 보육원을 하는 며느리는 또 애기를 돌생일준비하러 상점에 가야 한단다.

모두가 화기에 넘쳐 웃고 떠들고있는데 나들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인민반장의 귀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8시부터 17살이상 여자들만 모이는 특별회의가 있는데 빠짐없이 참가해야겠어요.》

《여자들만 모이는 특별회의?》

며느리와 손녀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궁금해한다.

《뭐? 여자들끼리? 허참, 무슨 회의일가? 나도 슬쩍 너자로 변장하고 참가해봐? 허허...》

아들은 벌글벌글 웃음속에 호기심을 나타내며 익살까지 부렸다.

《할머니도 가야 하나요?》

손녀가 나에게 묻는다. 또 아들이 나의 대답을 대신해나섰다.

《할머닌 너자가 아니냐? 어머니도 어서 준비하고 가세요. 〈아, 시대가 준 이름 여성혁명이 그대들 앞길에 봄날만 있으라〉...》

아들은 흥얼흥얼 노래까지 부른다.

잠시후 8시가 되어오자 우리 셋은 의문과 호기심 속에 반장네 집으로 갔다.

모두가 웃음뎀 얼굴에 궁금증이 가득 어렸다.

금방 꽃망울을 터친 처녀들로부터 하얀 은발의 녀인들까지 다 모여들었는데 그속에는 아들이 조국보위초소에서 위훈을 세워 영웅이 된 어머니도, 세계무대에 공화국기를 휘날린 력기선수처녀의 어머니도, 며칠전에 과학자휴양소에 갔다는 연구사녀인

도... 여러가지 직종과 직무를 가지고 사회를 위하여 복무하며 누구나 삶의 기쁨을 한껏 누리는 인민반녀인들이 다 모였다.

몸집이 부한 인민반장녀인이 일어나 출석부를 펼치였다.

매 세대마다 녀자들이 다 왔는가를 확인하고 빠진 녀인들을 데려까지 오게 했다.

(무슨 특별회의이기에 한명도 빠짐없이 다 모이게 할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호기심은 더해만 갔다.

잠시후 밖에 나갔던 인민반장이 동진료소 담당의사와 함께 들어섰다. 키가 호리호리하고 얼굴이 이쁘장한 처녀의사는 예방주사도 놔주고 위생선전도 나오곤 하여 우리들과 무척 친숙해진 터였다. 의사선생은 다소곳이 인사를 하고나서 진중한 낮빛으로 녀인들을 둘러보며 말머리를 떼었다.

《오늘 녀인들을 위한 특별회의는 나라에서 우리 녀성들이 유선증과 유선암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고 초기에 적발할수 있는 치료체계에 따라 내려보낸 이 진찰서를 알려드리기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뭐라고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웨치다싶이 하였다.

녀성들의 건강을 위해 마련된 특별회의의 의미가 나뉘어 아니라 모두의 심장을 친것이다.

《그럼 진찰서를 읽겠습니다.》

녀의사는 은구슬을 굴리는듯 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진찰서를 읽어내려갔다.

유선증과 유선암의 초기증상들이 상세히 적혀있는 진찰서를 다 읽고난 녀의사는 녀인들에 대한 문진을 시작하였다.

진찰이 끝나자 의사선생은 인민반의 모든 녀성들이 다 건강하다고 기뻐하며 온 나라 녀성들이 정상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나라에서 정기적인 검진체계를 세워주었다고 다시금 강조하였다.

그리고나서 책과 원주필을 내놓으며 여기 모인 모든 녀성들의 수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것이 아닌가.

녀인들은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 울먹이었다. 나의 가슴도 뭉클하였다.

수표! 세상에는 여러가지 명분의 수표가 있다.

나라와 나라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

에서 친선과 교류를 위해서도 하고 기업체들과 개인호상간에도 사업과 생활의 이모저모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의 증명이나 확인을 위해 자기 이름을 써 넣어 표식을 한다.

생명을 책임진다는 수술장에서의 수표며 매일 저녁 아이들의 숙제를 검열하고 남기는 수표며 한치의 땅을 지켜 싸우는 결사전의 마당에서 불타는 맹세를 담아 피로써 쓰는 수표며 인간생활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표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평범한 날의 어느 한 저녁에 우리 녀인들이 한 수표는 이 세상에 없는 류다른 수표였다. 이런 수표는 아마 우리 세상,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에서만 볼 수 있을것이다.

나의 생각은 자연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해방전 우리의 녀성들은 이름도 없는 천덕꾸러기 사회의 희생자들이었다. 수난 많던 그 시절 우리 녀인들의 이름은 눈물과 슬픔, 천대와 굴욕의 대명사로 불리웠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일제놈들의 마수에서 우리 녀인들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남녀평등권법령발포라는 역사적인 해태을 안겨주시었기에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역세게 밀고나가는 사회와 집단의 당당한 성원들로 자기 위치를 뚝뚝이 차지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몫 단단히 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파사로운 사랑의 해빛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치로 변함없이 이 강산에 가득 차넘치고있다.

나의 생각은 가지를 치며 몇달전에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를 찾았던 일이 방불히 떠올랐다.

나는 유선중앙연구소에 들어선 순간 자신을 잊을 번 하였다. 자신이 꿈을 꾸지 않는가 하였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왔는가.

으리으리하고 황홀한 멋쟁이연구소... 내 머리속에 풍부한 조선말을 다 동원하여도 제대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녀성들의 보금자리라고 할가.

(그래, 녀성들을 위한 최고의 집!)

나는 입속으로 외우며 황홀하기 그지없는 치료실들과 입원실들을 돌아보았다.

다목적렌트겐과 최신형의 CT초음파진단, 심전도설비들이 장비되어있고 먼거리의료봉사체제가 실현되어 전국의 녀성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유선질병의 조기적발 및 예방사업이 진행되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연구소를 최상의 수준으로 건설하기 위해 몸

소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천만로고를 다 들이셨다는 연구소의사의 말은 나의 가슴을 세차게 들먹이게 하였다.

참으로 인류가 문명시대를 맞이한 때로부터 수백년의 력사가 흘러 지금은 녀성존중과 남녀평등, 녀성우대에 대하여 많이 말한다고들 하지만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와 같이 신분이나 직업,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녀성이라면 누구나 검진과 치료를 마음대로 받을수 있는 그런 궁전과도 같은 병원이나 연구소는 아직 그 어느 나라에도 있어본적이 없을것이다.

그렇다, 세계에 없는 사랑의 연구소.

진정 이 나라의 모든 녀성들을 한품에 안아 그 어떤 질병도 모르는 행복속에 살게 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우리 녀성들은 세상에 부러움없는 복받은 녀성들이다.

《자, 그럼 송희 할머니, 수표하세요.》

끝없이 가지쳐나갔던 나의 생각은 처녀의사의 말에 중등무이되었다.

맨 앞줄에 앉은 로병할머니가 원주필을 쥐고 방안의 녀인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쟁로병인 나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50년대 정신을 이어받아 고마운 이 사회주의제도를 끝까지 지키라고 생명이 지는 순간까지 말해주겠소.

경애하는 원수님! 팔십이 넘도록 사는 저야말로 정말 건강합니다.》

그리고는 힘을 주어 토박토박 수표를 했다, 《한옥녀》라고.

그다음에는 약학대학에 다니는 4층 2호집 딸 은하의 차례였다. 단정한 자세로 수표를 하고나서 일어난 그는 문득 자기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다.

《어머니, 나를 녀성으로 낳아준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사과알처럼 량볼이 새빨강고 갓 피어난 나리꽃처럼 청신한 은하를 바라보던 인민반의 녀인들은 그 만 눈시울이 뜨거워와 힘껏 박수들을 쳤다.

뜻밖에도 폐사로운 인민반회의가 매 사람들의 격정을 토로하는 마당으로 되어버렸다.

받아안은 혜택이 뜨거워 날이 갈수록 정이 가고 사랑이 깊어가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뜨거운 생각에 잠겨있는 나를 옆의 녀인들이 찾았다.

《어머니차례예요. 어서 수표하세요.》

녀의사가 나에게 원주필을 내밀었다.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아, 무심히 할 수 없는 이 류다른 수표.

한떨기 한떨기 아름답게 건강히 피라고 것처럼
다심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
한 사랑을 받으며 삶을 즐기고있는 이 나라 여성
으로 태어난 행운을 담아 나는 수표를 한다, 《리
순실》이라고.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녀인들의 이
류다른 수표는 태양복이 넘쳐나는 우리 조국에서
다함없는 매혹과 흠모, 충정과 맹세의 서사시로,
일심단결과 혼연일체의 한페지에 력사로 남을것

이라고.

문득 나에게는 한 녀성시인의 시구절이 떠올
랐다.

두번다시 태어난대도
나는 녀성으로 태어나고싶어라
선군의 이 시대
사랑깊은 이 대지에
존엄높은 아버지의 딸로
...

시묵음

탄 부와 석탄

석탄과 탄부

리 신 환

땅속에서 먹은 나이
으뜸이라 자랑하지만
땅우에서 사는 나이
버럭보다 짧은 석탄

허나 너를
탄부 우리들은
일생의 길동무로 사랑한다
짧아도 빛으로 남는 너의 삶
타면서도 밝게 웃는 너의 모습

그래서 탄부 우리들은
너를 더없이 사랑한다
빛과 열로도 모자라
재마저 들에 거름되는 진정

사람들 석탄을
《검은금》이라 부르며 아끼듯
조국이 탄부 우리들의 삶을
불이라 빛이라 아끼며 부르게 살자

우리 사는 탄전

리 명

우리 사는 탄전은
평양에서 수백리
우리 일하는 막장은
땅우에서 땅속으로 수천척

날을 따라 멀어만지고
세월따라 깊어지는 우리 일터에선
언제나 새 탄벽과의 상봉으로
삶의 희열을 느끼며 산다

기름진 탄벽과 마주할 때면
탄부 우리의 마음은 벌써
발전소 화력타빈에 실려있고
비료며 강철더미를 타고있는 마음

언제나 탄과 인연을 맺고사는
우리 탄부들과 우리 탄전은
원수님 계시는 평양과
원수님의 사랑과 정으로 제일 가까웁다!

나의 안전등

리 명

낮이나 밤이나 막장길 밝혀가는
탄부 나의 이 안전등
쫓러야 할 발파구멍과
세워야 할 동발위치만 비치던가

월참 당보의 글줄에 초점 맞추면
건설장마다에 날리는 용접불꽃
만집 싼고 달리는 열차들
번개치며 돌고도는 화력타빈들

그러면 가슴 뿌듯해지는
지하의 착후병된 탄부의 이 궁지
공업의 식량을 마련해가는
크나큰 영예로 불타는 이 심장

탄부 나의 이 안전등은
조국의 대화력기지와
쇠물이 사품치는 용광로들에
불을 지펴주는 발화등이다
비약하는 공업의 밑불이다!

산국화꽃다발

김 명 철

교대를 마치고 갱박에 나오니
탄전의 언덕길에 활짝 핀 산국화
오늘도 화력탄을 많이 켜 그 동무
막장에서 나오면 안겨줄테야

꽃다발은 벌써 아름넘는데
그 동문 아직도 왜 안 나올가
불같은 그 성미 교대를 잊었나봐
하루계획 두배도 성차지 않아...

나는 정말 멍퐁이야
착암기에 언제나 만바람만 주면서도
이 꽃다발 왜 언덕길에서 주려고 한담
막장에 달려가 안겨주어야 할걸

그렇지 그래
산국화꽃다발을 안겨주며는
채탄공혁신자 그 총각
석탄산 통채로 내 가슴에 안겨줄거야

탄부들의 출근길

리 신 환

막장으로 향한 탄부들의 출근길
걸음을 다그치는 처녀들
자전거 타고가는 총각들과 일꾼들
자주 멈추어섰다가 간다

마치 탄전을 향해 저탄장을 향해
허리 굽혀 인사하듯
길가에 널려진 석탄덩이
하나 둘 주어담으며

탄전에선 혼한것 석탄이지만
량심의 진주인듯
애국의 보석인듯
그 진주보석 마음에 담으며

바쁜 걸음 누구나
멈춰서는 저탄장
진주보다 보석보다 더 귀중한 탄부의 마음
저탄장우에 빛나는 탄부들의 출근길이어

—구장탄광에서—

치마바람

김 용 엽

내 다시 들었노라
 풍자의 이 붓을
 낮에도 밤에도 펴려 펴려
 저 남녘땅 청와대 미친년이 일으키는
 그 치마바람에 분격을 누를수 없어

《민주화, 복지》...
 그 선거공약은 헌신짝처럼 다 켜버리고
 펴려 풀려덕...
 칼날같은 그 치마바람에
 통합진보당도 강제해산
 《자주민주》도 강제폐간...
 민주주의와 인권은 란도질 당하고
 민생은 박살난 유리조각되었구나

그 치마폭에 알락달락
 눈맛종게 질끈 동여매단것이란
 《신뢰프로세스, 통일》광고판이건만
 풀러덕거리는
 그 치마폭안에선 벌어지누나 와글와글
 《종북소동》이며
 우리의 최고존엄을 해치는 빼라살포
 짹짹 짜르릉 짜르릉
 미제와 야합한 북침훈련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간다 안 새라
 동족을 헐뜯고 분열을 꾀하는 그 치마바람
 미친년 달래캐듯 돌아치며
 미국땅에 가셔도 들썩이며 풀러풀러
 서유럽에 가셔도 달썩이며 팔락팔락
 유엔총회에 가셔도 악취풍기며 풀러덕풀러덕

그럴수밖에
 그럴수밖에

양풍서린 그 치마폭에
 언제나 꿈져 싸안고 다니는것이란
 미제와 그 쫄거리들에게 섬겨바칠 퇴물꾸레미
 《북핵포기》와 《인권》, 《개방》
 《흡수통일》을 구걸하는 문서장들뿐이니

그 지랄에 온 민족이 치를 떤다
 요사스럽고 독기를 풍기는 그 치마바람은
 애비놈의 망령 되살리는 《유신》독재파쏘바람
 통일을 가로막아나서는 반통일 반민족바람
 나라와 민족에게 재난만 들썩우는 화근바람
 역적바람 매국노바람이라고

그러니 왜 폭발하지 않으랴
 국민들의 그 분노 화산처럼
 집권 2년에 모든것을 파탄시킨
 박근혜는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내 묻노라 박근혜에게
 -뒤돌아보라 5천년민족사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바친 애국렬녀들
 그 화원이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다운가를
 아무리 눈여겨 살펴보아도 없을것이다
 너같은 역적년 너같은 매국년은

민족의 존엄도 자존심도 다 켜버린
 미친년의 치마바람
 불을 즐기면 불에 타죽기마련인듯
 미친 바람 일으키길 그리도 좋아하니
 결국 네가 일으키는 그 치마바람에
 마가울 락엽처럼 날려가고말리라
 죄 많고 치사스러운 그 몸통이
 저 노호하는 남해로 남해로

평범한 생활과 생동한 세 부적화록

림 순 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소설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늘 목격할수 있는 평범한 생활의 본질을 드러내며 평범한 인간의 마음 속에 깊이 간직되어있는 숭고한 정신세계를 전형화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주위의 평범한 생활속에서 그 본질이 드러나는 새로운 형상을 창조하는 문제는 형상의 독창성에 관한 문제로서 소설가들에게 시종일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오늘 우리의 소설가들앞에는 문학형상에서 도식과 틀을 단호히 깨버리고 경직을 풀며 그리하여 문학의 사명과 본도에 맞게 대중을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불려일으켜야 할 심각한 문제가 나서고 있다.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널리 읽히우고있는 장편소설 《행복의 권리》 창작성과에서 중요한것은 가깝고 평범한 생활속에서 새로운 형상을 탐구하여 형상의 독창성을 보강한것이다.

생활은 흐른다.

한순간도 멈춤이 없이 앞으로, 앞으로만 내닫는 생활의 와류속에 소설가의 선택의 세계도 함께 내닫는다.

장편소설 《행복의 권리》에서 작가는 너무나 가깝고 평범하여 누구에게나 부피두터운 장편소설의 소재감으로 안겨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선택하고 새라새로운 생활세부형상으로 눈에 띄이지 않는 생활을 만사람의 눈에 띄이도록 내세웠다.

소설은 년간계획수행을 위하여 펼쳐나선 남편들과 한숨결, 한보조를 맞추어 평범한 한생을 그지없이 행복하게 수놓아가는 어느 한 탄광마을의 탄부안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강성국가건설에로 내닫는 우리 천만군민의 투쟁은 시련과 난관, 보람과 혁신, 기쁨과 랑만으로 가득차 있다. 대체로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보람찬 전투장들을 생활무대로 하는 장편소설들에서는 책임비서나 지배인을 주인공으로 한다든가, 기사장, 기술혁신집단을 형상의 중심에 내세운다든가 말하자면 판을 크게 벌려 그 형상구도가 안겨오곤 했다.

그런데 소설은 뜻밖에도 공업의 식량이라 일컫

는 인민경제 주요부문인 석탄전선에서 책임적인 지휘성원이나 뛰어난 기술자도 아니고 더우기 탄부도 아닌 탄부안해들의 생활을 소재로 하고있다.

탄부안해들의 생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

소설가는 탄광녀인들의 생활을 눈에 띄이는대로만 그린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평범한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있는 숭고한 정신세계를 드러낼수 있는 세부적화폭들을 선택하고 펼쳐보였다.

《…

그러나 혜정은 발 한귀퉁이에 장난삼아 여라문포기 떠올려심은 고추에 더 원심을 썼었다.

남편은 맹물에 만 밥이여도 풋고추에 된장만 있으면 성찬이라고 만족해하였다.

고추는 기특하게 열매를 잘 맺어주었지만 도제 몇포기 안되는데다 클 사이없이 따먹어서 열매가 달리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물이 오른것을 별로 따보지 못했다. 고추가 생길데는 많았다. …

인심후한 동네녀인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그들은 제 집뜨락이 따로 없고 제 집문턱이 따로 없는듯했다. 넘겨다보고 열어보고 서로 주고받는것을 한 집안사람 대하듯 한다.

혜정에게는 〈평양색시〉라고 해서 더 각별하다. 그 덕에 풋고추는 시들시들 마른것이 한구들이나 된다. …

혜정을 유혹한것은 자기의 손끝에서 난 그 열매를 남편에게 맛보이는 그때의 기분이었다.

그는 그 일이 왜 그리도 재미나는지 알수 없었다. 그런 까닭에 고추 몇포기를 심어놓고 온 여름속을 태웠다. 그 식성을 미리 알았더라면 터발 전 면적에 몽땅 고추를 심었을게 아닌가. 혜정은 어둠속에서 안타까이 고추포기를 손더듬었다. 선기가 나기 시작해서 한창 물이 오를 때이전만 손에 잡히는것은 새끼손가락보다 더 작은 애리애리한것 네댓개뿐이었다. 그것이나마 귀중한 보물처럼 두손에 꼭 감싸쥐고 들어와서 토장을 담은 꼬마접시에 가지런히 얹어놓았다.》

소설의 주인공—탄광에 갓 시집온 평양새색시—

혜정의 모습이다.

또 다른 하나의 생활화폭이 안겨온다.

현장에서 일어난 뜻밖의 사고로 오쩌엄마라고 불리우는 너인의 남편이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혜정이 그 집안일을 도와주느라 하루저녁 들린다.

《…

아이들은 방 한가득 널려서 손발도 씻지 않은채로 자고있었다. 가로, 세로 혹은 코를 박고 자는 모양이 각이한데 둘째는 량다리를 막냉이의 배우에 섰듯 좋게 올려놓고 코까지 가르릉거린다. 그밑에서 막냉이가 가위눌린 꿈을 꾸는 모양 꿈꾸거리고있다.

혜정은 둘째를 바로눕히고 한참이나 방구석에 망연히 서있었다. 기가 막혔다. 자기는 잠깐 와서 시중드는것도 힘에 부친데 오쩌엄마는 매일, 매 시각 이런 아이들의 단련을 받을터이니 말이였다.

혜정은 그래도 주인의 체면을 지키느라 고 앓은 자리에서 꺼덕꺼덕 졸고있는 일남이부터 차례로 깨워 세면장으로 떠밀었다. 넷째와 막냉이는 끝내 일으키지 못해 수건으로 손발을 닦아주었다.

아이들이 씻으려고 들락날락하는 째에 방안을 걸레질했다.

미닫이문이 한뼘가량 벌어져있는 옷방은 호기심의 대상이다. 방이 좁다하게 돌아치는 아이들이지만 언제봐야 그 방은 불가침구역으로 여기니 말이다.

혜정은 문틈으로 옷방을 기웃이 넘보았다.

일남이가 다가와서 미닫이문을 갈라놓으며 중얼거렸다.

〈아버지방도 닦아내야 할텐데…〉

〈아버지방?〉

〈네. 아버지가 교대작업을 하시구 들어와서 쉬는 방이야요.〉

혜정은 미닫이문안으로 들어섰다.

아래방 절반만 한 옷방은 느낌부터 달랐다. 방은 더없이 아늑하고 정갈했다. 장난세찬 아이들이 거둔 뒤없이 어질러놓아 편히 앓을 자리도 정하기 어려운 이 집에 이런 방이 있을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 침대보와 수놓은 베개잇은 얼마나 산뜻한가! 그리고 탁자우의 물주전자받치개와 창가 립보는!…

혜정은 방을 닦으며 폭신평신했던 침대며 소리없이 돌아가는 상두대우의 탁상시계까지도 정히 쓸어보았다.

남편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여성의 세계가 이 방에 한가득 차고넘치는듯

했다.

사람은 결단 보고 알수 없다. 참된 인간일수록 진심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놓고 사는 법이다. 오쩌엄마를 거칠고 덜레덜레한 녀자라고만 보아온 것은 얼마나 험애한 견해인가. …》

또 다른 탄부의 안해 오쩌엄마의 생활이다.

혜정과 오쩌엄마, 이 두 녀인뿐아니라 소설에 등장하는 많은 탄부안해들의 심중속에는 《나는 탄부인 남편을 사랑한다》는 한가지 고백이 출렁인다.

그 단 한가지 고백이 수십가지의 다양한 생활로 독자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작가가 선택한 탐구방향은 무엇인가.

앞의 두 실례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소설가는 탄부녀인들의 순결하면서도 헌신적인 고백의 세계를 누구에게나 쉽게 쓰이는 그들의 외면세계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쉽게 쓰이지 않는 내면세계를 한치한치 파고들어 보여주고있다.

몇포기 안되는 고추구루에서 새끼손가락만 한것을 네댓개 골라따쥐고 그리도 장한듯싶어 미소짓는 혜정.

어둠속에서 끝끝내 골라낸 지금의 고추는 오직 혜정이만의 고추로서 독자들로 하여금 주인공 혜정의 내면세계를 한결음 더 깊이 파악하게 한다.

탄광에 갓 시집온 평양새색시로서 아직은 다 안다고 볼수 없는 남편 립용수. 그는 남달리 사내싸고 자존심이 강한 사나이이다. 그는 결코 결혼을 고맙게 여기는 식의 자존심없는 사나이가 아니다. 용수는 혜정을 그지없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도 선뜻 자기의 탄부라는 세계에는 들여놓으려 하지 않는다.

혜정은 미궁같은 남편의 속을 하루빨리 밝은 대낮의 프락에서 풀어보고싶다. 안타까이 어둠속을 헤매이는 혜정의 손더듬이 이를 방불히 보여주고있다.

하나하나 골라쥐는 작은 고추열매들은 한치한치 더듬어 남편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한마음한뜻이 되고야말, 남편의 심리의 밑바탕까지 하나로 되고야말 그 녀자의 끈질긴 성격을 거울처럼 비쳐준다.

오쩌엄마가 보여주는 세계는 혜정이와 정반대의 세계이다.

오쩌아버지는 간호가 없이는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 때문에 오쩌엄마는 늘 침대에 붙어있으며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혜정은 그 여름밤에 찾아가서 오쩌엄마를 쉬우기도 하고 대신 간호를 맡기도 했는데 무거운 환자방의 분위기를 깨버리는것은

환자를 찾아오는 혜정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오째엄마자신이다. 오째엄마는 언제 무슨 일이 있던가싶게 활발한 성격을 드러냈다.

의사가 와서 상처를 해집어보일 때면 결사람들은 끔찍스러워 면바로 보지도 못하는데 의사의 처치를 거들어주던 오째엄마는 《이 령감이 무슨 엄살이야. 좀 참아요.》 하고 아직 그 나이에 이르지 못한 남편을 령감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식사 시간에 밥을 떠넣어주면서도 젓먹이아이를 다루듯 《오늘은 이 그릇을 다 비우기 전에 물러앉지 않겠어요. 좋아요. 아이구, 기특하기란! 언제 이렇게 고분고분해졌을가.》 하고 노죽기가 어린 소리로 수다를 떨어 온 입원실을 웃음판으로 만들곤 하였다. 혜정은 같이 따라왔다가도 이 데설데설한 아낙네의 머리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고 의심이 들 때가 있다.

그런데 지금 혜정의 눈앞에 가장 큰 호기심의 대상으로 살그머니 열려져있는 오째아버지의 방거둑새는 무엇을 말해주고있는가.

정말이지 사람은 결만 보고 알수 없다. 참된 인간일수록 진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사는 법이다.

참된 인간의 진심!

작가의 임무는 참된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보석처럼 묻힌 이 진심을 끝끝내 파고들어 찾아낼뿐아니라 그 진심을 그 어떤 화려한 미사려구나 진부한 설명으로가 아니라 가깝고 친근한 생활적 화폭으로 그려내는데 있다.

즉 섬세하고 뚜렷한 선과 색을 가진 생활단면으로 세부화하여 구체적으로 숨쉬고 움직이는 하나의 산 화폭을 그려내야 한다.

만일 이러한 화폭화된 내면세계가 없이 《나는 탄부인 남편을 사랑한다》는 진심이 소설의 여러 계기들에서 대사나 설명으로 표현되고 반복, 강조되는것으로 대치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진실감을 떨어뜨리게 된다.

어둠속에서 그리 크지도 않은 고추를 찾아 안타까이 손더듬하는 혜정의 모습과 생각과는 정 반대로 정숙하고 정갈하게 비다듬어진 오째아버지의 방에 대한 묘사는 남편과 한마음한뜻이 되기 위해 애쓰는 녀인의 세계, 탄부인 남편을 사랑하고 무한히 존중하는 녀인의 세계를 가깝고 평범한 생활로 알뜰하고 의미있게 보여준 독창적인 세부들이다.

생활은 누구에게나 다르다.

생활을 겉으로만 보면 이모저모로 비슷하게 보일 때가 많다. 반대로 생활의 내면을 파고 또 파헤치면 매 인간의 생활이 참으로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생활의 리면을 파헤친다는것은 결국 그 인물의 내면세계를 파고든다는것을 의미한다.

진심은 내면세계의 가장 깊은 곳에 간직되어있다. 이것을 발견하기 위한 소설가의 노력에 따라 소설의 철학적깊이가 담보되고 또 그렇게 애써 발견한 진심을 구체적인 생활화폭으로 그려내기 위한 소설가의 탐구정도에 따라 경직이 풀린다.

이 소설에 고유한 세부적 화폭에 잇달으는 또 하나의 화폭이 있다.

《…

〈책임적으로 가져가랴요! 다른 소대에 떼우지 말고.〉

백승범의 안해가 남편을 신칙하는 소리이다.

로동이 가해진것에는 반드시 소유관념이 생기는 법이다.

녀자들은 소유관념에 예민하다.

이구동성으로 안심치 않은 말을 한두마디씩 한다.

…

그때 상진이 돌연 태도를 바꾸었다. 주변을 두릿거리다가 셋하얀 알탄채를 주어들고 동발을 실은 광차의 옆면에다 글을 새기는것이였다.

녀인들이 몰켜서서 그의 손짓을 따라가며 합창하듯 읽는다.

〈림용수소대에 보내는 동발!〉

…

혜정은 상진이 버린 탄재를 다시 집어들었다.

〈안해들로부터!〉 라고 상진이 쓴 글말에다 밝혔다. 혜정의 손을 주시하고있던 녀인들은 그제야 불임표가 명백해졌다고 좋아했다.》

남편들의 고민거리를 풀어주려 안해들이 가족지원대를 무어 산판에 올라 동발목을 마련한다.

그 끝에 벌어지는 이 가벼운 심경이를 과연 생활의 군더더기라고 할수 있겠는가. 여기서는 녀성들 고유, 안해들 고유의 심리가 해말끔하게 보인다.

정다움과 야속함, 오해와 리해, 정숙과 정갈, 우스개와 차넘치는 녀인들의 생활…

탄전녀인들의 이 평범한 생활바다속에서 소설가는 지휘일군들의 충실성과 책임성문제, 새 채탄법 도입과 같은 과학기술적문제를 비롯한 시대정치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들을 함께 풀고있다.

《…전 당신이 받들고있는 그 동발목 밑에 내 어깨도 들이밀고싶어요. 당신의 땀속에 내 땀도 섞고싶어요. 당신의 타는 심장에 내 심장도 합치고싶어요. 그 뜨거운 열기속에서 행복을!… 진정한, 진정한

한!... 나의 권리를 찾고싶단 말이예요. 그리고 당신이 소문난 일군도 영웅도 되길 바랐어요.

어느때건 어버이장군님께서 막장에 찾아오시여 당신의 손을 잡으시고 〈영웅인 동무의 안해는 누구요?〉 하시면 당신은 그이께 저에 대해서 말씀드렸을테지요. 전 그 순간을 바랐어요, 꿈같은 그 순간을!... 아!...》

이 소설의 절정을 이루는 장면의 한단락이다.

평범한 생활의 매 세부들이 이 마지막장면을 너무나도 굳건히 떠받들고있다.

깨끗하면서도 강직하고 서로 허물이 없는 탄부녀인들의 참다운 생활이 마치도 동발목처럼 마지막절정을 굳세게 치받들고있다.

결국 소설가들의 노력은 가장 가깝고 평범한 생활속에서 그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파헤치기 위한 탐구이며 그 하나하나를 생활적인 세부들로 감싸 평범한 인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전형화하여 보여줌으로써 독자대중에게 인상적인 감동과 정서적감흥을 주기 위한 화폭탐구라고 부언하고싶다.

우리 소설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총진군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 자기들의 생활이 가장 값있고 아름다운 생활이며 보다 더 아름답고 힘있는 생활의 창조자가 되기 위하여 힘있게 일떠서리라는 자부심과 결의를 주는 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하여 분투하고 또 분투하여야 할것이다.

조선문학 주체104(2015)년 제9호 (루계 제815호)

편 집 위 원 회

내 국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 체 104(2015)년 9월 1 일

발 행 주 체 104(2015)년 9월 5 일

7-56424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5

D P R Korea

ISSN 1727-9437